아웃도어 스타일 패션 / 캠핑 / 트래블 / 기어
www.gooutkorea.com

GO OUT KOREA

07/08
2023 JUL / AUG
vol.127
10,000won

INDOOR TRAVELLER BLACK DIAMOND 북한산성 챕터

ITEM SHORTS MAKE LONG DELIGHT 긴 여름, 다양한 쇼츠와 함께

SPECIAL LIVE LIGHTLY

ADVER 어디서나 함께 즐기는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Go!

어디든 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ADVER 콤팩트한 멀티 버너 '벨락 테이블 버너 & IGT 버너 인서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버너

ISSN 2234-6732
10,000won

Lord John Grey

BELLROCK
EXCITING OUTDOOR LIFE
www.bellrock.co.kr
1588.0923

GO OUT CONTENTS

VOL. 127 / 2023 JUL · AUG

005 **COPYRIGHT**

008 **EDITOR'S NOTE**

009 **GO OUT CHOICE**
<고아웃> 에디터가 엄선한 이달의 아웃도어 아이템

022 **INDOOR TRAVELLER #1**
BLACK DIAMOND
북한산성 챕터

024 **INDOOR TRAVELLER #2**
NTCA®
도시의 삶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브랜드

026 **ITEM**
ROMAN IN YOUR SHIRTS

036 **ITEM**
CHILL VIBES
디자인과 기능, 쇼츠의 시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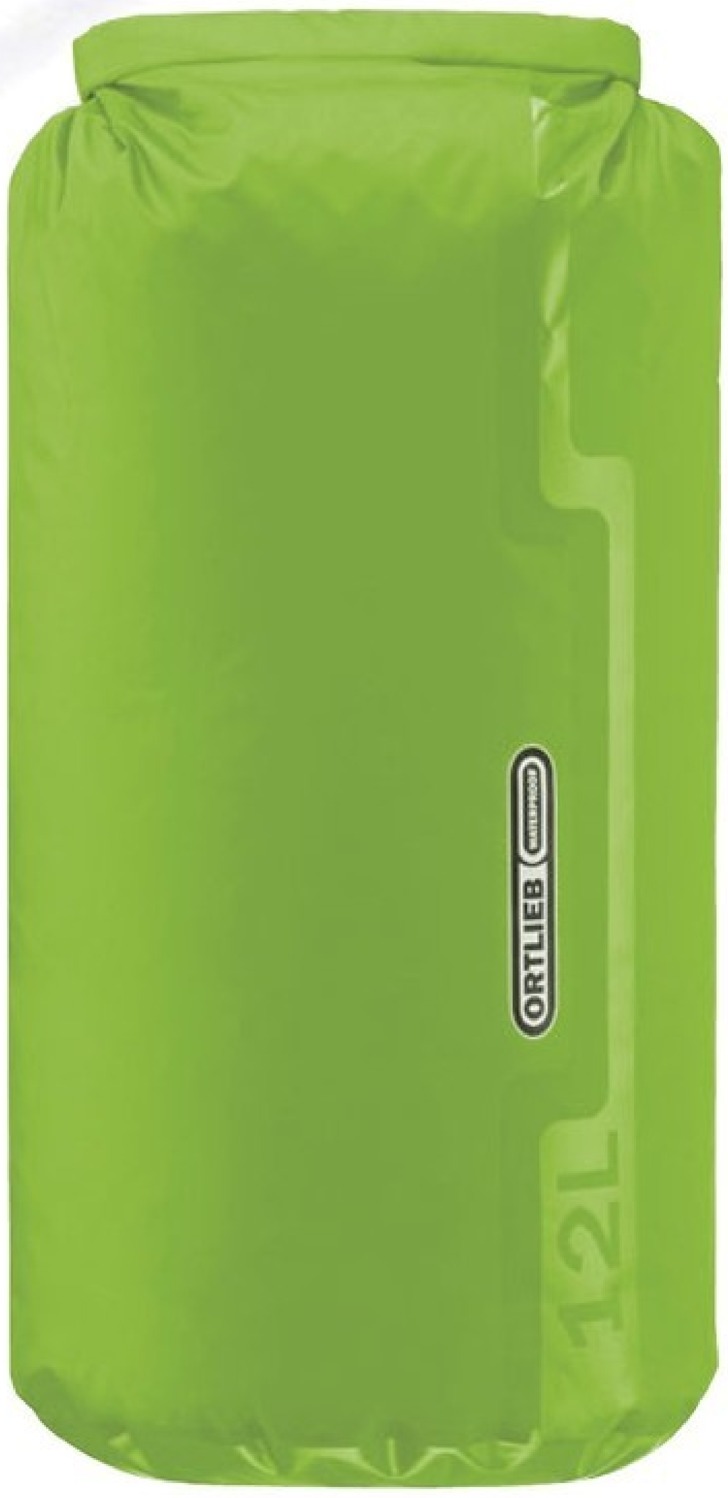
046 **PEOPLE**
OUR SUMMER? HAPPY SUMMER!
우리의 여름은 즐겁다. 여름 페스티벌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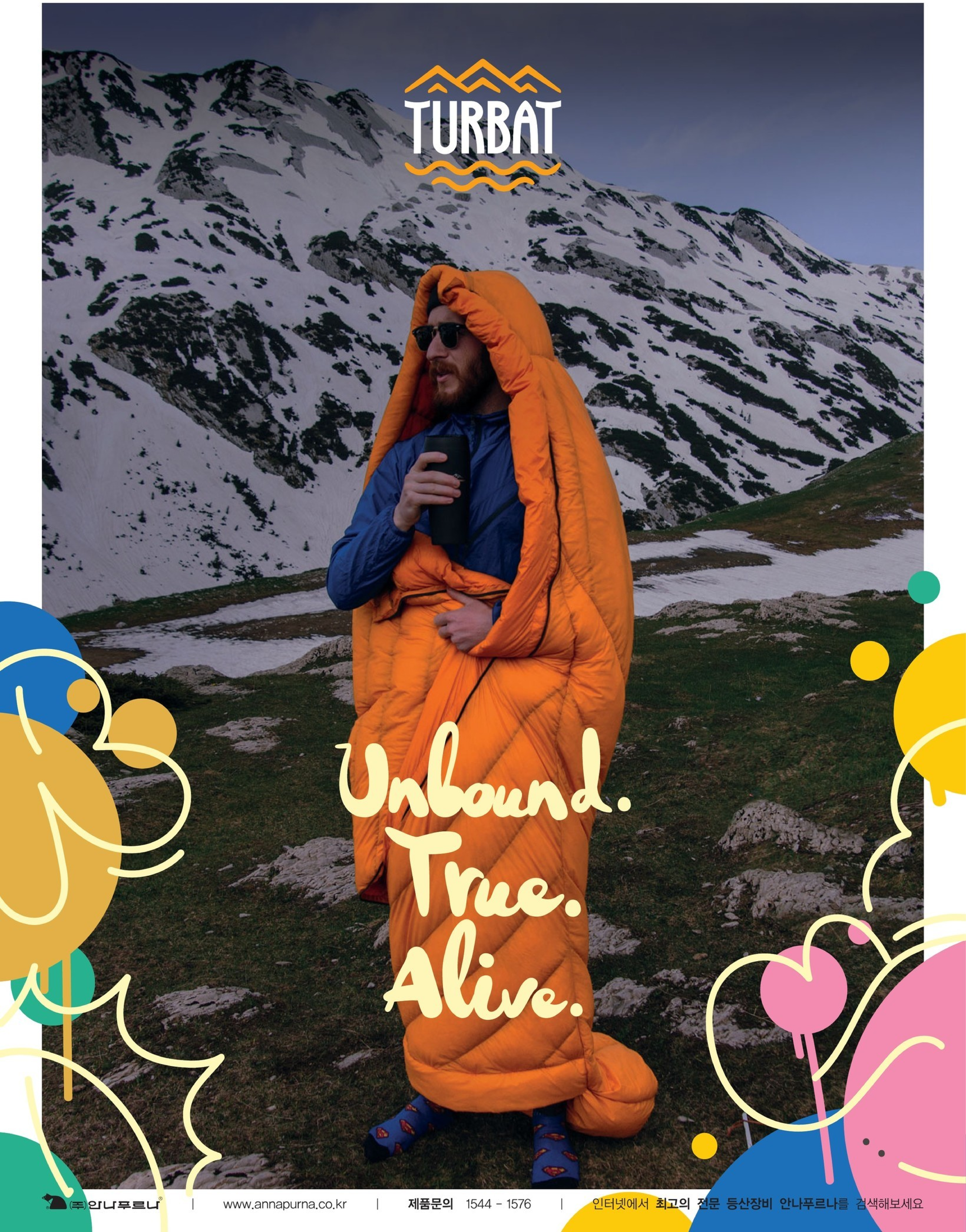
054 **ACTIVITY**
CONNECTING LIGHT, CONNECTING NIGHT
밤이 아름다운 이유

062 **ITEM**
GEAR UP FOR SUMMER
좋은 기능, 좋은 디자인. 기분까지 좋아지는 아웃도어 기어

072 **ITEM**
SHORTS MAKE LONG DELIGHT
긴 여름, 다양한 쇼츠와 함께

082 **ADVER**
어디서나 함께 즐기는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Go!
어디든 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안나푸르나 | www.annapurna.co.kr | 제품문의 1544 - 1576 | 인터넷에서 최고의 전문 등산장비 안나푸르나를 검색해보세요

GO OUT CONTENTS

084 SPECIAL
LIVE LIGHTLY
여름 시즌, 더욱 실용적인 어패럴과 액세서리, 그리고 기어류

114 SPECIAL
LIVE LIGHTLY
<고아웃>이 추천하는 여름철 마성의 음식

120 SPECIAL
LIVE LIGHTLY
잠못 드는 도시의 '시티 워커'를 위한 공간들

124 ADVER
콤팩트한 멀티 버너 '벨락 테이블 버너 & IGT 버너 인서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버너

126 ITEM
여름은 샌들
여름 시즌 가벼운 발걸음을 위한 최신 풋웨어

138 ITEM
SUMMER COLOGNE
아웃도어에 완벽한 티셔츠 모음집

150 BRAND PICK UP
GOYEMON

156 **GO OUT MOTORCYCLE**
HONDA XL750 TRANSALP
일상용 여행 바이크의 부활

158 **GO OUT FISHING**
모든 장비를 빌려 플라이 피싱에 도전하기

160 **LBOT**
요트의 소재를 사용한 초경량 코트

162 **GO OUT CULTURE**
<고아웃>에디터가 추천하는 이달의 음악과 책, 영화

165 OUTDOOR CALENDAR
<고아웃>이 엄선한 7/8월의 아웃도어 소식

166 **BRAND NEWS**
OUT OF OUTDOOR
아웃도어 안팎을 넘나드는 브랜드의 최신 소식

170 GO OUT SUBSCRIPTION

171 GO OUT SNS

172 BRAND INFO

GO OUT KOREA

www.goout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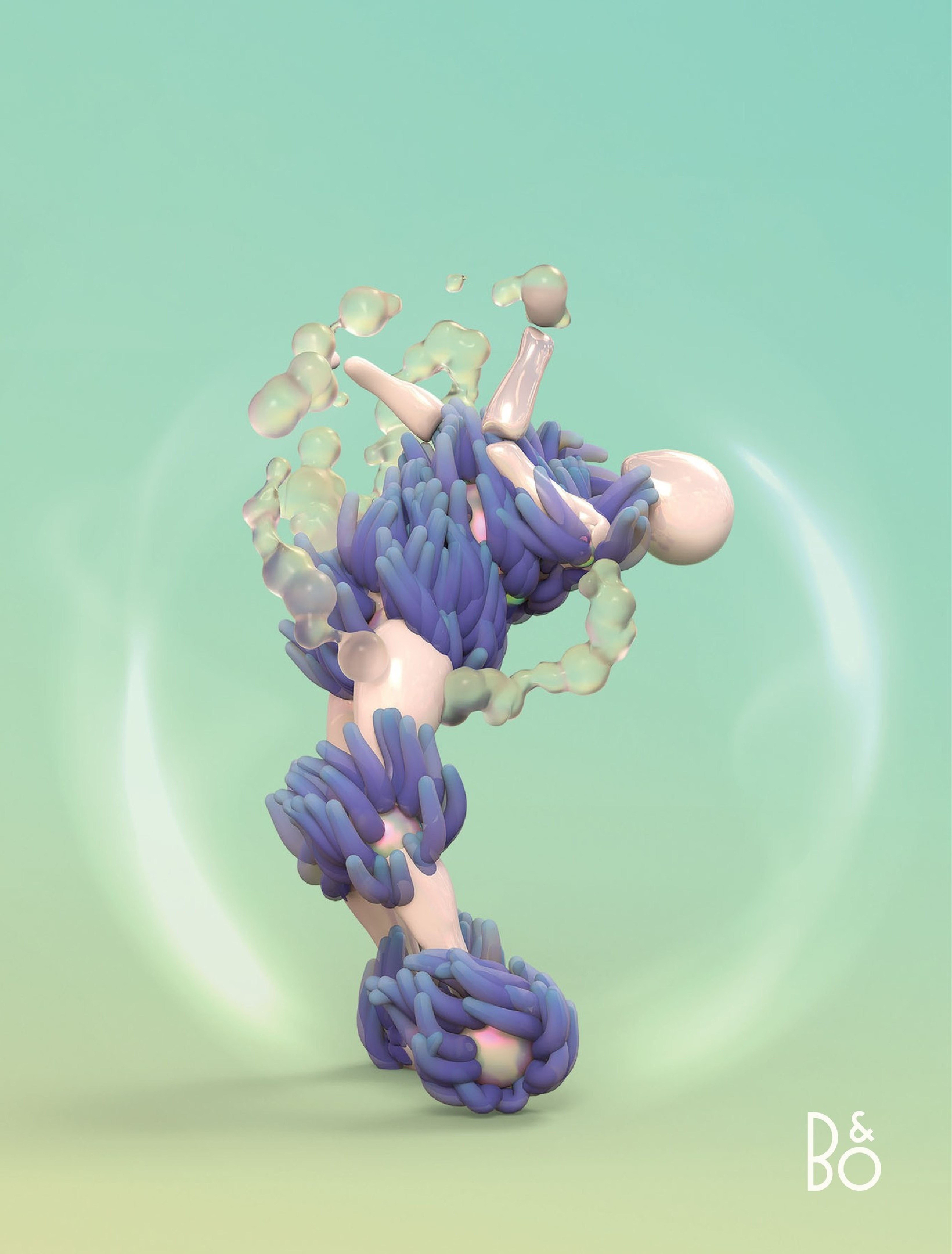
CEO & PUBLISHER		
대표이사 & 발행인	**이세훈** Lee Se Hoon	sehoon@mediabling.co.kr
EDITOR IN CHIEF		
편집장	**김환기** Kim Hwan Ki	evoke@gooutkorea.com
EDITORIAL DEPT.		
Senior Editor	**김해길** Kim Hae Gil	sunroad@gooutkorea.com
Contributing Editor	**유성** Yoo Sung	atsgnuoymik@gmail.com
	김영하 Kim Young Ha	younghakim@mediabling.co.kr
DESIGN DEPT.		
디자이너 Designer	**차세진** Cha Se Jin	
CREATIVE TEAM		
포토그래퍼 Photographer	**이민형** Lee Min Hyung	alsgud@mediabling.co.kr
ADVERTISING DEPT.		
본부장 Director	**조정훈** Cho Jung Hoon	goout1234@gmail.com
GO OUT STORE		
Director	**김영호** Kim Young Ho	05x05x05@gooutkorea.com
Assistant Manager	**박진환** Pack Jin Hwan	very_9oooood@gooutkorea.com
Sales Manager	**박예림** Park Ye Rim	yeal91@gooutkorea.com
Junior Staff	**정상협** Jung Sang Hyeop	hyhyuping@gooutkorea.com
DIGITAL CONTENT TEAM		
Executive	**김영하** Kim Young Ha	younghakim@mediabling.co.kr
DISTRIBUTION		
Director	**신종원** Shin Jong Won	
ACCOUNTER		
과장 Manager	**문미경** Moon Mi Kyung	

아웃도어 스타일 <고아웃> 코리아 2023년 7/8월호 (제11권 제6호, 통권 127호, 매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용산 라 00205 | **등록일** 2011년 11월 8일 | **발행처** ㈜미디어 블링 | **인쇄** 신성토탈시스템(주)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53 3층 (우편번호 04351) | **전화번호** 02-794-4926~7 | **팩스** 02-794-4928 | **홈페이지** www.gooutkorea.com
<고아웃> 코리아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발행처(주식회사 미디어 블링)의 서면 동의 및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아웃 한국판은 일본 고아웃과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발행됩니다.

<GO OUT> JAPAN © SAN-EI CORPOPATION, Tokyo, Japan
ADDRESS 160-8461 7F Shinjuku east side square 6-27-30 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TEL 03-6897-4622(Advertising), 03-6897-4645(Editing), 03-6897-4611(Sales) **HOMEPAGE** sun-a.com
OUTDOOR STYLE <GO OUT>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SAN-EI CORPOPATION, Tokyo, Japan

See yourself in sound

Create your music portrait here


B&O

멈춰있는 듯 고요한 시간, 어디선가 실바람이 불어와 내려앉습니다. 방향과 속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려봅니다. 네모난 상자가 가득한 도시에서 그 단서의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길옆에 자리하고 있는 나무의 흔들림뿐입니다. 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진 않지만, 우리 곁에 늘 자연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사이사이에서 자라고 나는 것들에 시간을 두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계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7월, 이제 시작보다는 끝을 향해 무게가 실리는 시기입니다.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인내해 온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갈수록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아스팔트 균열 틈, 담장에 피어난 이름 모를 식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쓰이지 않아도, 낱낱의 순간을 기억할 이들을 위해 스스로 묻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나긴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을 뉴스로 만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더운 여름날, 이맘때쯤이면 항상 제 곁에는 부채가 들려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어컨 바람보다 조금은 수고스러운 '부채 바람'을 더 선호합니다. 차가운 바람은 당장 시원할 수 있으나, 인공적인 바람이 주는 미묘한 불쾌함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울수록 천천히 또는 살며시 부채를 살랑살랑 부치면 서서히 시원해지는 '자연풍'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나마 숨을 고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뜨거운 몸의 온도가 마음의 온도로 쉽게 바뀌기 때문에 조금은 느리게 행동하고 천천히 식을 수 있도록 두어야 합니다. 더운 여름을 조금은 시원하게 나기 위한 저만의 '여름 테라피' 입니다.

고단하고 심란한 6월을 보내고, 7월의 첫 시작을 자연과 함께했습니다. 밤 산책을 나선 뒤 마주한 밤하늘 풍광입니다. 때론 밤하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보다 구름 한 점이 위로가 되어 줍니다. 힘든 것, 아픈 것, 어지러운 것을 저 구름에 흘려보냅니다.

익숙한 일상의 배경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때론, 깊은 울림이 됩니다.

<고아웃> 코리아
편집장 김환기

GO OUT Choice

GOC01

Item

OSWIN ESSENTIAL 3-SEGMENT PANTS

EDITOR KIM HAE GIL

일상과 아웃도어에서 꼭 필요한 팬츠

아웃도어 활동에 맞는 기능성과 유용성을 기반에 둔 브랜드 '오스윈(OSWIN)'에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인 아이템 'ES 3 팬츠'를 출시했다. 나일론, 코튼, 폴리우레탄(스판) 교직물을 사용하여 땀이 쉽게 발생하는 여름철에 속건성 및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해 움직임의 제약을 줄여준다. 또한 밑위 부분에 거싯 패턴을 적용하여 내구성을 높였다. 내부 체온이 올라갈 경우 체온을 조절 할 수 있는 벤틸레이션 기능의 투웨이 지퍼를 적용하였다. 하이 퍼포먼스를 위한 기능보다는 일상과 아웃도어의 범주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넣은 모델로 언제든 자연이 그리워질 때 함께 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16만9000원

(왼쪽) 밴드와 웨빙 벨트를 적용하여 사이즈 조절이 편리하다. (오른쪽) 무릎 부분은 턱을 넣어 움직임의 제약을 줄여준다.

(왼쪽) 후면에는 3M 반사필름을 이용하여 오스윈 로고를 적용했다. (오른쪽) 벤틸레이션 지퍼에는 3M 테이프를 적용하여 야간 시안성을 높였다.

Item

PACIFIC FURNITURE SERVICE STAFF T-SHIRTS

EDITOR KIM HAE GIL

퍼시픽 퍼니쳐 서비스의 한정판 티셔츠

1988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한 스페이스 디자인 및 가구와 생활 소품을 디자인하는 브랜드, 퍼시픽 퍼니쳐 서비스(PACIFIC FURNITURE SERVICE)는 북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단순하지만, 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 밖의 시계, 철제 캐비닛, 문손잡이 램프 등 그 당시 생산 방식과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매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PACIFIC FURNITURE SERVICE'의 STAFF T-SHIRTS는 'P.F.S' 마니아 사이에서 수집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빈티지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당신을 감각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by 베이거 하드웨어 3만9000원

퍼시픽 퍼니쳐 서비스(PACIFIC FURNITURE SERVICE)의 매장 전경과 내부 모습

GO OUT Choice

GOC03

Item

O ZEA EN BREATHABLE SPAN PANTS

EDITOR KIM HAE GIL

계곡 트레킹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오지엔 브리더블 스판 팬츠

아웃도어의 본질적인 탐구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오지엔(O ZEA EN)에서 여름 계곡 트레킹 시 뜨거운 햇빛과 벌레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인 브리더블 스판 팬츠(Breathable Span Pants)를 출시했다. 소수성(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는 성질)인 제품의 소재는 통기성이 뛰어나 건조가 매우 빠르다. 또한 제품을 물에 적셔 입으면 과열된 체온을 쾌적하게 낮춰준다. 또한 고탄성 허리 밴드와 스트링의 이중 구조로 팬츠가 흘러 내려가지 않으며, 스판이 함유된 소재로 제작하여 움직임에 제약이 적고, 코팅과 래미네이팅이 없는 가벼운 소재로 통기성이 뛰어나다. 물과 햇빛이 함께하며 걷는 계곡 트레킹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다. 12만5000원.

트레킹 시 스냅 버튼을 이용하여 밑단을 고정하면 무릎의 공간을 만들어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왼쪽) 이중 구조 형태의 허리 밴드와 스트링 (오른쪽) 왼쪽 포켓 속 밴드를 이용하면 작은 부피로 패킹을 할 수 있다.

Item

SOUTH2 WEST8 × TACOMAFUJI RECORDS 20th T-SHIRT COLLECTION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SHOUTA KIKUCHI

사우스2 웨스트8 런칭 20주년 기념 협업 티셔츠 출시

2023년 브랜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SOUTH2 WEST8(사우스2 웨스트8)'이 'TACOMAFUJI RECORDS(타코마후지 레코드)'와 협업한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한다. 두 브랜드의 협업은 2019년에 네펜데스와 사우스2 웨스트8이 각 지역의 매장을 순회하는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출시했다. 타코마후지의 유니크한 예술 감각이 녹아있는 사우스2 웨스트8 20주년 기념 티셔츠를 소개한다.

(왼쪽 위) '텐카라(주 : 낚시법의 일종)'의 어원을 타코마후지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만든 아이템. 네온사인을 연상하게 하는 컬러링을 사용하여 기념품 스타일로 만들었다. 나고야의 햄버거 & 아트숍 '카쿠오우잔 래더'의 오너, 니와 히로키가 만들었다. 7040엔 (오른쪽 위) 가상의 유어권을 모티브로 하여, 바코드와 숫자를 활용하여 20주년을 표현했다. 아트 디렉터, 제리 우카이가 만들었다. 7040엔 (왼쪽 아래) 피싱 컬처와 유머가 교차하는, 펑크록 티셔츠의 오마주. 이 모델 또한 제리 우카이가 만들었다. 7040엔 (오른쪽 아래) 삼라만상을 의미하는 슬로건, '예술과학사상자연'을 20주년 스페셜 버전 자수로 넣었다. 7040엔

GO OUT Choice

GOC05

Item

GRIP SWANY WATER GEAR SHORTS / GS TIGER

EDITOR KIM HAE GIL

그립스와니 워터 기어 쇼츠 / GS 타이거

1848년 골드러시로 인해 소와 염소의 가죽으로 버팔로 장갑을 만든 것이 브랜드의 시초로, 어두컴컴한 금광 속에서 장갑을 떨어뜨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갑을 노란색으로 염색한 것이 브랜드의 시그니처가 된 그립스와니(GRIP SWANY). 2008년, 그립스와니에서 캠프웨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모닥불 캠프웨어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그립스와니의 워터 기어 쇼츠는 서플렉스 원단을 사용하여 마치 면처럼 부드러워 일상에서는 물론, 물에 젖어도 빠른 건조로 인해 쾌적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휴대성을 고려하여 포켓을 적소에 배치하여 사용자를 배려했다. 무릎 위 다소 짧은 길이가 특징이다. 9만9000원

밴드와 드로 코드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물 빠짐을 고려한 메시 포켓 바지 밑단에 그립스와니 자수 로고가 인상적이다.

GO OUT Choice

GOC06

Item

MYSTERY RANCH HIGH WATER SERIES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SHOUTA KIKUCHI

혁신적인 TRU 지퍼로 만든 미스터리 랜치의 하이 워터 시리즈

비가 많이 오는 여름과 페스티벌 시즌에는 방수 아이템이 필요하다. 최고의 내구성을 가진 배낭 브랜드, '미스터리 랜치'에서 완전방수사양 하이 워터 시리즈를 출시했다. 하이 워터 시리즈는 세계 최초 슬라이드식 TRU 지퍼 테크놀로지(지퍼 이빨 없음, 저소음, 방진, 방수 기능)로 만든 완전 방수 사양의 제품으로 포레스트와 포티지 두 가지로 출시된다. 강에서나 바다에서나, 폭풍에 휩쓸려도 문제없는 터프한 백이니 방수 아이템 구매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위시리스트에 넣자.

메인 컴퍼트먼트 부분에는 2개의 컴프레션 스트랩이 달려있고, 탈부착 할 수 숄더 스트랩은 좌우로 교체하면 백팩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양옆에는 메시 지퍼 포켓과 데이지 체인이 달려있다. 용량: 50L, 하이워터 더플 50 4만2900엔

'크레타 워크스'에서 인기가 많았던 모델을 완전 방수 사양으로 제작했다. 뒤쪽에는 PC 슬리브를, 앞쪽에는 태블릿용 슬리브를 장착했다. 사이드 컴프레션은 앞부분까지 늘려서 사용할 수 있고, 기어 고정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용량: 23L, 하이워터 플립 4만4000엔

(왼쪽) IP67 기준의 방진·방수성능을 갖춘 모델. 나이트 아이스 사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방수 지퍼를 사용했다. (오른쪽) 840D 발리스틱 나일론에 양면 TPU 코팅 처리를 하여, 내구성을 최대한 강화한 방수 원단을 사용하였다.

(왼쪽) 숄더 스트랩은 버클로 탈부착 할 수 있다. 또한, 좌우의 버클을 직접 연결하면, 드라이 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용량: 10L, 하이워터 숄더백 1만8700엔
(가운데 왼쪽) 메인 컴퍼트먼트 부분에는 파티션과 포켓이 없고, 숄더 스트랩은 탈부착 할 수 있다. 용량: 5L, 하이워터 힙백 2만3100엔
(가운데 오른쪽) 미스터리 랜치의 다양한 백팩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탑 리드.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용물을 정리하기 쉽다. 용량: 8L, 하이워터 리드 2만4200엔
(오른쪽) 몰 시스템에 대응하는 소형 포켓. 바닥 면이 빳빳하다. 용량: 1.5L, 7150엔

GO OUT Choice

GOC07

Item

PARABOOT BABORD / RAID - LIS NOIR

EDITOR KIM HAE GIL

여름에도 클래식한 품격을 갖추고 싶다면

1919년 프랑스 북부 산악 지방에서 설립한 브랜드 '파라부트(PARABOOT)'. 브라질의 'Para'라는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고무 원료를 수입하여 자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밑창에 적용하며 브랜드명도 이를 따라 파라부트가 되었다. 이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사의 공장에서 신발 밑창을 생산하며 예부터 등산화를 만들 때 적용하던 'Norwegien' 제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제품의 형태와 모양 역시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며 전 세계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다. <고아웃>이 클래식한 디자인이지만 여름과 같이 습기와 땀 발생이 잦은 계절에 필요한 신발을 소개한다. 오리지널 로퍼에 계절에 맞는 디자인과 벤틸레이션의 기능을 더한 슈즈로, 가볍고 오랜 기간 신어도 견고함을 느낄 수 있으며, 천연고무창 덕분에 착화감이 편안하다. 여름에도 클래식한 품격을 갖추고 있다면 자신 있게 추천한다. by 바버샵 34만9000원

습기와 통풍을 위한 벤틸레이션 버클을 이용하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GO OUT Choice

GOC08

Item

5PENMONDAY MULTI TABLE 2 - MF TABLE STANDARD

EDITOR KIM HAE GIL

생각하는대로 바뀌는 퍼니처, 오픈 먼데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목하고 단순함을 통해 기존의 가구가 지니고 있었던 단점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공간과 환경에서 변화를 만드는 브랜드 오픈 먼데이(5PENMONDAY)에서 버너 테이블 및 식기 건조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테이블을 출시했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유닛을 사용하여 원하는 높이로 식기 건조 테이블을 구현할 수 있고, 확장을 통해 컵과 그릇 등 섹션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도 있다. 인도어, 아웃도어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멀티 테이블이다. 18만1000원(스틸), 24만6000원(스테인리스)

(왼쪽) 축소, 확장이 가능한 멀티 테이블 중 버너 테이블로 구현한 모습
(오른쪽) 식기 건조 테이블 축소, 확장이 가능한 멀티 테이블 중 식기 건조 테이블로 구현한 모습

GO OUT Choice

GOC09

Item

FREEWHEELERS ULTIMA THULE FUNNY PACK 'HALF DOME'

EDITOR KIM HAE GIL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하프 돔을 연상하게 하는 퍼니팩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워크웨어, 밀리터리 등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의복을 복각하는 프리휠러스(FREEWHEELERS)에서 퍼니팩을 출시했다. 클라이머의 성지인 요세미티의 하프 돔 모양에 영감을 받은 둥근 형태의 파우치 타입으로, 밀리터리 몰 시스템을 적용하여 액세서리 백, 카라비너 등을 확장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포켓으로 인해 크고 작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다. 피부가 닿는 면에는 메시 쿠션을 적용하여 땀 배출에도 용이하다. 또한, 무게와 내구성을 위해 코듀라 나일론을 사용하였고 방수 기능도 탁월하다. 일상과 가벼운 아웃도어 등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한다. 37만8000원

다양한 크기의 포켓이 있어서 카드 등의 작은 것 보관할 수 있고, 메인 포켓은 180도로 확장하여 열 수 있어서 소지품 및 작은 기어 등을 수납할 수 있다.

가방의 뒷면에 적용한 메시 쿠션으로 착용감 편하다.

GO OUT Choice

GOC10

Item

MODERN HOUSE COMPACT FLIP SWATTER

EDITOR KIM HAE 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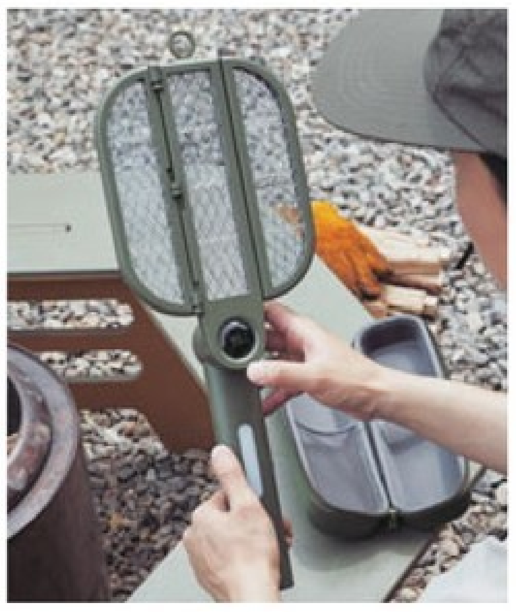
모던하우스 컴팩트 플립 전기모기채

편리함과 실용성을 넘나드는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 모던 하우스(MODERN HOUSE)에서 국내 최초 플립형 전기모기채를 출시했다. 여름철 캠핑이나 피크닉 등 아웃도어 활동 시 만나는 모기와 각종 벌레의 습격에 대비하려면 꼭 필요한 아이템. 하지만 작지 않은 크기와 수납 때문에 불편함이 존재했는데, 이 모델은 이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준다. 플립형의 구조로 접으면 6.5cm의 크기로 콤팩트하고 전용 하드케이스로 보관이 용이하다. 심지어 무게는 320g으로 휴대성 또한 뛰어나다. 핸드 캐리어형으로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5일(일 20회 사용 기준)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모던하우스 콤팩트 플립 전기모기채로 올여름 어디서든 날 괴롭히는 모기와의 전쟁을 가볍게 끝내자. 4만9900원

카키

탄

3번 접으면 길이는 가로 폭은 6.5cm에 불과하다.



2,500v의 순간 전압으로 모기와 해충을 퇴치할 수 있다.

GO OUT Choice

GOC11

Item

GRAMICCI / EKAL DURABLE NYLON LOOSE SHIRT & SHORT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SHOUTA KIKUCHI

기능소재와 포켓이 인상적인 그라미치 셋업

어반 스타일의 웨어를 비롯하여, 캠핑 기어까지 제작하는 'EKAL(에칼)'과 'GRAMICCI(그라미치)'가 협업 제품을 출시했다. 기능소재로 만든 셔츠와 쇼츠 아이템으로 듀러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방수성, 내구성, 경량성이 특징이다. 또한 드라이한 워싱으로 여름에 잘 어울리는 모델이다. 원단에 발수 가공처리를 하여, 일상용부터 물놀이용까지, 전천후로 입을 수 있다.

(위) 넉넉하고 루즈한 사이즈로 오픈 컬러가 눈에 띈다. 가슴 부분에는 메시 포켓과 양옆의 포켓을 적용하여 수납성도 뛰어나다. 듀러블 나일론 루즈 셔츠 1만6500엔
(아래) 무릎보다 다소 짧은 길이로 움직임의 제약이 적다. 오리지널 모델과 마찬가지로 웨이빙 벨트와 가젯 크로치를 적용했다. 듀러블 나일론 쇼츠 1만4300엔

(왼쪽) 셔츠의 뒤쪽에는 커다란 벤틸레이션이 달려있어서 통기성이 뛰어나다. (가운데) 옆부분에도 벤틸레이션 홀이 달려있다. (오른쪽) 피스 포켓은 기능적인 모바일 포켓 사양으로 되어있고, 스마트폰 등을 넣어도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는 포켓과 메시 포켓이 달려있다.

GO OUT Choice

GOC12

Item

MADDEN BEAR PEAK BACKPACK 20L

EDITOR KIM HAE GIL

매든 베어 픽 백팩 20L

1974년 콜로라도주 BOULDER에서 설립하여 캠핑과 하이킹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통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디테일을 연구하는 브랜드 '매든(MADDEN)'에서 일상과 가벼운 하이킹을 위한 멀티 백인 'Bear Peak 백팩 20L'를 출시했다. 고밀도 600 데니아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뛰어난 강도와 발수력을 갖췄고, 대용량 오픈 포켓과 메시 포켓, 사이드포켓 등 수납력 또한 인상적이다. 등부분이 에어 메시 구조로 통기성 또한 고려했다. 사용자의 목적과 환경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멀티 백팩은 이 모델로 종결해도 될 듯하다. 18만9000원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가 인상적이다.

앞부분에 메시를 사용한 포켓으로 가벼운 옷이나 휴대용 아이템을 넣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YKK 방수 지퍼를 사용하여 빗물을 막아준다.

GO OUT Choice

GOC13

Item

KOLON SPORT AEROLITE SHELTER

EDITOR KIM HAE GIL

코오롱스포츠 에어로라이트 쉘터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기술, 고기능성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KOLON SPORT)' 에서 터널형 구조의 경량 쉘터 인 '에어로라이트 쉘터'를 출시했다. 2인 이상의 백패킹 시 사용할 수 있는 쉘터형 텐트로 메인폴을 제외한 나머지 서브폴 부분에는 등산 스틱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구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 또한 탁월하고, 텐트 곳곳에 위치한 벤틸레이션의 길이를 조절하여 쾌적한 실내 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 105만원

에어로라이트 쉘터 내부 공간. 쾌적한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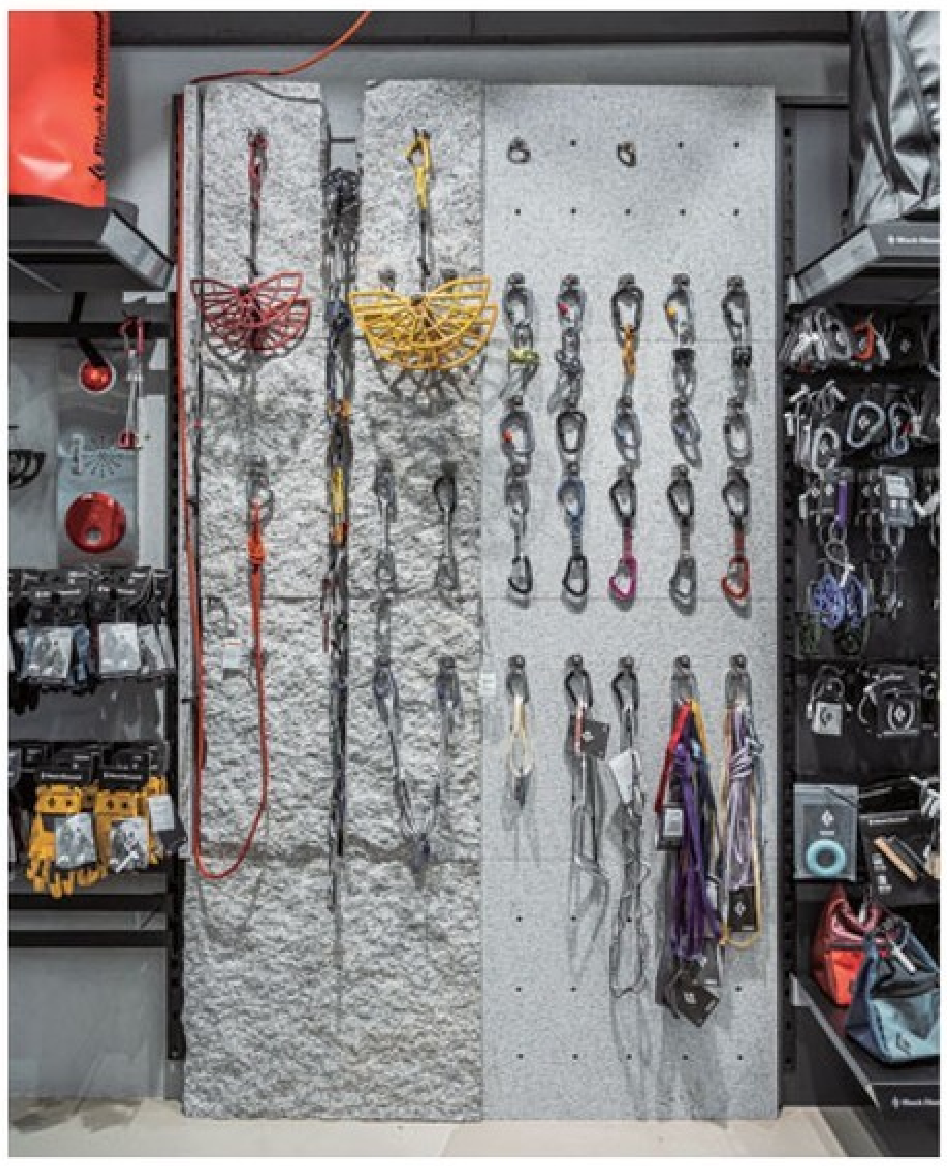
양면 출입구 전면부의 메시 구조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에어로라이트 쉘터 구성품

BLACK DIAMOND BUKHAN SANSUNG CHAPTER

1957년 뛰어난 등산가였던 이본 쉬나드가 요세미티의 클라이머들에게 등반 장비를 판매하며 시작된 브랜드 블랙다이아몬드.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전문 장비를 출시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블랙다이아몬드가 북한산성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EDITOR YOO SUNG **PHOTOGRAPHER** LEE MIN HYUNG



블랙다이아몬드 임직원들의 경험이 담긴 소장품을 VMD로 활용했다.

독특한 인테리어의 매장 1,2층 전경

블랙다이아몬드의 전신 '쉬나드 이큅먼트(Chouinard Equipments. Co.Ltd)'부터 이어져온 역사는 미국 클라이밍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순함과 고기능, 내구성과 실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블랙다이아몬드의 정신은 현재도 지속중이다.

ABOUT BLACK DIAMOND

이본 쉬나드의 유년기는 클라이밍으로 가득차 있었다. 수선공으로 일하며 손재주가 좋았던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본은 당시의 조악했던 클라이밍 장비를 보며 늘 고민하였고, 자신에게 맞는 암벽용 등반 장비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비즈니스 스킬도 뛰어났기에 18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만든 장비를 클라이머들에게 제안했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블랙다이아몬드의 근간은 산악 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다. 암벽과 빙벽은 물론 설산까지 포함한 폭넓은 산악 활동의 경험을 클라이머들과 상호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전 세계 아웃도어 커뮤니티를 위한 최상급의 등반 장비와 의류를 제작하고 있다.

KEY ITEMS

블랙다이아몬드는 업계 최초로 곡선형 아이스액스와 리지드 크램폰을 출시했고, 튜블라형 아이스스크류, 캐머롯, 와이어게이트 카라비너 등 수많은 혁신적인 전문등반장비와 함께 독특한 플릭록 조절방식의 트레킹 폴, 싱글월 텐트, 헤드램프, 배낭 등 일반 등산장비까지 갖추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클라이머들에게 사랑받는 울트라 라이트 캐머롯과 Z4 캐머롯 같은 역사에 길이 남을 혁신적인 등반 장비들은 쉬나드와 프로스트가 제안한 '클린 클라이밍'이라는 새로운 등반 윤리를 근간으로 하였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VISION

블랙다이아몬드는 아웃도어 활동과 장소, 그리고 속한 모든 사람이 활기 넘치고 건강히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아웃도어 커뮤니티의 성숙과 발전, 자연 환경의 보전을 위해 고민하고, 환경 단체와 개인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한다. 자연에서는 대담하며 다이내믹한 활동을 주도한다는 전통을 이어가지만, 장비와 각종 제품을 통해 보여주는 과감한 정신과 노력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BUKHAN SANSUNG FLAGSHIP STORE

블랙다이아몬드 북한산성 스토어는 북한산자락이 한 눈에 보이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1층은 주로 등반용 기어류 위주로 구성되었고 어패럴과 슈즈, 각종 가방 제품군이 디스플레이 되어있다. 계단으로 2층을 올라서면 거대한 사이즈의 캐머롯 장비 모형과 포타렛지가 설치되어 눈길을 끌며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은 각종 어패럴과 액세서리, 피팅룸이 구비되어있다. 북한산성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퍼수트 & 디스턴스 팩 시리즈 구매시 'BD 소프트 플라스크 500ml'를 1개 증정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구매시 'BD 하이드로 플라스크 473ml' 텀블러를 1개 증정한다.

<블랙다이아몬드 북한산성 플래그십 스토어>

Open MON-SUN 09:00AM - 7:00PM

Address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서문길 25 1층-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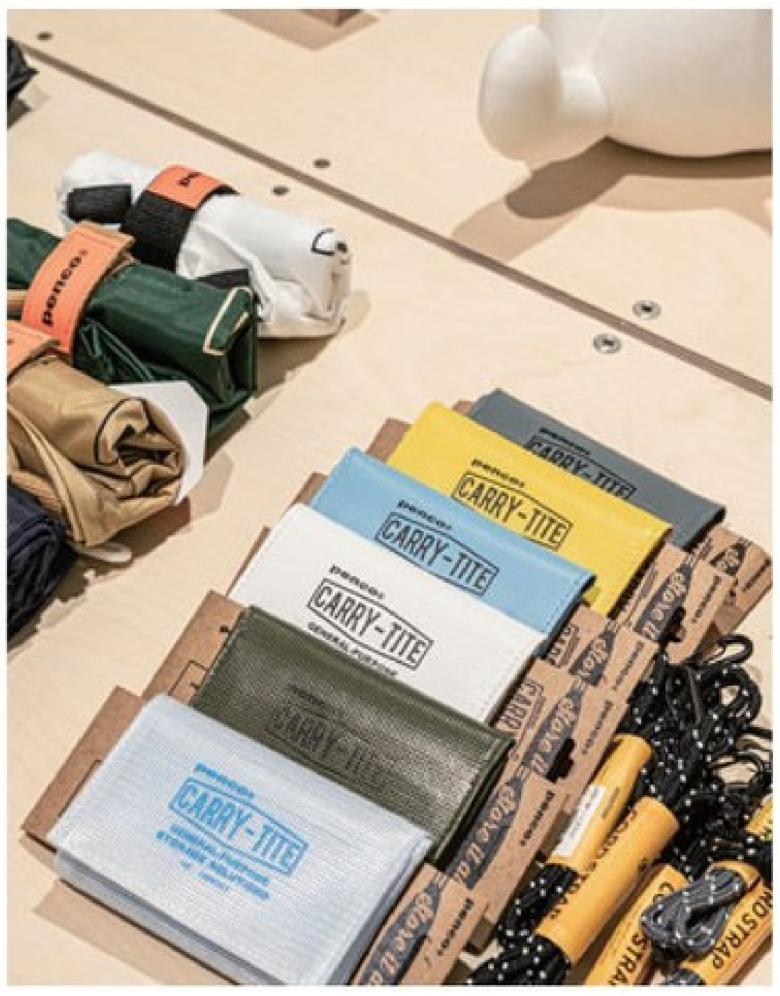
Phone 02-2039-7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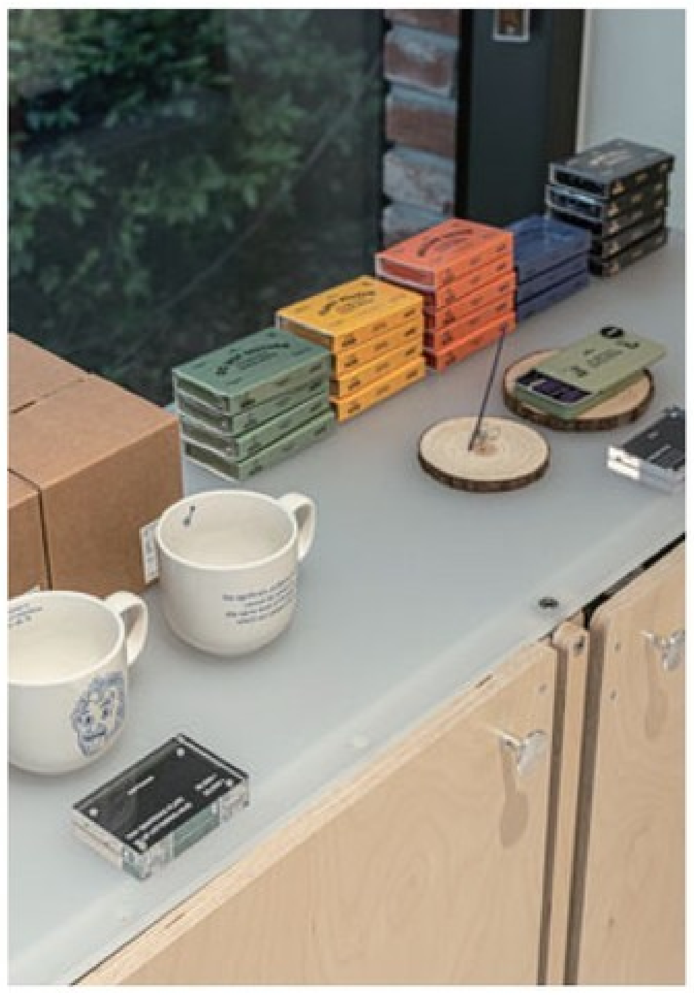
Instagram @blackdiamon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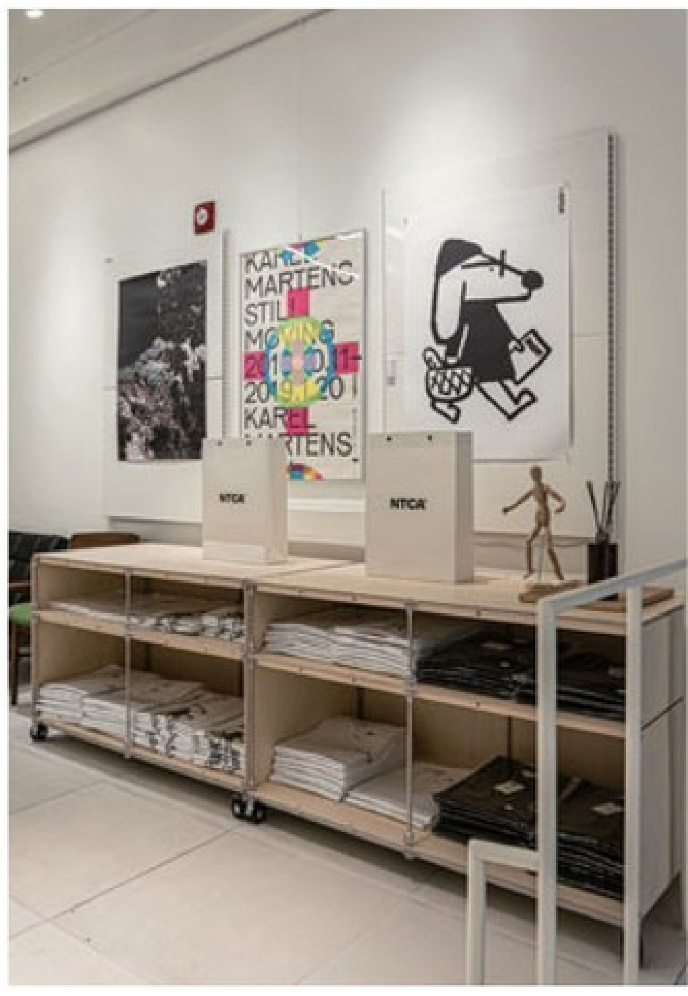
NTCA®

'도시의 삶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브랜드 'NTCA'. 도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제품들과 각종 전시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NTCA는 한적한 논현동 골목길에 그 존재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평범함 속 특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한다..

EDITOR YOO SUNG **PHOTOGRAPHER** LEE MIN HYUNG







<NTCA> 내부 전경

최근 우리는 '도시 탐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흐름에 새롭게 합류한 NTCA의 코-파운더 박기윤 디렉터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NTCA의 탄생 배경이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캠핑을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다. 사실 NTCA는 디자인 기업 '뉴 타입(NEW TYPE)'이 이 보유한 1층 공간에 마련된 셀렉트 숍이며, 새롭게 가져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코로나19 당시 재택 근무가 이어지고 몇 번 방문한 제주의 삶에서 많은 동기부여를 가져왔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활동 중에는 반려견과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모두 NTCA에서는 스토리텔링 하기에 충분한 소재다. '도심 탐험'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문구류와 간단한 티셔츠류, 반려동물 어패럴, 프라그런스 등을 갖춰보았다.

제품군을 구성할 때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두었는지?

나도 그렇지만 함께 기획하는 모든 구성원은 큰 부담이나 걱정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그럼에도 NTCA의 운영 요일과 시간, 구비할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포인트는 이것이다. '휴대하기 좋고 적절한 가격대', 그리고 매장 섹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조화롭게 보여질 수 있어야하는 점. 아무래도 유니크한 셀렉션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적절한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NTCA 매장을 보면 특이한 가구로 선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용이한 '모듈' 타입을 제작했다. 저 상태로 외부 팝업스토어를 나가도 실용적일 것이다.

매장에 있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좋은가?

사실 이 골목은 거주 지역에 가깝고 점심 식사하러 나오는 직장인들이 들르기에 좋은 정도다. 다시 말해 고요하고 차분한 모습이 주로 흐르는 동네인데, 그럼에도 간혹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매장에 들러 구경하는 고객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흥미롭다. 굳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역 커뮤니티에 '볼만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뿌듯한 마음을 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NTCA가 지향하는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요즈음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디지털이 필수겠지만, 나름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귀중하다. 고객들도 오프라인을 통해 얻는 경험들이 있겠지만, 입점 브랜드들도 오프라인 상 보여지는 모습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NTCA는 물론이고, 다채로운 브랜드들과 차근차근 만들어나가고 싶다. 기대해달라.

<NTCA>

Open MON-FRI 11:00AM-4:00PM **Close** SAT-SUN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21, 1층

Phone 010-2909-9368

Instagram @ntca.life

ROMAN IN YOUR SHIRTS

반팔 셔츠 입으면 아저씨 같다고? 그 말이 틀리다는 걸 알려주겠다.

EDITOR YOO SUNG

KARDO

CHINTAN OPEN COLLAR SHIRT

인도 구자라트의 유목민족 라바리(Rabari) 기법을 적용해 만든 수제 셔츠. 물레를 이용해 손수 직물을 짜는 방식인 카디(Khadi)로 100% 면 직물을 뽑아냈다. 트레디셔널 셔츠에 열광하는 이에게 추천한다. by 바버샵 89만9000원

YMC

MALICK SHIRT

시어서커 소재를 사용한 90%의 면과 레이온, 모달을 각각 8%, 2% 섞어 만든 셔츠. 심플한 디자인에 화려한 프린트로 포인트를 주었다. 여름 시즌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다. **by플랫폼 18만600원**

DEUS EX MACHINA

WAY OFF SHIRT

데우스의 글로벌 앰버서더 자레드 멜(Jared Mell)과 협업한 캡슐 컬렉션 제품. 릴랙스드 핏의 반팔 셔츠로 화려한 프린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편안하면서도 '힙하게' 연출하고 싶은 날 도전해보자. 10만8000원

WRANGLER

RELAX MOSAIC RESORT SHIRTS

자연을 닮은 프린트가 매력적인 리조트 반팔 셔츠. 얇고 시원한 터치감의 소재를 사용해 여름 시즌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릴랙스 핏으로 편안하고 활동성 있게 착용할 수 있다. 9만9000원

BRUMAN

COTTON SHORT SLEEVE SHIRT

고밀도 코튼 원단 사용하여 제작한 셔츠. 60수 포플린 원단, 레귤러 칼라, 전면부 1개의 패치 포켓이 완성한 실용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여름 시즌 활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다. 7만9000원

DANTON

MEN'S SHIRT COVERALL

베이식한 디자인이 매력인 단톤의 커버올 셔츠. 솔리드 컬러로 깔끔한 룩 연출이 용이하며 전면부의 포켓 3개로 실용성까지 더했다. by 플랫폼 34만8000원

NAUTICA

UTILITY SHIRTS 512 KHAKI

빈티지 무드를 재해석한 워크웨어 타입의 셔츠. 40수로 재직한 고밀도 코튼 원단을 사용했고, 바이오 워싱 가공을 통해 물 빠짐을 방지하였다. 모든 봉제선을 이중처리하여 탄탄한 기능성을 강조했다. 7만9000원

CAYL

EQ HYBRID SHORT SLEEVE SHIRTS

스트레치 성이 좋은 퍼텍스와 통기성이 좋은 플로우 원단 조합으로 만든 셔츠. 적절한 멋을 내기 좋은 일상부터 활동성을 요하는 아웃도어 모두에 충족되는 제품이다. 사이즈는 S부터 L까지 출시한다. 12만5000원

VANS
OTW ART COLLECTION RECORD SHIRTS

반스의 아티스트 협업 일환으로 진행한 아티스트 옥근남(OKEH)과 협업한 셔츠. 화려한 프린트의 제품으로 셋업과 슈즈까지 함께 출시하였다. 6만5000원

CARHARTT WIP
S/S LUMEN SHIRT

가벼운 코튼 원단을 활용해 부드러운 착용감과 여유로운 실루엣을 제공하는 셔츠. 화려한 그래픽의 프린트가 돋보인다. 오픈된 카라 형태의 캠프 칼라와 단추 디테일이 매력적이다. 17만5000원

PATAGONIA
M'S PATALOHA SHIRT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한 스토리를 프린트에 반영한 하와이언 스타일 셔츠. 100% 유기농 순면 도비 원단이며 단추는 코코넛 소재로 제작하였다. 19만9000원

OBEY
FROGMAN WOVEN SHIRT

흡습성이 뛰어난 코튼 소재를 활용해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하는 레귤러 핏의 셔츠. 시원한 화이트 컬러와 위트있는 프로그맨 그래픽의 조화로 시선을 한몸에 사로잡기 좋은 제품이다. 10만8000원

OUTSTANDING
HAWAIIAN OPEN COLLAR HALF SHIRTS

여름 무드의 빈티지 그래픽으로 완성한 하와이안 셔츠. 30수 레이온 원단을 사용해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한다. 코코넛 버튼을 부착해 포인트를 더하였다. 7만8000원

ESPIONAGE
COWBOY OPEN COLLAR SHIRTS LIGHT VIOLET

여름철 시원하게 입기 좋은 오픈 카라 셔츠. 통기성이 뛰어나고 청량감 있는 친환경 텐셀 원단에 웨스턴 무드의 아트워크를 프린트하였다. 9만7000원

FALLETT
DRAWING GARDEN SHORT SLEEVE SHIRTS

웨어러블한 루즈 핏의 반팔 셔츠. 부드러운 리넨과 레이온을 혼방한 소재로 제작해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연출된다. 속단추를 사용하면 오픈 카라와 일반 카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8만9000원

SUN SURF
RAYON HAWAIIAN SHIRT

1940년대 하와이에 주둔했던 미군 볼링셔츠를 복각해 제작한 셔츠. 필라멘트 레이온 스타일의 방식으로 방직한 원단으로 가볍고 피부에 닿는 면이 적어 여름 시즌 활용도가 높다. by 네스트스토어 22만9000원

GRAMICCI
NYLON CAMP SHIRT YOSEMITE GREEN

특수 발수 가공을 거친 나일론을 사용한 나일론 캠프 셔츠. 일상과 아웃도어 모두에 적합한 디자인의 제품이다. 내구성이 좋은 쉘 소재를 적용하여 발수성과 방풍 기능까지 뛰어나다. 15만9000원

UNIFORM BRIDGE
MESH POCKET S/S SHIRT

유니폼브릿지의 새로운 라인 AE(Albert Explorer.) 셔츠. 코튼과 나일론 혼방으로 제작한 소재로 인해 한 여름에도 착용을 할 수 있다. 아웃도어 무드를 더한 입체 메시 포켓 디테일이 멋스럽다. 11만9000원

NEITHERS
RELAXED S/S SHIRT

코튼 60수 고밀도 원단을 사용한 릴랙스드 셔츠. 가먼트 워싱까지 추가해 제품의 축률을 최소화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외관을 구현하였다. 친환경 천연 너트 단추 디테일이 포인트. 12만8000원

FRIZM WORKS
PAPER COTTON TRUCKER HALF SHIRT

60수 평직 코튼 원단으로 제작한 셔츠. 페이퍼 코팅 처리를 하여 바스락거리는 촉감과 함께 냉감이 느껴져 부드럽고 가볍다. 트러커 재킷의 아이코닉한 디테일을 차용해 디자인적 재미를 주었다. 9만8000원

LEE
CRINKLE UTILITY SHORT SHIRT

내추럴한 무드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크링클 소재로 제작한 셔츠. 입체 포켓과 포켓 플립, 다양한 액세서리 견착이 가능한 고리 디테일까지 실용적인 감각을 더했다. 7만5000원

SIERRA DESIGNS
OXFORD POCKET SHORT SHIRTS

밀도 높게 편직한 옥스퍼드 면 소재로 내구성이 강한 셔츠. 포켓에 다트를 넣어 부피감있게 적용하고 넓은 폭의 소매통을 구현해 편안한 핏을 제공한다. 12만9000원

ZEROGRAM
TREKKING SHIRKET SS

수납공간과 벤틸레이션 기능이 특화된 셔츠. 아웃도어와 일상 활동 모두에서 편안하고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은 트레킹 셔켓이다. 컬러는 라이트 베이지와 라이트 카키. 16만9000원

HIDEOUT
CAMP OVERFIT SHIRT JACKET

활동성을 고려한 오버핏으로 제작되어 아웃도어와 일상에서 멋스럽게 착용하기 좋은 캠프 셔켓. 다양한 유틸리티 포켓으로 일상에서는 작은 소지품을, 아웃도어에서는 작은 기어류를 보관할 수 있다. 10만9000원

FUN & FUNCTION!

아웃도어에 완벽한 쇼츠 모음집

CHILL VIBES

디자인과 기능, 쇼츠의 시즌

디자인도 기능도 양보할 수 없다. 아웃도어에 특화된 쾌적한 반바지

여름에는 가볍고 심플한 아이템이 필수. 하지만 개성은 포기할 수 없다. <고아웃>이 당신을 위해 디자인과 기능이 완벽한 쇼츠를 모았다. 편안한 실루엣은 기본, 액티브한 움직임에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까지.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반바지를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PHOTO** SHOUTA KIKUCHI **STYLING** TOMOYUKI SASAKI **TEXT** SACHIO KANAI

FRUIT OF THE LOOM
PACK COLER SHORTS
언더웨어의 브랜드가 만드는, 매력적인 폴리에스터 소재의 모델. 허리의 고무 밴드와 와이드한 실루엣을 조합하여,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패키지는 동일하다. 각 6490엔

COLUMBIA
DESCHUTES VALLEY™ REVERSIBLE SHORT
과거의 피싱 재킷의 메시 포켓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만든 디자인. 강렬한 컬러의 리버서블 사양의 모델이다. 8800엔

FRESHSERVICE
TECH WEATHER SHORTS
표면에 닿은 물을 튕겨내는 소재인 폴리에스터로 만들었다. 워터 액티비티는 물론이고, 악천후에도 진가를 발휘한다. 부착 할 수 있는 3D 포켓까지 있다. 1만9800엔

THE NORTH FACE PURPLE LABEL
POLYESTER LINEN FIELD SHORTS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리넨의 혼방 섬유를 사용한 오리지널 원단을 사용한 모델. 안감의 메시에도 재생 소재를 사용했다. 1990년대의 리버 쇼츠를 기본으로 힙과 다리 부분이 여유롭게 업그레이드했다. 1만9800엔

F/CE.
FAST-DRY LAYERED SHORTS

컷 앤 소 쇼츠에 메시를 레이어드하여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했다. 특수구조의 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흡수 속건성과 자외선 차단, 보풀 방지 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1만9800엔

WHITE MOUNTAINEERING
CARGO SHORT PANTS

고무와 웨이빙 벨트를 넣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모델. 고급스러운 광택의 기능 소재를 사용하고, 포켓의 디테일과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한 모델이다. 4만9500엔

IS-NESS × BAMBOO SHOOTS
SEERSUCKER CARGO SHORTS

뱀부 슈트의 모델을 이즈네스와 협업한 모델. 얇고 잘 달라붙지 않는 기능 소재 솔로텍스의 시어서커 원단을 사용하고,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만들었다. 더욱 경쾌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1만8700엔

CMF OUTDOOR GARMENT
KILTIC SHORTS

지난 시즌까지 사용했던 에이프런 스커트를 제거하고, 포켓 디자인을 팬츠에 넣은 모델. 발수성과 속건성을 겸비한 폴리에스터로 날씨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고 편안한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 2만2000엔

PATAGONIA
M'S OUTDOOR EVERYDAY SHORTS – 7IN

65%의 리사이클 나일론이 함유된 나일론에 폴리우레탄을 5% 조합하여, 속건성이 우수하고 잘 달라붙지 않는 소재로 만든 모델. 표면은 내구성 발수가공 처리를 했다. 1만1550엔

FOXFIRE
CORDURA RS SHORTS
코듀라 립스톱 소재로 압도적인 강도와 내마모성을 갖췄다. 신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에도 불편함이 덜하다. 앞뒤로 4개의 대형 포켓이 있어, 수납력이 뛰어나다. 8580엔

KARRIMOR
RIG SHORTS
클라이밍용 초크백에서 힌트를 얻은 모델에 백포켓을 더했다. 총 7개의 다양한 포켓이 달려있고, 한층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다. 2WAY 신축성 나일론 소재로 되어있어서 활동 시 제약이 덜하다. 1만2650엔

DESCENTE ALLTERRAIN 81
6 POCKET SHORTS
대용량 포켓이 특징. 허리부터 프런트까지 이어지는 지퍼는 디자인뿐만 아닌, 부드럽게 열린다. 내구성과 발수성이 뛰어난 스태너 나일론 소재로 궂은 날씨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1만4300엔

GRIP SWANY
WATER GEAR SHORTS
가볍고 잘 마르며, 신축성이 우수한 서플렉스 나일론을 사용한 모델. 면과 비슷한 촉감이라 서핑이나 해수욕에도 잘 어울리고, 일상용으로도 입을 수 있다. 스마트폰용 포켓이 있다. 7920엔

BUDO
MINIMUM MESH SHORTS +ADD
특수한 나일론 섬유를 사용하고, 높은 자외선 차단율과 신축성에 더해, 잘 비치지 않는다. 트레일 러닝부터 로드런, 일상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봉제를 줄여 무게가 비교적 가볍다. 1만5400엔

ABU GARCIA
BIG POCKET CARGO SHORTS
찢김에 강한 폴리에스터 소재로 낚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액티비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양옆에는 어저스터가 달린 빅 포켓이 있어서, 수납력도 뛰어나다. 2만2000엔

THE NORTH FACE
NUPTSE SHORT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델. 100% 리사이클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무드와 우수한 발수성을 갖췄다.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8800엔

OUTDOOR RESEARCH
ZENDO MULTI SHORTS
블루 사인 인증을 받은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로 만든 모델. 스판덱스 혼방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나고, 스마트한 실루엣으로 등산 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9350엔

MOUNTAIN HARDWEAR
STRYDER™ SWIM SHORT
발수성과 속건성이 우수하고, 뒤 포켓은 메시 소재를 사용한 모델. 100%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에 불소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내구성 발수가공 처리를 하였고, 지속 가능한 부분이 특징이다. 7150엔

GOLDWIN
NYLON BICOLOR SHORTS 7
다양한 액티비티에서 다리를 움직이기 편하도록 밑위를 짧게 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만들었다. 가볍고 주름이 잘 눈에 띄지 않는 리사이클 소재인 그린 머터리얼을 사용했다. 우측의 포켓 안에는 키루프가 달려있다. 1만2100엔

C.P. COMPANY
ECO-CHROME R SHORT LOGO SWIM SHORTS
고무와 드로 스트링을 사용하여 사이즈를 조절하는 스윔 쇼츠. 나일론 다이 염색으로 일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폐기 그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만든 에코 닐®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3만5200엔

F-LAGSTUF-F
2TONE CARGO SHORTS
루즈 실루엣을 코튼 폴리에스터의 소재와 부드러운 두 가지 색으로 절묘하게 매치했다. 메인 카고 포켓은 수납력이 뛰어나고, 벨크로식 플랩으로 소품 보관이 쉽고, 사용이 편리하다. 2만2000엔

ALDIES

ZEBRA EASY SHORT PANTS

존재감 있는 얼룩말 패턴이 눈에 띌 수 있게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고, 양옆과 엉덩이 부분에 포켓을 추가했다. 폭넓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얇은 폴리에스터 소재 특유의 시원한 느낌이 특징. 1만4960엔

GRAMICCI × B:MING by BEAMS

레오파드 숏 팬츠

강렬한 레오파드 패턴으로 임팩트를 주는 모델. 그라미치의 클라이밍 특징을 넣고, 휴대하기 편한 팩커블 사양으로 만들었다. 1만1000엔

COTOPAXI

BRINCO SHORT

리사이클 나일론에 스판덱스를 4% 혼방하여, 볼더링이나 클라이밍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모델. 다소 레트로한 패턴이라 일상용 코디에 악센트를 줄 수 있다. 1만1550엔

GOHEMP

GOOD DAY SHORTS

청량감이 가득한 코튼 헴프에 오리지널 보태니컬 패턴을 넣었다. 촉감이 좋고 흡습 속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착용감이 편하다. 허리 주변은 넉넉하게 되어있고, 길이 무릎 위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루즈하게 보이지 않는다. 1만6280엔

CHUMS

CHUMLOHA SHORTS

첨스의 시그니처 쇼츠에서 변형된 이지 쇼츠. 탄력 있는 100% 면 소재로 만든 셔츠 원단이지만, 안감이 달려있어서 잘 비치지 않는다. 무릎 위까지 오는 다소 루즈한 실루엣이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1만780엔

ELDORESO

TEMPO BUGGT SHORTS

스포츠웨어용 소재를 잘 활용하는 브랜드에 별주하여 만든 모델. 오리지널 텍스타일 소재를 사용했다. 얇고 가볍고, 흡습 속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러닝을 할 수 있다. 젤과 스마트폰 등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달려있다. 1만6500엔

ENGINERRED GARMENTS
BB SHORT
예쁜 해바라기가 강렬한 존재감을 주는 니트 소재의 모델. 다소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되어있다. 스트링 사양의 웨스트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지만, 센터 심 덕분에 형태를 유지해 준다. 4만2900엔

ADIDAS TERREX × AND WANDER
AWD SHORTS
90% 리사이클 나일론과 10% 폴리우레탄을 조합하여 친환경적으로 만든 모델. 가볍고 신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고, 다수의 포켓으로 수납성까지 뛰어나다. 1만6500엔

CAL O LINE
BANDANA 2 TUCK SHORTS(8inc)
사파리 컬러의 오리지널 패턴 프린트 원단을 사용하여, 엘레강스한 느낌을 주는 쇼츠. 탄력이 좋은 코튼 소재로 튼튼하고 부드러우며,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징을 즐길 수 있다. 1만8480엔

SOUTH2 WEST8
ARMY STRING SHORT
볼륨감 있는 와이드 실루엣과 이지 웨스트를 얇은 플란넬 원단으로 만들었다. 펀치가 들어간 패턴으로 계절감을 연출하고, 실내부터 외부까지 폭넓게 입을 수 있다. 1만4300엔

CARHARTT WIP
SINGLE KNEE SHORT
칼하트를 대표하는 하의. 12온스의 오가닉 캔버스가 사용된 싱글 니 팬츠를 쇼츠로 만들었다. 리사이즈를 하지 않고, 오리지널에 실루엣과 디테일을 그대로 적용했다. 1만3200엔

DESCENDANT
SHORE GINGHAM SHORTS
산뜻한 깅엄 패턴의 코튼 비치 쇼츠. 셔링 가공 처리한 허리에는 스핀돌을 사용하여, 재봉된 이름이 들어간 체인 루프가 달려있다. 좌측 옷단의 향로를 모티브로 한 자수가 매력적이다. 2만6400엔

NANAMICA
EASY SHORTS

여유로운 사이즈의 밑위와 다리 사이의 폭이 눈길을 끈다. 청량감이 있는 면 폴리에스터에 하와이와 남양 군도에 피는 레드 진저 스케치로, 휴양지의 무드를 느낄 수 있다. 3만7400엔

NEEDLES
STRING COWBOY SHORT

여유로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스트링 웨스트와 카우보이 셔츠의 디테일에 체크와 파피용 패턴을 조합한 오리지널 패브릭을 사용했다. 부드러운 촉감에 고급스러운 드레이프가 특징. 2만3100엔

AND WANDER
DRY CHECK SHORT PANTS

고기능 청량 소재인 쿨맥스를 면에 더한 모델. 표면에 미세한 주름 효과로 인해 잘 달라붙지 않는다. 흡수 속건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2만7500엔

NONNATIVE
HIKER EASY SHORTS

슬랙스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신축성이 뛰어나고 촉감과 통기성이 우수한 폴리 웨더 소재를 사용한 모델. 안감은 올 메시 소재로 되어있어서 잘 달라붙지 않아, 뛰어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3만1680엔

SNOW PEAK
PRINTED BREATHABLE QUICK DRY SHORTS

환경친화적인 소재에 특수 가공 처리를 하여 통기성을 높였다. 주름 가공 처리가 되어있고, 파나마 소재 스타일의 분위기와 우수한 흡수 속건성을 표현했다. 식물의 생태계를 이미지화한 그래픽도 여름과 잘 어울린다. 1만7600엔

GRAMICCI
SHELL PACKABLE SHORT

G 쇼츠를 기본으로 팩커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고밀도 소프트 액티브 셸을 사용하고, 포켓은 물빠짐 사양으로 되어있다. 아웃도어뿐만이 아닌 수영장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8800엔

MOUNTAIN RESEARCH
BAGGY SHORTS
가볍고 잘 달라붙지 않는 매끈한 느낌의 면 폴리에스터 소재에 물 빠짐이 좋은 메시를 사용한 팬츠. 앞부분에 4종류의 애니멀, 백의 미니 플랩 포켓에 새끼와 어미가 세트로 된 자수가 들어가 있다. 2만4200엔

ALEXANDERLEECHANG
NYANCAMO TRACK JAM
가볍고 속건성이 우수하며, 주름이 잘 지지 않는 서플렉스 나일론 소재에 고양이 그래픽을 카모 패턴이 인상적인 모델. 악취방지항균 가공 처리가 특징이다. 1만3200엔

ROKX × BAMBOO SHOOTS
BIG POCKET CLIMBING SHORTS
록스의 창시자인 마이크 그래햄이 개발하고,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클라이밍 팬츠의 디테일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업그레이드했다. 프런트 포켓은 동전이 빠지지 않도록 패턴 워크가 사용되었다. 1만6500엔

L.L.BEAN JAPAN EDITION
MEN'S BEAN'S PULL-ON SHORTS
1990년대의 엘엘빈 스윔 팬츠를 일본의 디자인 팀이 리메이크했다.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바꾸고 발수가공 처리한 립스톱 나일론을 사용했다. 9240엔

NIKE × FREAK'S STORE
EXCLUSIVE SWIM SHORTS
무릎 위 길이의 모델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리사이클 나일론으로 제작했다. 메시 안감으로 촉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으로 해변과 수영장 및 산책용으로 추천한다. 7997엔

BATTENWEAR
CAMP SHORTS
가벼운 발수 나일론 소재에 많은 포켓을 넣었다. 허리 부분엔 웨이빙 벨트와 플라스틱 버클이 달려있다. 아웃도어 코디에 잘 어울리는 발색력이 특징이다. 2만8600엔

TAPWATER × WRANGLER

WRANGLER DENIM SHORTS

데님 브랜드 랭글러와 공동 제작한 모델. 1980~90년대에 만들어진 46인치 데님 카고 쇼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과도하게 큰 웨스트를 조절하여 실루엣을 살리고, 웨스트를 조여서 입는 스타일을 제안한다. 3만5200엔

COMMON EDUCATION

BAJA MEN DENIM SHORT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카이하라 데님을 사용하여, 독특한 분위기와 워싱이 매력적인 모델. 탈부착이 가능한 웨스트의 드로 코드와 각 부분에 배치된 보강 등, 워크 웨어에서 유래된 기능성을 자연스럽게 녹였다. 1만2980엔

NATAL DESIGN × A LOVE MOVEMENT

UPCYCLE ROB SHORTS 4

네이탈 디자인의 로브 쇼츠의 업사이클 버전. 남는 원단과 해체한 샘플, 데드스톡을 재료를 사용하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모델. 각 요소마다 장식된 와펜은 구매력을 자극한다. 9만3500엔

ALK PHENIX

ZAK SHORTS II

경량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신개발 발수 소재 칼스레치 투를 사용했다. 양옆의 잭 포켓이 특징이고, 수납력이 높아서 손에 짐을 들지 않고 작업이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4만6200엔

BURLAP OUTFITTER

TRACK SHORT PIGMENT DYE

높은 속건성과 자외선 차단율을 가진 서플렉스 나일론 소재에 안료 염색 처리를 하여, 입다 보면 점점 물이 빠지기 때문에 에이징을 즐길 수 있다. 허리는 드로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편리하다. 9900엔

REMI RELIEF

CORDUROY EASY SHORTS

라이트 온스의 와일드웨일 서머 코듀로이에 절묘한 워시드 가공 처리를 한 모델. 적당한 팩커링과 질감 등, 리얼한 빈티지한 무드가 매력적이다. 짧은 길이 또한 특징. 1만8480엔

FUN & FUNCTION!

OUR SUMMER? HAPPY SUMMER!

우리의 여름은 즐겁다. 여름 페스티벌 스타일.

여름철 다양한 페스티벌과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한 여름 야외에서 즐기는 페스티벌인 만큼 다양한 아이템도 눈여겨 볼만 볼거리다. <고아웃>이 페스티벌을 기다리는 자칭 '파티 마니아'를 만나 그들의 '잇 아이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았다.

EDITOR KIM HAE GIL **PHOTO** YOSHISUGU YUMAN, FUMIHIKO IKEMOTO, TAIZO SHUKURI
REPORT & TEXT MASATSUGU KUWABARA

나가오 진야
PEOPLE SHOWROOM PR 스태프

아웃도어 브랜드를 메인으로 한 쇼룸 PR 담당. 개인적으로 부시크래프트를 즐기는 캠퍼이다. "2022년부터 볼더링과 트레일 러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여름에는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여름에 잘 팔리는 파타로하에 티셔츠를 조합한 캐주얼한 페스티벌 코디. 팬츠는 기능적인 모델을 선택했다. "티셔츠는 '비어 더 월드'의 레코드 아이템으로 빈티지 숍에서 구매했다." 앵글러즈 셸 팬츠 01 1만9800엔 시마노, 셔츠 파타고니아, MTV 티셔츠 빈티지, 슈즈 살로몬, 선글라스 레스카, 사코슈 메로, 백팩 언더 더 선

여름의 에너지가 넘치는 파타로하로 연출한 아웃도어 비치룩

아이치 출신의 나가오. 고향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 "숲, 길, 시장"의 단골이다. 물론 올해에도 참가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바닷가의 유원지와 해변이라서, 일반적인 페스티벌과는 다른 개방감이 있다. 또한 신선한 식자재가 갖춰진 마르셰도 즐거움의 하나다. 그래서 아웃도어와 해변에 잘 어울릴 법한 코디를 했다. 나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 같은 페스티벌이라 다른 야외 이벤트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텐트에서 잘 수도 있지만, 집에서 멀지 않아 밤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짐도 최소한으로 가지고 다니게 된다. 캠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 소재 아이템과 경량 기어를 주로 챙기는 편이다."

RECOMMEND ITEMS

TOKYO CRAFTS
지카테이블

A4사이즈의 크기로 500g도 나가지 않는 경량 테이블. "페스티벌 식사는 해변에 앉아서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의 테이블이 유용하다." 6980엔

SHIMANO
테크 후디

발수성과 경량성에 특화된, 얇은 라이트 아우터. 페스티벌 "숲, 길, 시장"은 해안가라서, 초여름에도 저녁이 되면 쌀쌀해진다. 그럴 때, 가볍게 걸치기 좋은 모델이다." 1만5400엔

BUG PROTECTOR
BPE 패브릭 스프레이 프로유스X5

기존의 제품과 비교하여, 방충 성분이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지만, 천연 소재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모기에게 물린 곳에도 잘 아물기 때문에 캠핑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2200엔

카와베 케이이치로
TOMORROWLAND 바이어

투머로우 랜드의 멘즈 바이어. 드레스부터 캐주얼까지 TPO에 맞춰 코디를 즐기고 있다. 취미는 미술관 관람과 페스티벌로, 인도어 & 아웃도어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다. "올여름에는 풋살을 하고 싶다."

밀리터리 베스트에 맞춘 고어텍스 팬츠. 런던 경찰의 지급품이다. "오버팬츠라서, 안에 쇼츠를 입고 있다." 버킷 햇 1만3200엔 키지마타카유키×투머로우 랜드, 레인 부츠 1만9800엔 스페르가 펠 투머로우 랜드, 밀리터리 베스트 랑데부 오 글로브,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 엄브로, 고어텍스 팬츠 빈티지

풋볼 저지가 페스티벌의 메인 유니폼

인기 있는 상품부터, 희소가치가 있는 물건까지, 다양한 빈티지 랜턴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숍, 비브란트. 이 숍을 설립한 이시카도는 특히 랜턴에 관한 안목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제품을 사랑하고, 자신의 캠핑 스타일에 유감없이 애정을 쏟고 있다. 이시카도의 고집은 도구를 오래 써도 계속 정비하며 쓰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기어에서 최신 아이템은 적다고 한다. 평소 정성 들여 관리한 이시카도의 보물 같은 라인업을 소개한다.

RECOMMEND ITEMS

SUPERGA PER TOMORROWLAN
레인부츠
이탈리아의 슈즈 브랜드와 투머로우랜드의 협업 아이템. 착용한 부츠의 컬러가 다르다. "방수성이 우수하고, 신고 벗기가 간편한 사이드 고어 사양이라 편리하다." 1만9800엔

BAGINPROGRESS
숄더백
클래식한 디자인에 1990년대 스타일의 컬러링을 매치한다. "후지록 페스티벌은, 이 정도 사이즈의 백이 딱 적당하다. 웨스트 파우치처럼 허리에 맬 수도 있다." 1만4300엔

FRATELLI LUIGI × TOMORROWLAND
스카프
촉감이 좋은 실크 소재의 스카프. "낮에는 자외선 차단으로 밤에는 방한용으로 사용한다. 손수건이나 반다나처럼 목에 맸을 때의 실루엣이 아름답다." 각 3만8500엔

사이토 아츠시
PR 플래너

PR 회사에 근무하는 한편, 아웃도어 이벤트 운영에 관한 플래너로도 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캠핑이나 트레킹 등의 아웃도어를 만끽하고 있다. “올해에는 팬런에 참가할 예정이다.”

기능성은 적당히 유지하며 고른 도시형 페스티벌 코디. “젖어도 괜찮은 샌들이나 팬츠, 티셔츠에 걸쳐도 흘러내리지 않는 선글라스 등, 자연스럽게 소재와 기믹에 집중했다.” 티셔츠 엔즈 앤드 민즈, 나일론 팬츠 에이톤, 샌들 트리오브×메이덴즈 숍, 선글라스 오클리, 토트백 독일 기념품 굿즈, 손수건 오우가 유 어스홀

어반스타일의 페스티벌 룩

올여름 오랜만에 섬머 소닉에 참가할 예정인 사이토는 어반 페스티벌 스타일을 즐겨 입는다.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것이 섬머 소닉의 매력이다. 그렇지만 야외라서 쾌적함을 필수. 아웃도어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기능 소재 아이템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고 있다. 16살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후로 15번 이상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현장의 즐기는 법 또한 잘 알고 있다. 스타디움의 라이브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쿠하리 해변에 있는 비치 스테이지의 느긋한 분위기를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체어도 준비했다. 올해는 4년 만에 가기 때문에 페스티벌뿐만이 아닌 여름 바다를 만끽할 예정이다.”

RECOMMEND ITEMS

LAWN CHAIR
비치 체어

PFS에서 취급하는 미국제 클래식 비치 체어. “거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릴랙스 기어다. 다소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가벼워서 운반하기 편하고, 젖어도 괜찮다.”

HAGLÖFS
롱 아노락

판초 감각으로 대충 입을 수 있는 방수 롱 아노락. 프런트 포켓에 수납할 수 있는 팩커블 사양의 모델. “일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반 그레이 컬러가 마음에 든다.”

좋아하는 손수건

손수건 수집이 취미이기 때문에, 40장 이상 가지고 있다. “땀을 흡수해도 무거워지지 않고, 바로 마르기 때문에, 타월보다 기능적이다. 평소에는 포켓에 넣고 다니지만, 페스티벌에는 목에 둘러서 사용할 때가 많다.”

이치야나기 사토루
S-YOU-N 대표

다양한 브랜드와 기업의 기획에 관여하고, 아웃도어와 스트리트를 연결하는 “심부름센터.” 여름에는 트레일 러닝과 캠핑, 겨울에는 스노보드와, 1년 내내 산행을 즐기고 있다. “올여름에는 천체 관측을 즐겨보고 싶다.”

밴드 티셔츠를 포함한 일상 빈티지 코디에 포켓을 배치한 재킷과 방수 트레일 러닝 슈즈로 페스티벌 요소를 더했다. “캡과 재킷과 팬츠는 발수 소재로 되어있다. 캡은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다. 느긋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며 알릴 예정이다.”
트레킹 재킷 마운틴 리서치×뱀부 슈트, 티셔츠, 트레킹 팬츠 모두 빈티지, 슈즈 살로몬, 캡 세이브쇼크

FFKT 참가 코디의 포인트는 대용량 포켓 아우터

페스티벌 경력 25년, 매년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는 이치야나기. 요즘 마음에 든 것이 FFKT로, 매년 빼놓지 않고 다니고 있다. “기본은 텐트 숙박이지만 그렇게까지 가혹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러프하게 즐길 수 있고, 이벤트의 규모도 딱 적당하다. 페스티벌 공간에서는 짐 없이 다니기 때문에, 수납이 뛰어난 재킷을 백 대용으로 사용한다. 이 재킷은 커다란 프런트 포켓 안에, 다양한 사이즈의 이너 포켓이 있어서, 필요한 기어를 모두 스마트하게 수납할 수 있다. 게다가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무거워도 피곤함이 덜하다. 아마 페스티벌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능적이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취했을 때 어디에 뭘 넣었는지 헷갈린다는 점이다.”

RECOMMEND ITEMS

RWCHE × SLOW SQUAD INTERNATIONAL
날진 보틀
스트리트 브랜드인 로치와 바이시클 메신저 브랜드인 슬로우 스쿼드의 협업 모델. “페스티벌용의 눈에 띄는 컬러링과 프린트가 매력이다. 주로 술을 넣어 다닌다.”

SIX MOON DESIGNS
데이브레이커
트레일 러닝 사양의 모델이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백팩. “5년 정도 전에 본 아이템이고, 그때부터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구매했다. 여행용으로도 좋다.”

ELECOM
카라비너가 달린 모바일 배터리
카라비너가 일체화된 방수 사양의 모바일 배터리. “아웃도어 기어의 연장선에 있는 듯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겉보기처럼 야외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스탠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마루고시 목재
에디터, 작가

여행 가이드북과 패션지의 편집부를 거쳐,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시레토코 반도의 라우스 쵸 태생이기 때문에, 유소년기부터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겨왔다. "올여름에는 오랜만에 해외로 나간다. 스페인과 한국에서 배불리 먹어 보고 싶다."

어스 컬러 원톤에 오렌지를 악센트로 준 내추럴 코디. "젊을 때 페스티벌 스타일은 타이다이 패턴을 주로 입었지만, 요즘에는 심플하게 입는다." 올 웨더 티 넥 후디니, 타이다이 티셔츠 빈티지, 샌들 수이코크×니들즈, 와치캡 노 브랜드, 안경 자크마리마지, 백팩, 보틀 모두 하이퍼 라이트 마운틴기어

여행 감각의 백패커 스타일 장비를 갖춘 페스티벌 룩

장르와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는 기무라. 올해에는 "쵸"와 "라이징 선록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지만, 페스티벌 스타일은, 항상 심플하면서 기능적인 코디가 기본이다. "쾌적성과 경량성을 추구하며, 가능한 만큼 일상복에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것은 어떤 이벤트여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1년 내내 그런 느낌으로 입고 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다. 개최지 부근 지역의 경치나 음식, 공예품을 구경하면서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저기 들러서 가는 편이다. 나에게는 페스티벌도 여행 감각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월드 뮤직 축제 "워매드"에 가보는 것이 바람이다."

RECOMMEND ITEMS

BROOKLYN WORKS
워터 저그

보디와 튼튼한 핸들이 인상적인, 2.5l 사이즈의 진공 저그. "보냉효과가 높기 때문에, 페스티벌에서는 얼음만 넣어서, 하이볼용 얼음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PATAGONIA
인페르노 재킷

안감이 보어로 되어있는 파타고니아의 1990년대 모델. "올해 1월에 플리마켓에서 구했습니다. 발수성도 기대할 수 있고, 야외 페스티벌 시 밤에 간단하게 입기 좋은 보온력을 갖추고 있다."

스파 알프스
페이스 타월

사우나에서 인기가 많은, 도야마에 있는 캡슐 호텔의 타월. "냉탕이 남알프스의 천연수로 되어있다는 최고 명점의 아이템. 이 타월은 거즈 소재로 되어있어서 촉감이 좋고, 속건성이 우수하다."

오오시카 료
ALDIES SHIBUYA 스태프

오리지널 브랜드인 알디즈와 엘도렛소를 취급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스태프. 휴일에는 볼더링과 러닝을 즐기고 있다. "올해에는 풀 마라톤 레이스에 힘을 실어볼 예정이다. 목표 타임은 3시간 반!!"

패턴이 들어간 세트 아이템에 패턴 티셔츠를 조합한 페스티벌 코디. "셔츠와 팬츠는 빅 실루엣으로 되어있다. 저는 키가 171cm이지만, 이건 상하의 모두 M사이즈이다." 라운드 닷 셔츠 1만7380엔, 라운드 닷 포크 셔츠 1만8480엔, 인디아맨 빅 티셔츠 9570엔 모두 알디즈, 메코넨 햇 8580엔 엘도렛소, 슈즈 아식스

패턴 × 패턴의 셋업의 절묘한 밸런스

페스티벌은 도시형보다는 야외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오오시카. 후지록부터 아사기리 잼까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기능적인 아웃도어 웨어도 좋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겹치기 때문에, 알디즈의 패턴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것이 패턴 x 패턴의 셋업 코디이다. 빅 셔츠와 쇼츠의 조합이 요즘 트렌드이다. 여유로운 사이즈 또한 포인트. 슈즈는 일상용으로도 신을 수 있는, 아식스의 런닝 슈즈를 골랐다. 페스티벌에서는 공간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신고 다니며 익숙한 신발이 기본이다. 가벼운 복장이라 공연장 이곳저곳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다."

RECOMMEND ITEMS

ALDIES
마운틴 햇
통기성이 우수한 스트로 햇. 실루엣뿐만이 아닌, 사이즈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너무 크지 않고, 심플한 디자인이라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1만450엔

ALDIES
빅팩
3WAY로 사용 가능한 60L 사이즈의 백팩. "갈아입을 옷도 전부 들어가고, 프런트에 탈부착식 데이팩이 있어서, 페스티벌에는 그것만 가지고 다닌다." 3만2780엔

ELDORESO
로고 타월
브랜드 로고를 커다랗게 넣은 스포티한 모델. "이마바리 타월이라서, 촉감이 우수하다. 보통 핸드타월보다, 한 치수 커다란 사이즈다." 3960엔

후카미 다이키
VENDOR 스태프

논네이티브와 호보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셀렉트숍, 벤더의 스태브. 클럽 DJ로서 활약하며, 월 1회 주기로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다. "올여름에는 서핑에 도전해 보고 싶다."

레인웨어×쇼츠의 페스티벌 코디에 원톤으로 깔끔한 인상을 준다. "레인보우 디스코에서는, 이 아우터만 입는다." 다운 보어 에코 재킷 2만5300엔 러브×레인보우 디스코 클럽, 워커 이지 쇼츠 2만6180엔 그라미치×논네이티브, 샌들 1만4080엔 리그×논네이티브, 다이니마 숄더백 1만9800엔 앤드원더×커버 코드

레인웨어×쇼츠로 궂은 날씨에 대비한 페스티벌 룩

하우스와 디스코 뮤직을 좋아한다는 후카미가 매년 기대하고 있는 페스티벌이 바로 '레인보우 디스코 클럽'이다. 올해에도 골든 위크에 참여했다. "평소에는 실내에서 들을 일이 많은 클럽 음악을 개방적인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묘미다. 춤추기 편한 스타일이 기본이지만, 날씨에 대한 대비를 갖추고 간다. 트레킹도 다니지만, 별로 화려한 아웃도어 웨어를 입을 때가 없어서, 페스티벌 스타일도 심플한 스타일로 다닌다.
레인보우 디스코 공간은 산속 깊은 곳은 아니고, 고산 지대도 아니기 때문에, 야외라도 가벼운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쇼츠와 샌들로, 여름을 즐기고 왔다."

RECOMMEND ITEMS

NONNATIVE
듀에라 선글라스 01 바이 카네코 오브 티칼
웰링턴을 베이스로 한 커다란 실루엣으로, 자외선을 확실하게 차단해준다. "존재감이 있는 사이즈이지만, 의외로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한다." 3만2780엔

PACKTOWL
류크 스타일 핸드
흡수 속건성이 우수한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지만, 면 같은 촉감을 실현시켰다. "등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핸드타월. 원톤의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3850엔

MIIR
텀블러 12oz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립감이 좋은 사이즈의 354ml 텀블러. "보랭 효과가 높고, 뚜껑이 달려있어서, 걸으면서도 마실 수 있다. 다양한 색상을 갖춰놓으면 편리하다." 각 3850엔

오카자키 류타
4K PR 어시스턴트

PR 오피스, 시크의 스태프. 아웃도어 브랜드를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스케이트보드부터 비스트 바이크까지, 스트리트의 액티비티를 즐기고 있다. "올여름에는 피스트로 롱 라이딩에 도전할 예정이다."

자전거에 타는 것을 염두에 두지만, 너무 과하게 스포티하지 않은 코디가 특징이다." 컷앤소 5만5000엔, 바라클라바 1만2000엔 모두 헤드니즘, 티셔츠 4950엔 마모트, 스웨트 팬츠 6490엔 고트, 필드 부츠 1만9800엔 팀버랜드, 선글라스 오클리, 메신저백 크랭크

사이클리스트 페스티벌에 함께하는 피스트 바이크

현재, 피스트 바이크에 푹 빠져있는 오카자키가 참여하고 싶은 페스티벌은 낮에 바이크 레이스가 개최되는 액티브한 레이브 파티 '슬로우 버닝맨'이다. 물론 본인도 바이크를 가지고 갈 예정이다. "낮 레이스는, MTB부터 BMX, 그리고 피스트까지 폭넓은 장르가 있고, 다양한 사이클리스트가 모인다. 아트쇼와 파티도 있어서, 음악 이외에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가득하다. 레인 웨어와 여유롭게 신을 수 있는 샌들도 준비하고 있다. 페스티벌 공간이 산속이라 텐트에서 자야 하므로, 캠핑 기어도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지금 갖추고 있다. 우선 솔로 텐트부터 갖추고, 언젠가는 그래블로 바이크 패킹에 도전하고 싶다."

RECOMMEND ITEMS

AIGLE
코레이
브랜드의 아이콘 모델인, 러버 부츠를 베이스로 한 사보 샌들이다. "빠르게 신고 벗을 수 있고, 방수성이 있어서 텐트 슈즈에 최적화 되어있다." 7150엔

MARMOT
패리어 재킷, 패리어 팬츠
하이 레벨의 방수 투습성을 발휘하는 재킷과 팬츠의 세트 아이템. "상하의 모두 넉넉한 실루엣이라서 움직이기 편하다." 재킷 20만6400엔, 팬츠 1만8480엔

CANNONDALE
어덜트 헬멧
초경량에 통기성이 우수한 바이시클 헬멧. "이젠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이 필수가 되었지만, 그건 필드에서도 마찬가지다." 6600엔

CONNECTING LIGHT, CONNECTING NIGHT

우리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

뜨거운 햇살이 도시를 삼킨다. 몸과 마음도 점점 지쳐 갈 때쯤 빌딩 사이로 지는 해를 바라본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왜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해가 지고 나면 도심의 열기도 곧 사라지겠지?" 오늘은 낮과 밤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하러 간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마주하는 산. 언제든 발걸음을 옮기면 반겨주는 산이 있어 좋다. <고아웃 크루>와 함께 한 야간산행. 익숙한 길도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오른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마음에 묵어있던 잡념이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다. 우리의 밤이 행복한 이유.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알게 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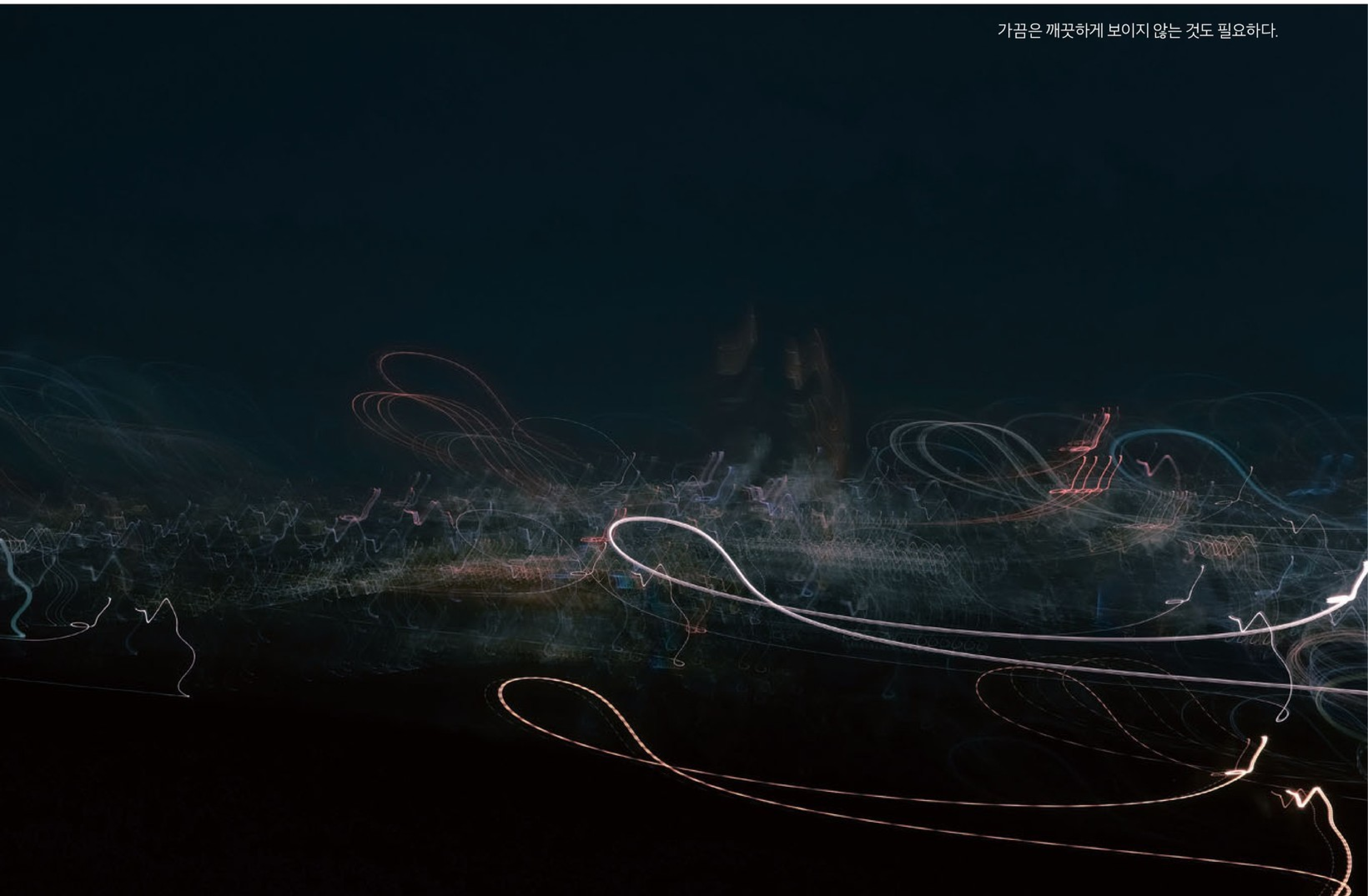
EDITOR KIM HAE GIL HEE **PHOTOGRAPHER** GO OUT EDITORIAL DEPTM

야간 산행의 묘미는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몸을 스치는 나뭇잎도, 내딛는 발소리도 또렷이 들린다.
무엇보다 어둠이 깔린 공간의 낯섦은 몸을 더욱더 긴장하게 만든다.

자연은 익숙한 장면도 그 날의 날씨와 온도,
그리고 빛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뭔가에 홀린 듯 한참을 바라봤다.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 잠시 숨을 고르며 휴식을 취했다.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도심의 모습. 고요함과 분주함이 뒤섞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야간 산행이 주는 매력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가끔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어둠에서 빛 하나만으로 의지해야 하는 야간 산행은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해야 한다.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되도록 혼자서 산행은 피하고 항상 두 명이 대화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

익숙한 길이라도 지도 앱을 켜고 한 번 더 꼼꼼히 살핀다.
안전은 지나쳐도 절대 모자라지 않는다.

FUN & FUNCTION!

아웃도어에 완벽한 기어 모음집

GEAR UP FOR SUMMER

좋은 기능, 좋은 디자인, 기분까지 좋아지는 아웃도어 기어

여름철 아웃도어를 즐기기 위해선 더위와 비의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디자인과 기능이 꼭 필요한 계절. <고아웃>이 당신의 편안하고 편리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아낌없이 추천한다. 과거의 모델부터 새롭게 출시한 아이템까지, 꼼꼼하게 고른 기어 모음집을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PHOTO** SHOUTA KIKUCHI **STYLIST** TOMOYUKI SASAKI **TEXT** MASAHIRO KOSAKA

DAY OUT
SUZUMU HANDY FAN & CRAPE CASE SET

여름의 필수품인 휴대용 선풍기와 전용 케이스 세트. 가벼운 것도 장점이지만, 강중약 3단계로 풍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기능적이다. 크레이프형 케이스에는 스트랩 이외에도 카라비너가 달려있어서, 백에 걸어 놓을 수 있다. 2750엔

RAB
SILPONCHO

타프, 비비, 침낭 커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판초. 원단은 발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백팩을 맨 상태로 걸치고, 뒤의 옷단 코드를 허리에 두르면 펄럭거림이 줄어들고, 강풍 속에서도 걷기 편하다. 1만3200엔

ZEROGRAM
EL CHALTEN ZEROBONE 1.5P

플라이와 이너, 풋 프린트를 연결하여,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일체형 구조로 만들어진 경량 텐트. 능선 위에서나 악천후 속에서도 손쉽게 설치와 철수를 할 수 있다. 결로가 거의 생기지 않는 통기성 소재를 각 부분에 넣었다. 8만300엔

GRAMICCI × SALOMON
TECHSONIC FOR GRAMICCI RUBBER

통기성이 좋은 메시 패널을 사용하여 샌들 같은 느낌의 어퍼와, 부드러운 미드솔이 들어간 워터 슈즈. 뒤꿈치를 꺾어서 뮬처럼 신을 수도 있기 때문에, 텐트 출입 시 편리하다. 3만1900엔

OAKLEY
ACTUATOR

땀과 비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스템 엔드와 노즈 패드가 특징인 경량 스포츠 선글라스. 색채와 대비를 강조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프리즘 렌즈를 넣었다. 각 2만5960엔

DESCENDANT
MAHI MAHI 5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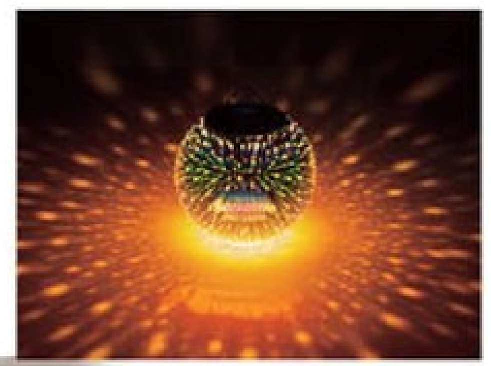
나일론 소재를 그레이 톤으로 넣은 5 패널 캡. 머리 주변의 안감과 챙의 안쪽에는 파일 소재가 사용되었고, 땀을 흘렸을 때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준다. 챙은 긴 편이고, 탈부착식 선셰이드가 달려있다. 1만1000엔

CARHARTT WIP
FIELD BOTTLE

캔버스 재질의 캐리어 백과 보틀의 세트. 백의 플랩은 스냅 버튼으로 여닫을 수 있고, 조절 가능한 숄더 스트랩이 달려있다. 보틀의 캡은 돌려서 잠그는 타입으로, 식기 세척기와 건조기 사용을 할 수 있다. 1만9800엔

NOMADIX
TIE DYE MULTI

FESTIVAL BLANKET
네 모퉁이를 앵커로 고정할 수 있는 코너 루프가 달려있고,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랭킷. 원단 표면에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가 사용되었고, 모래나 애완동물의 털이 잘 달라붙지 않는 사양으로 되어있다. 1만450엔



SOMABITO
ZEROGLOBE 3D

골제로의 라이트 마이크로 랜턴에 장착할 수 있는 글로브형 장식. 특수 삼중 도장 처리를 하여 불꽃놀이 같은 3D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야간 텐트나 침낭 속에서 점등하면 아름다운 빛 덕분에 힐링할 수 있다. 1만1000엔

HELINOX × ZARA
CHAIR ONE by HELINOX

튼튼한 좌면과 알루미늄 프레임을 조합하여, 심플한 구조지만 쾌적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는 캠핑 체어. 자라와 협업을 하여, 마블 패턴에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수납 주머니도 같은 패턴으로 되어있다. 1만9990엔

SOUTH2 WEST8
BUSH TREK JACKET
HEAVYWEIGHT MESH

오리지널 프린트가 들어간 메시 포켓. 통기성이 우수하고 물 빠짐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포켓과 로드 홀더 등의 기능적인 피싱 디테일을 넣었다. 5만600엔

POLER
THE MAGIC TARPIT

강도와 방수성이 우수한 타이벡과 보온 성능을 갖춘 알루미늄을 조합한 그라운드시트. 한쪽에 달린 후드를 뒤집어쓰고 걸쳐 입으면 위급 시 보온 시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특이한 제품이다. 싸늘한 밤공기에도 걱정이 없다. 1만1000엔

OUTDOOR PRODUCT
DAYPACK COLOSSAL 71.3L

데이팩을 변형하여 최대 사이즈인 71.3l로 만들었다. 압도적인 사이즈로 코듀라 나일론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1만5400엔

THERM-A-REST
LITE™ SEAT

다양한 아웃도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트.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자충에어 모델로, 가볍고 콤팩트하기 때문에, 미니멀한 패킹에도 잘 어울린다. 본체 상부에는 돌돌 말아서 수납이 가능한 번지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각 6490엔

L.L.BEAN
SOFT PACK COOLER
FAMILY, PICNIC

정리 정돈에 잘 어울리는 쿨러의 새로운 디자인 모델. 뚜껑을 열어놓을 수 있는 설계로 내용물을 꺼내기 쉽다. 안쪽에는 보랭제를 넣는데 편리한 메시 포켓도 달려있다. 1만3200엔, 피크닉 9790엔

BUG PROTECTOR
FABRIC SPRAY

방충, 탈취 효과를 갖추고 있어서 여름의 걱정거리를 날려버리는 올인원 스프레이. 유칼리 기름이 함유된 방풍 성분만 추출하여, 특유의 향을 줄였다. 농약, 살충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사용해도 안심이다. 각 1650엔

COTOPAXI
KAPAI 1.5L HIP PACK

고품질의 자투리 재료로 만든 힙백. 온라인에서 사면, 어떤 컬러의 조합을 받을지 모른다. 필요 최소한의 수납 등, 심플한 구조로 사용하기 좋다. 각 4950엔

DESCENTE ALLTERRAIN 81
GORE-TEX JACKET MS, GORE-TEX PANTS

사이클리스트에 맞춘 기능을 넣은 방수 셋업. 재킷은, 후드에 내장된 스탠드 컬러와 백 포켓, 메신저 백에 잘 어울리는 프런트 플랩이 있다. 재킷 5만600엔, 팬츠 2만6400엔

ALEXANDERLEECHANG × HALF TRACK PRODUCTS
ALC + U BIG

하프트랙의 '+U'를 제작했다. 겉감은 MA-1 스타일로, 안감에는 ALC의 고양이 패턴 프린트를 넣은 서플렉스 나일론을 사용하는 등, 위트가 넘치는 모델이다. 커다란 사이즈에 다수의 포켓이 달려있어서, 수납력도 뛰어나다. 1만3200엔

JUGEM × SIERRA DESIGNS
SACOCHE

투습 방수성이 우수한 이벤트 중에서도 특히 가벼운 3 레이어 패브릭을 사용한, 시에라 디자인과의 협업 사코슈. 프런트에는 기능성 메시를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기준에서 편리한 포켓을 부분마다 배치했다. 1만3000엔

POST GENERAL
THE ICE ERA COLD ICE BRICK, THE ICE ERA STICK PACK 3

영상 10도를 약 5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보랭제. 우측의 벽돌형은 캔과 페트병에 밀착되는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있다. 부속품인 실리콘 밴드로 고정하여 보랭 효과를 높였다. 아이스 브릭 2420엔, 아이스 스틱 1980엔

CARHARTT WIP
MARSET FOR CARHARTT WIP CHISPA LAMP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테이블 랜턴. 부속품인 액세서리로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3단계의 조광 기능을 갖추고 있고, 지속 시간은 최대 출력으로 7시간, 에너지 절약 모드에서는 28시간까지 가능하다. 4만4000엔

CHUMS
WATER GUN

탱크 용량은 1.6L, 최대 비거리 약 10m의 강력한 물총이다. 서바이벌 게임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열을 차단 해주는 ABS 재질로 되어있어서, 손잡이와 안에 든 물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750엔

KARRIMOR
VERSATILE A/C HOODIE, VERSATILE A/C PANTS

방수성, 통기성이 우수한 아노락 & 팬츠. 아노락의 허리 포켓은, 백팩을 맸을 때의 힙 벨트의 간섭을 생각하여, 꺼내기 쉬운 위치에 달려있다. 아노락 3만9600엔, 팬츠 2만5300엔

CANYON COOLERS
SCOUT 22 QUART COOLER

아웃도어부터 의료시설까지, 사용자의 목적을 충족해 주는 프로 사양의 하드 쿨러. 튼튼한 알루미늄 재질의 힌지와 선박에 사용하는 걸쇠를 적용했다. 안쪽 뚜껑에 고밀폐 에어 실링을 달아 냉기를 유지해 준다. 2만9800엔

ARC'TERYX
GRANVILLE SHOULDER BAG, GRANVILLE CROSSBODY BAG

방수 지퍼와 심 테이프를 겸비하여, 비에서 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미니멀한 백 2종. 립스톱 원단으로 내구성도 우수하다. 숄더백 1만7600엔, 보디백 1만3200엔

L.L.BEAN
BACKPACK BEACH CHAIR

부속품인 배면 스트랩을 사용하여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접이식 체어. 접으면 4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타입으로, 체형이나 용도에 맞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1만3200엔

ROTOTO
FOOT BAND "TIE DYE"

"맨발로 신는 것보다 쾌적하게"를 테마로 한 풋밴드. 새로운 발상의 패션 기어이다. 샌들에 맞춰 발바닥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고, 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보호해 준다. 타이다이 패턴 이외에, 형광 단일 컬러도 출시된다. 각 1760엔

RAB
MYTHIC ULTRA 180
세계 최초 열반발성 침낭. 내부의 섬유는 티타늄 코팅 처리가 되어있고, 사람의 방사열을 백 안으로 효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적은 다운 양으로도 충분한 온기를 얻을 수 있다. 초소형으로 압축 수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7만5900엔

HALO-COMMODITY
STRAIN HAT
야자나무 잎을 가공하여 만든 천연 섬유 라피아와 종이로 짠 햇. 팝 한 컬러를 두꺼운 리본으로 마무리했다. 사이즈 조정 어저스터와 턱끈이 달려있다. 티셔츠나 반바지에 심플하게 매치할 수 있다. 각 5500엔

CHUMS
BOOBY FLOAT
물가, 바닷가 페스티벌에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도 즐길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튜브. 얼굴과 꼬리 등이 입체적인 부비버드가 특징이다. 첨스 특유의 위트가 넘치는 레저 굿즈이다. 7480엔

YUQRI
PUFF PILE SHORT CREW LINE
촉감이 좋은 루프얀 소재를 사용한 라인 삭스. 쿠셔닝이 뛰어난 착용감과 드라이한 촉감이 인상적이다. 또한, 항균 탈취, 살균력을 겸비한 YUQRI PROTECTION을 배합했기 때문에, 2박 이상의 캠핑 시 유용하게 신을 수 있다. 각 2750엔

MATADOR
NANODRY SHOWER TOWEL L, S
중량의 2~3배의 흡수성을 가지고 있고, 속건성이 뛰어난 나노파이버 타월. L 사이즈는 배스타월, S는 반다나 사이즈이다. 카라비너가 달린 실리콘 케이스에 넣어 휴대할 수 있는 기어처럼, 구매욕 자극하는 모델이다. L 4400엔, S 2310엔

YOSEMITE
STRAP × MASTER-PIECE with KINCHAKU, with POUCH
주머니와 파우치를 세트로 만든 모바일 스트랩. 스트랩에 달린 오리지널 부속품을 끼워서, 휴대용 스마트폰 케이스에 달 수 있다. 스트랩을 조여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다. 주머니 1만8700엔, 파우치 1만7050엔

ALK PHENIX
CONVOY VEST

신축 & 발수 소재와 초경량 립스톱을 조합하여, 백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스트. 포켓은 대용량으로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수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7만4800엔

ICEMULE
TRAVELER 25L

숄더 하네스를 사용하여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더플백 타입의 소프트 쿨러. 톱 패널은 크게 열리기 때문에, 내용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꺼내기도 쉽다. 보랭 시간은 약 48시간 이상이다. 4만4000엔

EYEVOL
ALO

브랜드의 첫 플립업 모델로 아름답게 흐르는 형상을 따서 얼핏 보면 개폐식 안경으로 보이지 않는 스마트한 디자인이다. 실수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마그넷 사양이라 편리하다. 각 3만5200엔

YETI
RAMBLER 26oz

진공단열 구조로 높은 보온력과 보랭력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보틀. 변색, 깨짐, 벗겨짐에 강한 듀라코트를 사용했다. 별도 판매인 내부 뚜껑을 달면, 음료수를 직접 마실 수 있고, 미끄럼 방지 역할도 겸한다. 각 7700엔

THE NORTH FACE
VC DUFFEL M

TPE 패브릭 래미네이트를 처리한 고강도 원단의 더플백. 65L의 중형 모델은 숄더 하네스를 사용하여 백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다. 2만3100엔

EAGLE'S NEST OUTFITTERS
LOUNGER DL CHAIR PRINT

해먹이 무색할 정도의 여유로운 착석감이 특징인 타이다이 패턴의 하이백 체어. 높이는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컵홀더, 2개의 카고 포켓, 일체형 헤드레스트를 갖추고 있다. 접이식 모델. 2만3100엔

CHATTY SCHENEIDER
CS POCKET TISSUE CASE

개러지 브랜드가 만드는 티슈 케이스. 원단은 무려 3레이어로, 안감까지 제대로 심 처리가 되어있어서 포켓 티슈가 잘 젖지 않는다. D캔이 포함되어 있다. 밀리터리 컬러도 출시할 예정이다. 각 3300엔

AND WANDER
FIELD VEST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캠핑 베스트. 등에 대형 포켓, 옆구리에 해머용 루프가 달려있다. 허리의 포켓은 벨크로와 버튼으로 닫을 수 있는 사양으로 되어있어서, 춤추거나 술을 마셔도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다. 1만9800엔

PETZL
ACTIK

450루멘의 밝기로 쾌적한 빛을 내는 헤드램프. 측광 리플렉터와 적색광을 갖춰 암흑 속에서 시야를 밝힐 수 있다. 배터리는, 알칼리 전지 3개 혹은 충전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각 7700엔

RUX
RUX BOX 70L

우수한 수납력을 자랑하고, 백팩처럼 등에 메고 운반할 수 있는 올인원 소프트 컨테이너. 본체에는 TPU 코팅 처리된 방수 소재를 사용했다. 접으면 플랫한 사양이 되기 때문에 보관 장소를 덜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3만9600엔

CRAZY CREEK
ORIGINAL CHAIR

등 부분에 내장된 1.25cm의 폼과 카본 파이버 재질의 보강이 허리와 등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심플하지만 완성된 디자인의 야외 페스티벌 체어. 180도로 열면 시트로도 사용할 수 있다. 9020엔

THE NORTH FACE
LANDER 4

커다란 전실을 갖춘 중형 텐트. 일부 직영점에서만 취급하는 한정판 컬러 모델. 이너 텐트의 입구는 완전히 닫을 수 있는 사양으로, 옷을 갈아입기에도 편리하다. 이너 텐트는 거는 형태로 설치와 해체가 편리하다. 7만1500엔

REVOMAX × MANASTASH
12oz, 20oz

탄산도 넣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 2중 구조의 마나스타시 별주 보틀. 캡은 순간 개폐식이라,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열리고, 링을 당겨 올리면 락이 걸린다. 재밌는 구조다. 12oz 6600엔, 20oz 8250엔

IS-NESS
THM JACKET, THM PANTS, THM CAP

360도로 늘어나는 방수 투습 소재를 사용한 셋업과 캡. 봉제를 최소한으로 줄인 독자적인 패턴으로 착용감이 편하다. 재킷 6만3800엔, 팬츠 4만6200엔, 캡 1만4300엔

ZANE ARTS
ROOBE SPOON, ROOBE FORK, ROOBE SPORK

단면과 움푹한 부분 등, 계산된 디자인의 커틀러리. 이 밸런스에 반하게 된다. 가벼운 질감이 특징이다. 스푼 110엔, 포크 110엔, 스포크 110엔

THE NORTH FACE PURPLE LABEL
STROLL TOTE BAG, STROLL SHOULDER BAG

오가닉 코튼을 사용한 백 2종. 장작 백을 베이스로 설계한 토트백. 아우터와 캠핑 기어 등을 넣어서 운반할 수 있다. 안감은 발수 리사이클 나일론으로 되어있다. 토트백 1만9800엔, 숄더백 1만6500엔

BLK × BAGJACK
TACTICAL SHOULDER BAG

크로스 스트랩으로 몸에 착 달라붙는 고기능 숄더백. 프런트에는 백 잭의 18번인 몰 시스템을 사용하고, 2개의 대용량 파우치는 탈부착할 수 있다. 10만7800엔

TIMBERLAND × NONNATIVE
EURO HIKER F/L

디자인은 등산화이지만, 경량 솔을 사용하여 스니커즈와 비슷한 착용감을 실현한 부츠. 털이 긴 스웨이드 레더와 코듀라를 조합한 어퍼에, 화이트와 블랙의 콤비 스티치가 포인트를 더한다. 2만8380엔

MONT-BELL × PILGRIM SURF + SUPPLY
TREK PONCHO

2레이어 고 내수압 소재를 사용한 방수 판초. 옷단의 버튼과 드로 코드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펄럭거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시스루처럼 비쳐 보이는 화이트 컬러로 안에 입는 웨어의 컬러와 패턴도 신경 써야 한다. 1만780엔

BURLAP OUTFITTER
FOLDING DAY PACK

실리콘 코팅 처리한 코듀라를 사용한 데이팩. 메인 컴퍼트먼트는 주머니처럼 열 수 있는 탑로딩 사양으로 되어있다. 메시 포켓에는 자주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나 젖은 의류 등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9680엔

WILDO
KASA ARMY

스웨덴 군의 머그컵을 디자인으로 만든 컵. 안쪽에는 계량 선이 들어가 있고 뜨거운 물도 넣을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조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용량은 약 300mL이다. 손잡이는 쥐기 쉽고, 스태킹 가능하다. 각 660엔

SHIMANO
STREAM MESH VEST,
BASE BACKPACK 20L

피싱 베스트와 백팩을 연결하면, 크고 작은 다양한 포켓와 홀더가 들어간 '입는 백'이 되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모든 원단에 발수 가공 처리가 되어있다. 베스트 1만9800엔, 백팩 1만5290엔

BYCRUISE ORIGINALS
FAN STORAGE, TRIPOD STORAGE, TRIPOD
MULTI BY CRUISE ORIGINALS × LOCKFIELD EQUIPMENT
KANNON TABEL

크레모아의 팬과 삼발이의 데드 스페이스를 넣을 수 있는 스토리지와 트라이 포트를 탑에 달 수 있는 좌우 개폐식 테이블. 팬 스토리지 1만2100엔, 트라이 포트 스토리지 2만2000엔, 트라이폿 멀티 트레이 7700엔, 테이블 2만4200엔

TRAIL BUM
LIGHT TREK ULTRA UV

알루미늄과 카본 등을 사용한 초경량 접이식 우산. 175g의 중량으로 라이트 트레킹에 최적화 되어있다. 또한, 햇빛이 강렬한 호주의 인증을 받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특징이다. 수납 주머니도 메시로 되어있어서 사용하기 편하다. 8800엔

SHORTS MAKE LONG DELIGHT

긴 여름도 다양한 쇼츠와 함께 라면 즐겁기만 하다.

EDITOR YOO SUNG

GRAMICCI

GADGET SHORT BLACK × CHARCOAL

앞에서 뒤로 이어지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측면 포켓에 컬러 포인트를 주었으며, 가먼트 다잉을 통해 만들어진 두 소재의 대조가 유니크하다. 12만9000원

FJÄLLRÄVEN

SAMLAREN SHORTS 1C

피엘라벤의 리미티드 컬렉션인 '삼라렌' 컬렉션 제품으로 선보인 쇼츠로 단 290개만 제작했다. 생산 공정중 남은 G-1000 원단을 사용하였고 후면에는 이중 원단 레이어로 보강했다. 19만9000원

KAVU

CHILLI LITE SHORT - MISHMASH

깔끔하고 베이식한 디자인으로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매력적인 쇼츠. 100% 순면 캔버스로 제작되어 흡수성과 통기성이 뛰어나며 루즈한 핏으로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링 연출이 용이하다. 11만5000원

MANASTASH

WENATCHEE SHORTS

신축성이 우수하며 드로 스트링이 들어간 허리 부분과 슬래시 사이드 포켓, 여유로운 핏이 특징이다. 개방형 직조 헴프(Hemp) 소재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이고 시원하며 감촉이 부드럽다. 11만9000원

MARK GONZALES

PAINTER CHINO SHORT BEIGE

와이드핏 실루엣의 남녀공용 7부 치노 쇼츠. 밀도 높은 면 100% 트윌 원단을 사용하였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7부 기장감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유니크한 페인팅 디테일이 포인트. 9만9000원

HENRY COTTON'S

FISHERMAN SHORTS

스펙테이터와의 FFC 두 번째 협업 컬렉션 쇼츠. 영국 핼리 스티븐슨 사의 왁싱 원단을 사용해 클래식 피싱웨어 소재를 계승한 제품이다. 21만8000원

NORDISK
OUT POCKET BELTED SHORTS

일상과 아웃도어 어디에서나 활용도가 높은 쇼츠다. 나일론 스트레치 소재와 허리 E-밴드를 사용해 착용감이 편안하다. 컬러는 블랙, 미스티 그레이, P/베이지 등 3가지로 출시되었다. 12만9000원

SIERRA DESIGNS
STRAP FATIGUE SHORTS SAGE GREEN

소프트 워싱한 60/40 원단을 통해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입체형 패치 포켓이 여유로운 사이즈로 수납을 용이하게 하며, 거셋 크로치 패턴이 움직임의 가동 범위를 넓혀 활동성을 높여준다. 14만9000원

HIDEOUT
CAMP HALF PANTS

아웃도어와 일상에서 동시에 입기 좋은 볼륨감 있는 유틸리티 쇼츠. 워싱된 나일론 원단의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바스락거리는 질감, 멋스러운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허리선 아래 로고 카라비너 디테일이 포인트. 8만9000원

OSTRYA
BOTWOOD CARGO SHORTS

튼튼하면서도 편안한 덕 캔버스(Duck Canvas) 소재의 카고 쇼츠. 4개의 포켓을 갖춰 수납이 용이하며 후면 웨이스트 밴드 가죽 패치가 고급스럽다. 31만9000원

ZEROGRAM

TRIPPER SHORTS M

아웃도어와 여행, 워터 스포츠 활동은 물론 일상에서의 캐주얼 룩까지 폭넓게 활용하기 좋은 쇼츠. 유니섹스로 전개하고 있는 제품이다. 12만9000원

PATAGONIA

M'S OUTDOOR EVERYDAY SHORTS 7 IN

블루사인(bluesign®) 인증을 통과한 리사이클 65%의 나일론과 스판덱스 소재로 제작해 내구성이 좋은 쇼츠. 앞 포켓과 카고 포켓에 모두 물 빠짐 홀이 갖춰져 워터 스포츠 활동시 실용적이다. 12만9000원

CAYL

MOUNTAIN SHORTS

30수의 나일론과 면, 스판으로 구성된 원단으로 적절한 속건 기능을 탑재한 쇼츠. 총 7개의 포켓이 다양한 목적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한다. 11만8000원

WELTER EXPERIMENT

3LAYER SEAMSEALING HALF PANTS

3레이어 원단으로 제작한 기능성 쇼츠. 각각의 레이어는 방수와 방풍 및 투습과 보온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아웃도어 활동시 용이하다. 14만8000원

BLACK YAK

M CORDURA CARGO 5 PANTS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은 물론 거친 자연 환경에서도 착용하기 좋은 팬츠. 뛰어난 신축성과 내장된 허리 벨트가 편안한 움직임을 돕는다. 주머니는 국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K-rPET 원사로 항균 기능까지 더했다. 11만9000원

MONT-BELL

CANYON SHORTS

탄력과 신축성이 우수하며, 발수성 소재를 사용하여 트레킹과 워터 스포츠 등 다채로운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쇼츠다. 7만9000원

NEPA

MOUNTAIN AIRDOT ICE HALF PANTS

전면부에는 에어 메시 원단이, 후면부는 기능성 냉감 우븐 원단이 적용되어 쾌적하고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은 쇼츠. 친환경 나일론 소재의 제품으로 항균 가공처리한 주머니감이 세균의 번식을 방지한다. 10만9000원

SALOMON

S/LAB SPEED 2IN1 SHORT M

세계 최고 선수들이 직접 테스트해 개발한 투인원 쇼츠로 살로몬 소속 플레이어들을 위해 제작하였다. 경량 원단을 사용했고 '어드밴스드 이노신텍스™' 기술이 신체의 피로를 최소화한다. 14만원

BLACK DIAMOND

NOTION SHORTS

부드럽고 신축성을 지닌 면 합성 원단으로 제작한 쇼츠. 실내 트레이닝과 한여름 야외 활동에 이상적인 제품이다. 12만원

ADIDAS TERREX

AGRAVIC TRAIL RUNNING SHORTS

습기를 흡수하는 '에어로레디'를 탑재해 무더위에도 끈적임 없이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게 만든 친환경 쇼츠. 웨이스트 밴드 포켓에 스마트폰, 에너지 젤 등을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다. 7만9000원

CHAMPION

LOGO 7 IN. NYLON SHORT PANTS

발수 기능의 나일론과 메시 소재의 브리프가 내장되어 비치웨어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 총 10가지의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5만9000원

BLUEPEACE FISHING CLUB

UTILITY SHORTS - DARK NAVY

스트레치 가능한 화섬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을 높이는 제품. 가먼트 워싱으로 내추럴한 외관 연출이 가능하며 생활 발수 및 방풍 효과가 뛰어나다. 9만8000원

FETCH

NYLON WATER SHORTS BEIGE

페치에서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쇼츠 제품. 안쪽에 메시 소재가 있어 스윔웨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적당한 기장감으로 데일리 웨어 연출이 가능하다. 사이즈는 S부터 XL까지. 7만9000원

SATISFY
SPACE-O™ 2.5″ DISTANCE SHORTS TAUPE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가벼운 '퍼포레이티드 메시'
원단으로 통기성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흡건성이
빠르다. by 아웃오브올 33만9000원

KALEG
MENS FLIGHT WOVEN SHORTS

최고급 경량 소재인 울테르(Ulter)를 사용해 탁월한
신축성과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하는 러닝
쇼츠.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욱 편안한 운동 경험을 선사한다. 15만원

K-WAY
LET'S PACK NYLON PACKABLE WOVEN SHORTS

리사이클 나일론 와샤 소재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터치감을 살리는
제품. 다양한 컬러감으로 스타일링 시 포인트로 착용하기 좋다.
백포켓 지퍼를 활용하면 패커블 휴대가 가능하다. 7만9000원

URBANDTYPE
NYLON CARGO SHORTS

베이식한 디자인의 나일론 카고 쇼츠. 착용시 편안한
오버핏과 함께 입체 포켓이 포인트를 더하는 제품이다.
가벼운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 생활 방수 기능이
뛰어나다. 3만9000원

어디서나 함께 즐기는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Go!

어디든 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EDITOR KIM HAE GIL **COOPERATION** LG전자

캠핑이나 피크닉 등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기 완벽한 계절이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다니, 생각만으로도 설렌다. 꽃이 활짝 피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마음도 덩달아 기분 좋아진다. 이런 날에는 캠핑을 떠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발길 닿는 곳 어디든, 그곳이 나만의 힐링 스폿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캠핑 감성템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Go'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다.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의 기능 덕분에 그곳은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되어준다. 보는 것을 넘어 더 새롭고 다양하게 즐기는 멀티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LG 스탠바이 Go' 하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ALL ABOUT LG StanbyME Go

① 원하는 곳 어디든 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캐리백 디자인의 포터블 스크린

캐리백 디자인으로 간편한 이동이 가능한 포터블스크린으로 화면과 내장 스피커, 배터리가 캐리백 하나에 모두 담아 실내외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고품질로 시청 환경 제공한다. 캠핑이나 피크닉 등 외부 활동 시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집 안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캐리백을 닫아 보관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리모컨과 전원 케이블을 캐리백 내부에 수납할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할 뿐 아니라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② 어디서든 고품질의 콘텐츠 감상이 가능한 LG 스탠바이미 Go

돌비 비전(Dolby Vision™)',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를 지원해 현장감 넘치는 영상과 입체음향을 구현하여 제작자가 의도한 영상의 디테일과 사운드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20W x 4.0ch 전면지향 스피커로,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거기다 웨이브, 티빙, 스포티비나우와 같은 OTT 서비스도 지원해 야외에서도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③ 영상부터 게임까지 멀티 엔터테인먼트를 자랑하는 LG 스탠바이미 Go

나만의 취향대로 즐기는 세 가지 화면 모드(가로, 세로, 테이블)로 활용 할 수 있다. 세로 모드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등 세로형 영상 감상에 최적화 돼 있으며, 화면을 눕히는 테이블 모드로 빌리언 마블, 체스, 카드매치 등 자체 탑재된 다양한 게임을 터치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앱을 활용해 턴테이블 뮤직 스킨 설정, 힐링 테마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LIVE LIGHTLY

#1_ITEMS WITH SUMMER

작렬하는 무더위와 예측불가한 소나기로 몸과 마음이 지친 여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여름이 즐겁고 기대되는 이유도 분명 존재할 것. 여름 시즌에 더욱 실용적일 다양한 어패럴과 액세서리, 그리고 기어류를 소개한다.

EDITOR YOO SUNG

OYSTER

1ST EDITION TEMPO BUNDLE

캠퍼에게 꽤 이상적으로 느껴질 스타터 팩. 스트랩은 조절 가능하며, 콜드 써멀 아이스팩이 포함된 제품이다. 세척도 간편한 편인데 분해해 온수에 헹구고 일반 식기세척용 비누로 닦아도 무방하다. 66만4000원

DECATHLON

FORCLAZ MT900 LIGHTWEIGHT TENT

총 중량 1.3kg을 자랑하는 경량 타프 텐트. 시속 60km의 바람(풍력 7)에도 끄떡없음이 풍동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제품이다. 폴리에스터와 폴리아미드가 각각 50% 함유되었다. 31만5000원

TRVR

STAPLE BALL CAP NAVY

베이식한 디자인이 매력인 볼캡. 스탠다드한 형태와 실루엣이 사계절 착용하기에 부담이 없다. 도톰하고 광택이 도는 나일론 원단으로 제작되어 여름철 특히 실용적이다. 6만5000원

K2

OSSAK RECYCOOL ECO T-SHIRTS

옥수수와 커피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에 냉감 기능을 더해 우수한 통기성과 부드러운 터치감을 선사하는 티셔츠.
색상은 다크네이비, 올리브카키, 블루그레이 3종류다. 7만9000원

EXPED
ORION II UL TENT

모든 계절에 적합한 2인용 텐트로 세련된 디테일, 외부 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및 내구성 강한 소재와 넉넉한 장비 보관 공간이 구비된 것이 특징이다. 최대 무게는 2.75kg. 92만원

TIMBERLAND
GARRISON TRAIL STRAP SANDAL

간편한 착용을 돕는 벨크로 스트랩이 특징. 웨빙 스트랩이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하며 마찰력이 뛰어나다. 탄력있는 쿠션감을 제공하는 압축 몰딩형 EVA 혼방 소재 폼이 미드솔에 적용되었다. 13만8000원

K-WAY
NICOLA WINDBREAKER

총경량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 가볍고 시원하다. 특히 여름철 활용하기 좋은 재킷으로 등판 벤틸레이션이 활동성과 통기성을 높인다. 패커블이 가능해 휴대가 용이한 제품. 13만9000원

OAKLEY
HSTN METAL PRIZM

오클리의 오리지널 감성이 담긴 헤리티지 디자인을 재해석한 제품으로 초창기 베스트셀러가 첨단 기술을 입혀져 다시 태어났다. 강도 높은 일체형 렌즈와 강한 내구성의 프레임을 구현했다. 18만9000원

EBBETS FIELD
COTTON VINTAGE BALLCAP

전면의 펠트 와펜과 볼륨 자수 포인트가 멋스러운 볼캡. 데일리 착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내부 면 스웨트 밴드와 새틴 테이핑의 조합이 여름철 실용적이다. 4만2000원

DECATHLON
QUECHUA CAMPING BASIC CHAIR L

폴딩 시 컴팩트한 크기인 77.5 x 20 x 17cm의 부피를 자랑하는 캠핑 체어. 튜브와 원단이 매우 견고해 최대 하중 110kg을 견딜 수 있다. 색상은 베이지와 그린 두 가지. 3만1000원

GRIP SWANY
ALUMINIUM LANTERN STAND

알루미늄과 황동이 합쳐진 소재로 제작한 랜턴 스탠드. 손바닥 정도의 크기가 휴대를 간편하게 하며 1/4 인치 카메라 스크류로 다양한 제품과의 호환이 가능하다. 23만원

PHILIPS
OUTDOOR POWER BANK

대용량 128000mAh의 강력한 야외용 배터리. USB-A 타입과 C타입은 물론, 콘센트 시가잭과 Qi 무선 충전까지 지원한다. 휴대폰은 기기 상단 패드에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시작된다. 50만9000원

GRIP SWANY
FP APRON VEST OLIVE

캠핑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 제품. 제품 안쪽에 숨겨진 원단을 꺼내면 조끼가 앞치마로 변환된다. 우수한 자기소화성을 지녀 군용으로 사용되는 BRAZE SHIELD 소재로 제작되었다. 18만9000원

NEW BALANCE OUTDOOR
UNI TRAIL SHORTS

아웃도어 활동간 몸의 움직임을 더욱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반바지. 경량성과 활동성까지 갖춘 기능성 잠재권축사 원단을 활용했다. 레깅스와 레이어드 연출이 가능하다. 7만9900원

NUXE
MELTING FACE CREAM FOR FACE SPF50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SPF50 선크림. 뜨거운 햇살에 노출된 상황에서 높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한다. 용기 자체에 전도되는 열을 방지하고자 특수 재질로 제형화시켰고, 가볍고 끈적임이 없다. 12만7000원

18+

WHAT IS AVAXHOME?

AVAXHOME -

the biggest Internet portal, providing you various content: brand new books, trending movies, fresh magazines, hot games, recent software, latest music releases.

Unlimited satisfaction one low price
Cheap constant access to piping hot media
Protect your downloadings from Big brother
Safer, than torrent-trackers

18 years of seamless operation and our users' satisfaction

All languages
Brand new content
One site

AVXLIVE.ICU

AvaxHome - Your End Place

We have everything for all of your needs. Just open https://avxlive.icu

HINOK
THE SPACE SPRAY SET 900ML

피부에 닿는 각종 물건들을 탈취하고
정화시키는 스프레이 제품. 리필팩과
공병으로 구성된 세트로 여름철 습한
실내에서 특히 실용적이다. 5만원

BLACK DIAMOND
CHALKED UP TEE CHARCOAL

유기농 면을 주력 소재로 사용해 제작한 티셔츠.
원단 수축 방지를 위해 방축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클라이머는 물론 일상룩을 원하는 이에게도
실용적인 아이템. 6만9000원

BAMKEL
CARRIER SERIES 35QT

33리터 용량에 13.2kg의 중량을 가진
캐리어형 쿨러. 최장 4~5일간 보냉
상태가 유지되며 원터치 방식의 잠금
기능이 편리하다. 30만8000원

AECA
BEER TRUCKER CAP

위트있는 생맥주잔 그래픽과 과감한 타이포그라피를 조합한 트러커 캡. 연이은 악천후에 우울할 때 가까운 지인을 불러 맥주 한잔 마시고픈 날 착용해도 좋겠다. 4만9000원

ABIB
QUICK SUNSTICK PROTECTION BAR

넓은 면적을 가진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선스틱. 얼굴과 몸 전체에 사용 가능하며 백탁없는 투명한 마무리감이 끈적임없이 촉촉한 느낌을 제공한다. 2만8000원

APOTHEKE FRAGRANCE
CLOSET TAG

태그 형태의 고리가 달린 방향제.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습한 공기 또는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사용해보자. 약 1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실내, 외 어디서든 활용하기에 좋다. 2만5000원

LAIDBACK GEAR
RECYCLING ROLLTOP COOLER

타이벡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견고하며 통기성이 뛰어난 쿨러. 뛰어난 방수 기능을 가진 외관과 우수한 보냉 효과를 가진 내부가 합쳐져 완성되었다. 컬러는 총 10가지. 3만9000원

GOYO WEAR
ASKIN SHORT SLEEVE

83%의 폴리에스터와 17% 스판이 합쳐진 티셔츠. 흡산속건 기능이 뛰어나 여름철 산행시 유용하며 냉감 기능이 탑재된 ASKIN 원사를 적용하였다. 4만5000원

360DEGREES
WIDE MOUTH INSULATED W/ SLIPPER CAP 550ML SILVER

물을 마시거나 따를 때 유용하도록 이중입구 구조를 갖춘 보온 보냉병. 분실을 방지할 수 있게 돕는 마그네틱 시퍼 캡과 손잡이가 포인트다. 2만2000원

PATAGONIA
M'S OUTDOOR EVERYDAY SHORTS

활동성이 뛰어난 쇼츠로 워터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다. 신축성 있는 허리 밴드에 벨트가 달려있어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며 포켓 마다 물 빠짐 구멍이 부착된 점이 포인트. 12만9000원

OLIGHT
ARRAY 2 PRO

최대 1500루멘의 출력을 가진 고성능 LED 헤드라이트. 플러드 라이트, 스포트 & 플러드 콤보 라이트, 레드 라이트 모드는 물론, SOS 모드도 탑재되어 아웃도어 상황에서 유용하다. 11만6900원

ADIDAS
FWD-02 SPORT NIGHT GREY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어 격한 활동에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와이어리스 이어폰.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 사용이 쉽고 반응성이 뛰어나다. 1회 충전시 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24만7000원

AHC
MASTERS AQUA RICH SUN CREAM

24시간 풍부한 보습효과가 유지되는 수분 보습 선크림. '박세리'와 컬래버레이션으로 진행한 상품으로 자외선 차단이 우수하며 지속내수성이 뛰어나다. 30ml 용기 2점으로 구성되었다. 2만4000원

SAN SAN GEAR
FOLDED SACOCHE BLACK

100% 나일론으로 제작한 사코슈 백. 2개의 포켓은 모두 지퍼로 개폐할 수 있으며 추가로 메시 포켓이 2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셔링과 카라비너 디테일이 멋스럽다. 8만9000원

SEA TO SUMMIT
X-SET 31 5PC

팟 1개와 보울 2개, 머그 2개가 납작하게 접히고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로 수납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캠핑과 백패킹 등에 최적이며 안전성까지 검증받은 만능 다용도 식기 세트. 13만8000원

MONT-BELL
UL MONO POUCH S

인 열강도가 뛰어난 원단으로 만든 파우치로 얇고 가볍다. 작은 물건들을 동시에 보관하여 휴대가 편리하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접을 수 있다. 2만1000원

NEMO
HELIO™ PRESSURE SHOWER

이동식 샤워가 가능한 제품. 작게 접어 휴대가 용이한 폴더블 디자인에 605g 중량을 자랑한다. 총 11리터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19만8000원

GLOSOME
PALO SANTO ESSENTIAL OIL

스트레스 및 불면증 해소 효과에 탁월한 팔로산토를 100% 천연 에센셜 오일로 응축한 제품. 우드스틱이나 오프스멜에 적정량 떨어뜨려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2만1000원

UNBRANDED
REMOVABLE MINI TABLE

공구없이 간편하게 사용하고 접을 수 있는 폴딩 테이블. 322g의 초경량 스펙을 보유해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하다. 알루미늄 합금 테이블 상단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3만1000원

CRAZY CREEK
HEX 2.0 ORIGINAL CHAIR

차박 캠핑과 텐트 내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리클라이닝 체어. 중량은 595g이며 가볍고 작게 휴대할 수 있다. 백패킹 시 10cm의 지름 크기로 롤업이 가능하다. 10만8000원

MAIN-TE-NANCE
STAINLESS MULTI TABLE

기본에 충실한 직사각형 형태의 테이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했고 스노우 피크와 호환이 가능해 IGT다리 4개를 활용하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옵션으로 형태를 변형할 수도 있다. 10만9000원

ORTLIEB
DRY BAG - 3L/ 12L/ 22L

감아서 버클로 잠그는 롤 클로우저(Roll Closure)방식의 초경량 방수드라이백. 등산과 캠핑은 물론 낚시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과 일상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2만4000원 부터 3만6000원까지

TOPO DESIGNS
MOUNTAIN GEAR BAG 48L

클라이밍, 로드트립 등 다양한 활동시 유용한 마운틴 기어 백. 전면과 측면에 총 3개의 포켓이 있어 보틀이나 여분의 신발 등을 수납하기에 편리하다. 13만7600원

LEDLENSER
ML4 WARM LIGHT

울트라 콤팩트 디자인의 랜턴으로 최장 45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눈부심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백색 광선을 최대 300루멘까지 발광시킬 수 있는 제품. 6만8000원

REEF
ORTHO BOUNCE WOVEN SANDALS

에스닉한 디테일이 포인트로 가미된 여성용 플립플랍. 푹신한 폼을 듀얼로 압축시켜 보행시 발의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정사이즈로 착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9만9000원

DOMETIC
CFX3 PORTABLE COOLER AND FREEZER

견고하며 가벼운 구조, 부드러운 개폐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한지를 적용했다.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로 성능 기록을 제공한다. 영하22도에서 영상2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119만원

MONTERRA
STORAGE COOLER BENCH

여유로운 사이즈와 수납이 뛰어난 벤치. 설치와 수납이 수월하며 분산내하중 140kg 이하의 견고한 제품이다. 양쪽에 부착된 스토리지에 다양한 소품 수납이 가능하다. 7만6000원

COAL
THE JETTY BUCKET BLK

휴대가 간편하고 립스탑 폴리에스터를 사용해 가벼우며 통기성이 좋은 메시 탑 패널을 적용하였다. 울트라 쿠션 및 수분 흡수가 뛰어난 스웨트 밴드로 여름철 실용적이다. 6만3000원

NEW BALANCE OUTDOOR
UNI HIKING GRAPHIC PCM PRINT T-SHIRTS

잠재권축사로 신축성이 뛰어난 티셔츠. 흡습속건 기능이 우수해 아웃도어 활동시 적합하다. 특히 소재 백면의 FROST PCM 가공프린트가 냉감 기능을 극대화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다. 4만9900원

K2
Z1 AQUA SANDALS

발을 보호하는 토캡과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힐스트랩이 결합된 형태의 아쿠아 샌들. 일체감과 탄성이 뛰어난 EVA 소재의 폼이 미드솔에 배치되어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다. 16만9000원

PELICAN
50QT ELITE COOLER TAN

브랜드 고유의 기술로 제작한 쿨러 제품. 냉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냉 효과를 높여 견고하다. 이중 잠금 장치와 나사식 플러그 및 경사 배수구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이 우수하다. 56만원

SUDIO
F2 WHITE

심플한 디자인과 모서리가 라운딩 정사각형 쉐잎으로 된 핸디형 포터블스피커. 스트랩이 있어 휴대성이 좋고 IPX7의 높은 방수 등급으로 낚시나 워터 스포츠 활동시 유용하다. 119,000원

SNOW PEAK
DOUBLE FACE MESH BOTTLE CARRIER

경량성과 신축성에 더해 형태가 잘 유지되는 더블 메시를 메인 소재로 사용한 보틀 캐리어. 입구와 바닥 및 숄더 스트랩은 폴리카네이트 코팅 립스탑을 적용하여 가볍고 발수성이 뛰어나다. 9만5000원

DERMASENSE

SUN BLOCK CREAM SPF60

더마센스의 강력한 선케어 효능 성분을 담은 선블록 제품. 차단 지수 SPF60 등급을 가져 자외선 차단에 탁월하고 피부 손상을 억제시킨다. 햇빛에 노출되기 10분전 바르는 것이 좋다. 4만3000원

GRAMICCI × BOOKWORKS

RUNNING MAN RAINBOW T SHIRT

그라미치의 기본 나염 티셔츠에 북웍스 그래픽을 반영한 티셔츠. 위트있는 특유의 로고가 더 유니크하게 보여진다. 사이즈는 M부터 XL까지 전개중이다. 7만1000원

VANS

SLIP-ON MULE TRK

반스의 글로벌 서핑팀이 개발에 관여하여 만든 제품. 해변은 물론 도시와 산 등 어디에서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완성했다. 휴대가 용이하며 세척 및 건조가 간편하다. 6만5000원

GARMIN
APPROACH S70

어프로치 S70 시리즈는 기존보다 배터리 수명이 연장되어 최소 10일에서 최대 16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스크래치 방지 렌즈로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42mm는 94만8000원, 47mm는 99만9000원

TRAIL BUM
BUMMER SPECTRA 30L

울트라 라이트 하이킹 목적으로 제작한 배낭. 불필요한 디테일들은 제거되었고 Spectra Fiber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430g 이라는 경량성을 자랑한다.
by 홀라인 26만5000원

TALENTCELL
1500W PORTABLE SOLAR POWER BANK STATION

야외 활동시 용이한 1500W의 파워뱅크. 테슬라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지녔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는 물론 대형 쿨러와 각종 전자기기 충전을 최대 4대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 117만2000원

LAIDBACK GEAR
EVA COMFORT ROLL MAT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고발포 롤 매트.
양쪽에 부착된 버클로 타이트한 조임이
가능하며 적절한 두께감으로 백패킹
활동시 실용적이다. 중량은 390g.
3만8000원

SPA IN A BOTTLE
SUN BLOCK W/ BROAD SPECTRUM SPF50

파키스탄의 천연 재료를 공수해 만든 고품질의 선블록.
SPF50 등급이 적용되어 뛰어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하며 매트한 마무리로 끈적임이 덜 하다. 피부과
전문의가 권할 정도의 우수한 제품. 7만6000원

DECATHLON
QUECHUA CAMPING
COMFORT CHAIR

견고한 튜브와 원단으로 제작된 캠핑 체어.
최대 하중 110kg을 견딜 수 있고 접었을
때 작고 평평해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하다.
색상은 베이지와 그린이 준비되었다. 7만원

YETI
TUNDRA 45 TAN COOLER

음료와 음식 저장 기능은 물론, 식재료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 외관과 뚜껑에 압력식으로 주입한 폴리우레탄 폼과, 콜드록
개스킷이 내용물을 장시간 차갑게 유지시켜 준다. 35만6000원

THE NORTH FACE
BASE CAMP DUFFEL LARGE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더플백. 메인 포켓은 젖은 옷과 오염된 신발을 분리할 수 있도록 공간설정이 가능하다. D형 오프닝 지퍼로 되어 있고, 내부 메시 지퍼포켓과 오거나이저가 내장되어 있다. 17만100원

BLACK YAK
M BERMUDA 5 PANTS

시원한 터치감을 자랑하는 나일론 립조직 원단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광택이 은은히 감도는 하프 팬츠. 얇고 내구성이 뛰어나 여름 아웃도어 활동에 제격이다. 8만9000원

COMFORT ZONE
SUN SOUL MILK SPRAY SPF30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피부 보호와 환경 보존을 동시에 잡아낸 선케어 제품. 빠르게 흡수되는 초경량 텍스처는 광안정 비나노 필터, 펩타이드 및 항산화 물질인 ACEROLA 추출물로 강화되었다. 8만2000원

MAHARISHI

MAHARTIFICIAL T-SHIRT PINK

포르투갈 메이드의 100% 오가닉 코튼 티셔츠. 고전 SF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핑크 컬러를 적용하였다. 리브가 달려 입기 편안한 크루넥 스타일이다. 9만7000원

COTOPAXI

NIDO DOPP BAG - DEL DIA

세면도구와 충전기 등 각종 생활 필수품을 보관하기에 좋은 파우치 백. 3개의 메인 섹션은 각각 포켓에 지퍼가 부착되어 아이템을 안전하고 분실없이 보관할 수 있다. 5만2000원

TE'

CHOROK SPF35

무자극의 촉촉함이 특징인 선쿠션.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 훌륭한 발림성과 자연스러운 톤업이 포인트다. 또 정제수 대신 콤부차 추출물을 가미한 항산화 기능이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를 개선한다. 3만1000원

MILLET

MCC SIMPLE ICESHELL T-SHIRTS

트라이자(TRIZAR) 냉감프린트를 적용해 뛰어난 쿨링감이 느껴지며, 쾌속건조 기능이 우수한 티셔츠다. 제너두(XANADU) 원사를 사용하여 우수한 신축성과 회복이 특징이다. 5만3100원

OUTSUNNY

FOLDING CAMPING TABLE

캠핑 테이블과 수납백을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2-IN-1 디자인의 테이블. 롤러블 알루미늄 루프는 쉽게 제거할 수 있고 패킹도 간편하다. 이동이 용이하도록 가벼운 중량으로 제작하였다. 11만5000원

MONT-BELL
ROLL-UP COOLER BAG 3L

EVA와 에어쿠션을 단열재로 사용해 높은 보온 및 보냉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쿨러백. 겉감은 유연하고 내구성이 강한 방수 소재로 제작되었다. 4만9000원

SALOMON
EQUIPE LOGO TEE WHITE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EQUIPE 컬렉션은 살로몬의 전통과 혁신을 담았다. 이 로고 티셔츠는 친환경 원단을 포함,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뛰어난 기능을 자랑한다. 5만6000원

JBL
TOUR PRO 2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에 맞게 조정되며 어디서든 뛰어난 오디오 경험을 선사한다. 완충시 최대 40시간 재생할 수 있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26만9000원

KLÄTTERMUSEN
ANSUR HIKING HAT ROSE RED

하이킹과 트레킹 등 야외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모자. 유기농 면인 Katla Cotton®으로 제작되었고 방풍 및 방수 기능이 우수하며 통기성이 뛰어나다. 11만9900원

SNOW PEAK
PENDLETON TOWEL BLANKET

스노우피크와 펜들턴이 협업 컬렉션으로 출시한 담요. 캠핑과 일상 모두에서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20세기에 발견된 밴디드 크로스(Banded Cross) 패턴을 적용해 두 가지 컬러로 발매하였다. 19만원

TAIKAN
SACOCHE SMALL BAG

일본 사코슈 백에서 영향을 받아 재해석한 베를린 브랜드 타이칸의 사코슈 백. 길이 조절이 가능한 파라코드와 외부 메시 포켓 및 메인 지퍼 컴포트먼트를 갖춰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좋다. 9만8000원

MARSHALL
MIDDLETON BLACK & BRASS

다방향 스테레오 사운드를 활용한 360° 사운드는 모든 방향에 비치해도 일관된 사운드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 동일한 제품을 여분으로 가지고 연결시키면 멀티 스피커 세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48만원

MONT-BELL

COOLER BOX 4.0L

페트병, 캔 등 다양한 용기를 담기 좋은 다용도 쿨러. 보온 보냉 기능이 우수해 냉찜질용으로도 사용하기에 좋고 가벼워 휴대가 편리하다. 안쪽에 얼음주머니를 넣을 수 있는 메시 포켓이 달려있다. 4만5000원

BEN'S

100 TICK & INSECT REPELLENT 1.25OZ

미국 뉴햄프셔 오지에서의 필드 테스트를 통과한 해충 박멸 초경량 스프레이. 한번 뿌리면 최대 10 시간 이상 벌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용량은 1.25온스. 1만2000원

DISTRICT VISION × SUICOKE

GUT-DVN SANDALS

DV와 수이코크가 협업한 샌들. 이 제품은 간편한 보관과 편안한 모험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신축성이 뛰어난 보디로 백패킹 보관이 용이하며 아웃솔은 비브람 창으로 제작하였다. by 아웃오브올 32만9000원

BURLAP OUTFITTER

DAY PACK BLACK

겉과 뒤의 컬러를 변형하고 메시 소재 콤비네이션으로 결합시킨 가방. 냅색과 토트백 형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고기능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제품이며 세척이 간편한 것이 특징. 8만2000원

MONTANE
MONO LOGO T-SHIRT

부드러운 유기농 면으로 제작한 로고 티셔츠. 골지 크루넥으로 착용하기에 편하며 피부에 닿는 느낌이 탁월하다. 사이즈는 S부터 XL까지 전개중이다. 4만2000원

EXPED
PACK PONCHO UL GREEN

단순히 흥미로운 아이템이라고 하기엔 실제 아웃도어 상황에서는 꽤 유용하다. 콤팩트한 크기와 경량감이 휴대를 편리하게 한다. 큰 팩 포켓과 견고한 챙이 우천시 얼굴로 빗물이 흐르지않게 막아준다. 14만9000원

KLEAN KANTEEN
CLASSIC 1.9L BOTTLE

캠핑과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보틀. 화학 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BAP가 전혀 없고 세척이 간편하다. 5만4000원

A BETTER FEELING

'ECHINO' SUNGLASSES STEEL

고강도 스틸로 보디를 제작한 유니섹스 선글라스. 기본 렌즈는 UV 차단 코팅 처리되었다. 프레임 사이드에 브랜드 로고를 고급스럽게 레이저로 새겼다. 27만5000원

NEPA

MOUNTAIN HYBRID ICE 3/4 PANTS

냉감 원단을 사용해 시원한 7부 기장의 팬츠. 허벅지 양쪽 지퍼 포켓을 추가해 수납성을 강화하였고 사이드에는 이밴드 스타일을 적용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높였다. 10만9000원

LE CREUSET

NEO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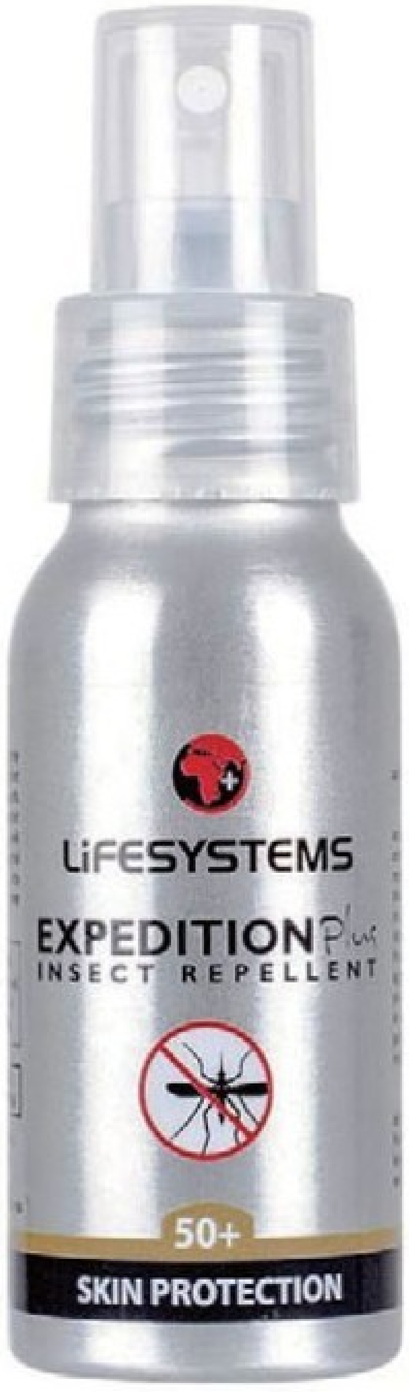
청량하고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는 네오 컬렉션의 네오 보울 150 제품. 세련된 테이블 세팅은 물론 키친에서의 분위기 전환에 탁월하다. 용량은 150ml이며 컬러는 총 5가지로 전개한다. 각 3만원

SEA TO SUMMIT
DRYLITE TOWEL X-SMALL MOONLIGHT

초소형 및 초경량을 지향하는 타월. 흡습속건성의 극세사 마이크로파이버 소재로 빠른 흡수와 신속한 건조가 특징이며, 극강의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한다. 1만4000원

POLER
POLER THE MAGIC TARPIT OLIVE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매트. 패커블하게 수납과 이동이 간편하며, 바닥에 깔고 앉거나 케이프처럼 가볍게 어깨에 걸칠 수도 있다. 간혹 장작을 나를 용도로 사용할 때도 실용적. 12만5000원



LIFESYSTEMS
EXPEDITION 50+ DEET INSECT REPELLENT

여름철 아웃도어 활동에서 가장 고민은 해충이다. 이 제품은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피레트린과 DEET를 결합한 물질을 다량 함유했다. 야외로 나가기 전 뿌리면 최대 10시간 방충 효과가 지속된다. 1만4100원

LEE

CRINKLE UTILITY SHORT SHIRT

유틸리티 포켓의 크링클 텍스처가 돋보이는 셔츠.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며 여러 포켓과 스트랩 고리 등이 아웃도어 활동시 실용적이다. 6만7500원

ZEGNA × NORDA

JACQUARD SOCKS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제냐와 노다가 협업해 출시한 다용도 양말. 이탈리아의 유명한 러닝 코스를 맵 그래픽으로 보디에 프린트했다. 신축성이 뛰어나 퍼포먼스 활동시 유용하다. 7만4000원

TREE

COOL ICE U-TYPE SITTING MAT

엉덩이에 땀이 차는 여름철 유용한 쿨 방석. 고른 압력 분산으로 장시간 편안한 사용은 물론, 통풍이 좋고 시원하다. 충격 흡수가 훌륭하며 복원력이 우수한 TPE 소재를 사용한 제품. 2만1800원

LIVE LIGHTLY

#2_FOOD WITH SUMMER

여름은 보양식의 계절이다. 비단 차갑고 시원한 음식만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마다 부담없이 생각나 반복적으로 찾게되는 '마성의' 음식들을 <고아웃>이 소개한다.

EDITOR YOO SUNG

옥루몽

다수의 '맛집' 플랫폼에서 방문자들로부터 '팥빙수 3대천왕'으로 불리우는 곳. 진한 팥이 많이 달지 않아 자꾸만 숟가락질을 하게 만든다.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로 늘 인산인해다.

위치 서울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8
운영시간 MON-FRI 8:00-22:00 SAT-SUN 10:00-22:00
문의 0507-1483-0047

강정이 넘치는 집

상호명에서도 알 수 있듯 사실 이 곳은 팥빙수 전문점은 아니다. 흑임자 빙수, 말차 빙수 등의 메뉴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국내산 재료만 고집하는 오너의 뚝심이 멋진 곳.

위치 서울 강남구 학동로 435 1층
운영시간 MON-FRI 7:00-22:00
SAT-SUN 9:00-22:00
문의 0507-1417-0447

호밀밭

10년 넘게 신촌 지역에서 건재하게 영업중인 호밀밭. 부드러운 밀크 빙수를 1만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적당히 달고 이가 시리도록 시원한 빙수가 생각날 때 방문해보자.

위치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43 1층
운영시간 EVERYDAY 12:00-22:00
라스트 오더 21:30
문의 02-392-5345

장꼬방

팥 자체는 많이 달지 않으나 인심좋게 퍼주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하얀 우유얼음과 팥, 그리고 밤이 함께 올라간 전통적인 스타일. 강남과 반포 지역에 오래 거주한 이들에게는 전설적인 곳이다.

위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1길 27 1층
운영시간 EVERYDAY 9:00-22:00
라스트 오더 21:15
문의 02-556-1577

평가옥 역삼점

평양냉면은 물론 어복쟁반까지 먹을 수 있는 이북음식의 메카. 테헤란로 직장인들에게 좋은 점심 메뉴로, 퇴근 후에는 단란한 반주용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배가 안찬다면 녹두전도 주문할 것.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로 519 광영빌딩
운영시간 EVERYDAY 11:00-21:30
라스트 오더 21:00
문의 02-556-1577

능라도 마포점

'평양냉면'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항상 손에 꼽히는 능라도.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즐기는 냉면 한 그릇은 더위를 물리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녹두지짐이도 맛있다.

위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5 대농빌딩
운영시간 EVERYDAY 11:00-21:30
라스트 오더 21:00
문의 02-717-0304

막불감동

소화가 잘 되는 '메밀'을 자가제면한 짬뽕칼국수와 판메밀이 맛있다. 더운 여름에는 동치미막국수가 인기이며, 막국수를 시키는 사람들도 많다. 밑반찬만 먹어도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 곳.

위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9
운영시간 EVERYDAY 11:00-22:00
라스트 오더 21:30
Break 15:20-16:40
문의 0507-1305-2110

고미태

여름 계절메뉴인 '닭콩국수'를 파는 고미태는 소위 '면덕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습습하지만 고급스러운 맛을 지닌 닭콩국수는 이번 여름에도 솔드아웃 사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20
운영시간 EVERYDAY 11:30-22:00
Break 15:00-17:00(평일)
문의 02-972-7459

소복국수

해장 겸 아침식사를 먹으러 모인 직장인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식당. 100% 국산콩으로 만든 콩국수는 더운 여름철 별미 중의 별미다. 뜨끈한 우동과 김치말이국수도 추천한다.

위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대우빌딩 지하상가 102호
운영시간 MON-FRI 7:30-17:30
Close SAT-SUN
문의 02-722-7771

원조 할아버지 순두부

순두부로 유명한 이 곳은 진하게 뽑아 장시간 숙성시킨 콩물을 베이스로 콩국수를 서브한다. 아차산과 가까워 하산후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한 가득. 콩물은 별도로 팔고있어 인기다.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40가길 18
운영시간 EVERYDAY 10:30-1:00
문의 02-2275-9666

토속촌삼계탕

삼계탕의 '클래식'으로 인정받는 곳, 경쟁 식당들이 비법을 찾아내려고 수년간 애써도 밝혀내기 어려운 곳, 여름이면 방문하는 손님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 바로 1983년 개업한 '토속촌 삼계탕'이다.

흥미롭게도 이 곳은 초복에 몰리는 편이며, 수십년간 찾아주는 단골들도 많다. 언제 와도 늘 웨이팅 라인이 길다보니 하염없는 기다림과 인내의 노력은 필수. 한옥의 외관을 지닌 이 매장의 총 면적이 무려 400평이나 된다는 혹자의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는 것이, 켜켜이 마련된 수십개의 좌석을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테이블에서 먼저 반겨주는 것은 배추 김치와 깍두기, 편마늘과 쌈장 그리고 겉으로 보는 것보다 진한 인삼주다. 인삼주로 시작하며 삼계탕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표정들이 가득하다. 마치 녹말을 풀어낸 듯한 걸쭉한 국물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을 마주하면 절로 기운이 채워지는 느낌이 난다.

간이 결코 세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닭과 육수 본연의 조화에 집중한 맛이다. 토핑처럼 올려진 견과류 한 줌이 고소함을 극대화시킬 때 결박된 닭다리를 풀고 배를 가른다. 진득한 찰밥 가득한 닭고기와 국물의 아름다운 모습! 속을 가득 채운 인삼과 대추, 밤 등이 굵직하고 튼실하다.

찹쌀 덕에 응축된 점도가 생긴 삼계탕을 수저로 연거푸 떠먹다 보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채 가열차게 뚝배기를 비우는 모든 자리의 풍경이 정겹다.

위치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5길 5
운영시간 EVERYDAY 10:00-22:00 (라스트 오더 21:00)
문의 02-737-7444

공릉동 닭한마리

보양식에 닭이 빠질 수 있을까. 이 곳은 닭 한마리 단일메뉴지만 각종 사리와 나만의 레시피로 국물 맛을 다르게 즐길 수 있다.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은 내부지만 정겨움도 함께 있는 곳.

위치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20
운영시간 EVERYDAY 11:30-22:00
Break 15:00-17:00(평일)
문의 02-972-7459

창동 원조삼계탕

최소 20년 이상 된 동네 맛집. 이제는 입소문 때문에 타지역에서 오는 손님이 많다. 메뉴는 오직 삼계탕 하나. 깊고 진한 국물은 보약이자 훌륭한 술안주다. 인삼주 서비스도 꼭 경험해보자.

위치 서울 도봉구 노해로 67길 10
운영시간 EVERYDAY 9:00-21:00
문의 02-903-5347

진옥화할매 원조 닭한마리

동대문 닭한마리의 원조이자 성지. 이 곳을 설명할 별도의 수식어가 과연 필요할까? 진한 닭 육수와 함께 비법소스에 찍어먹는 닭, 사리를 곁들여 죽까지 즐기는 풀코스의 만찬을 즐겨보자.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40가길 18
운영시간 EVERYDAY 10:30-1:00
문의 02-2275-9666

LIVE LIGHTLY

#3_PLACE WITH SUMMER

잠 못 드는 한 여름밤, 도시의 열기는 또 다른 에너지를 뿜어낸다. 더위에 사로잡혀 쉬이 지친 당신을 위해 <고아웃>이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공간을 모았다. 조금 더 즐거운 '여름 나기'를 위해 반드시 두드려 볼 것.

EDITOR KIM HAE GIL, YOO 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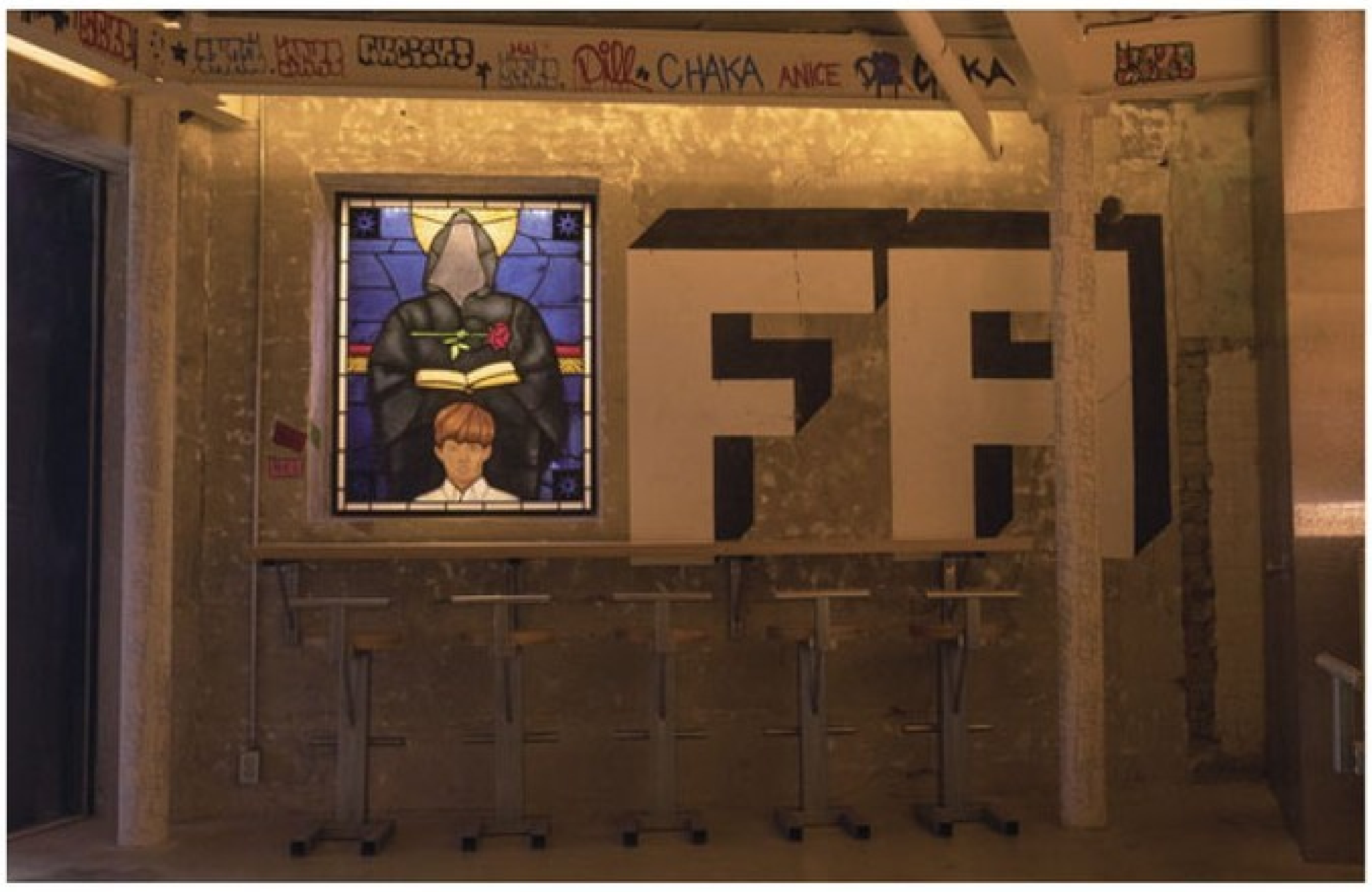
AMIE WINE STUDIO SEOUL

한옥의 정취를 안주삼아 느끼는 비건 와인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amie. 런던 베이스의 Will Sandbach와 Abbie Roden 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있고 트렌디한 콘셉트의 프랑스 로제와인을 론칭한 것이 배경이다. 삼청동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아미 와인 스튜디오 서울은, 런던의 모던과 한국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며 영국 빈티지 가구와 한옥의 조화가 멋스럽다. 또한 와인과 음식을 즐기는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특별하게도 이 곳에서는 아미 와인들과 함께 한식을 기반으로 한 유러피안 메뉴들을 즐길 수 있으며 오전에는 햇살 가득한 좌석에 앉아 여유롭게 브런치와 커피를 먹을 수 있다.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22-9

운영시간 MON-THU 10:00-23:00 FRI-SAT 10:00-24:00 SUN 10:00-20:00



FUCKINGAWESOME BAR SEOUL

LA, 뉴욕에 이어 서울이 세 번째다

지난 6월 16일 한남동에 새로 오픈한 퍼킹어썸 서울은 브랜드의 고향인 미국 LA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 스토어다. 한강진역 인근 폭스바겐 매장 뒤에 위치한 퍼킹어썸 서울은 리테일 매장과 바가 함께 운영중이다. 퍼킹어썸 바는 세계 최초로 서울에 오픈했고, 바 내부에는 디렉터이자 스케이터인 제이슨 딜의 손길이 닿은 아트워크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퍼킹어썸 바는 음료를 포함한 다양한 주류와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낮 시간에도 카페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8

운영시간 MON-THU 16:00-23:00 FRI-SAT 15:00-24:00 SUN 16:00-24:00

SAPPORO THE FIRST BAR

뭐니뭐니해도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를

지난 6월 24일 한국에 처음 오픈한 삿포로맥주 팝업스토어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 더 퍼스트 바. 1층은 삿포로 더 퍼스트바의 메인 공간으로 2가지 버전의 삿포로 프리미엄 맥주와 안주로 구성된 세트메뉴를 1인 1세트 한정으로 제공한다. 즉각적인 경험을 위해 스탠딩 바(Bar)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바(Bar)에서는 맥주를 따라주는 것과 동시에 전문 서버의 설명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2층은 야키토리 전문 브랜드 잔잔(ZANZAN)과의 협업 라운지로 삿포로 프리미엄 맥주와의 페어링 안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인증샷 이벤트, 삿포로 실버컵 네이밍 각인 서비스 등 브랜드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5-5 (홍대 KT&G 상상마당 인근)

운영기간 2023년 06월 24일 ~ 7월 23일 (1개월간)

운영시간 SUN-THU 16:00-22:00 FRI-SAT 15:00-23:00 / TUE 휴무

BOOGIE WOOGIE SEOUL

부기우기

매일 3팀의 재즈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재즈바 '부기우기'. 황순재 대표가 재즈를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열정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학생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까지, 연주자의 스펙트럼 또한 다양하다. 재즈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과 재즈 애호가가 한곳에 모여,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기우기를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기존 상식의 틀을 깬 라이브 재즈바 '부기우기'. 잠 못 이루는 도시의 밤에 재즈가 생각난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Photo © 조재형, @jimiq_photo

위치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21 2층

운영시간 MON-SAT 17:30-01:00, SUN 17:30-24:00

Instagram @boogiewoogieseoul

MIDNIGHT SUUP

심야의 숲

서울의 잠 못 드는 밤은 음악이 있어야 더욱더 아름답다. 이태원 '심야식당'과 성수동 탭하우스 '숲'의 협업으로 만든 공간 '심야의 숲'. 아메리칸 BBQ를 비롯한 시그니처 요리와 정성 들여 만든 수제맥주, 하우스 블렌딩 버번위스키, 싱글몰트 위스키를 재즈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즈바이다. 아티스트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펑크, 블루스, 재즈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 깊은 밤에 한껏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방문해도 좋다. 한 공간 안에 눈과 귀 그리고 입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 아닐까.

위치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3길 2 지하 1층

운영시간 MON-FRI 16:00-03:00, SAT/SUN 15:00-03:00

Instagram @midnight_suup_jazz

ENTRY55

엔트리55

entry55는 2022년 10월에 문화생활 플랫폼 기업 (주)더긱이 기획한 첫 번째 브랜드로, entry55의 '55'는 55분간의 Live 공연을 뜻하며, 재즈 음악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쉽게 Jazz Live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재즈바이다. 공간은 마치 브로드웨이의 화려함과 재즈 페스티벌의 자유로움을 연상할 수 있는 무드로, 음향 장비(JBL 셋업), 악기, 무대조명 시스템, 흡음 장치 등의 설치로 음악을 완벽하게 청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뮤직 디렉팅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함께한다. entry55는 입장료 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라운지 바에서는 칵테일, 하이볼, 위스키, 와인, 생맥주 등 100여 종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외부 음식(음료/주류 제외)을 가지고 와서 즐길 수 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재즈바 '엔트리55', 아티스트의 호흡을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보길.

위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B-102

운영시간 WED-FRI 18:30-23:30, SAT 15:30-24:00, SUN 17:30-22:50 (MON, TUE 휴무)

Instagram @entry55_official

MOUNTAIN & CITY VIEW

자연과 도시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카페

인왕산 중턱에 단아하게 자리잡은 초소책방의 본래 명칭은 '인왕산 초소책방 _더숲II'다. 인왕산 중턱에 청와대 방호 목적으로 건축되어 50년 넘게 경찰 초소로 이용되어온 건물을 공공건축가 이충기 교수가 리모델링한 것이기에 '초소'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 주로 산책하는 사람이나 등산객이 찾아오는 나름 외지인 이곳은 시민들이 소통하며 사색하는 쉼터로 자리잡고자 '책방'으로 꾸며졌다. 기본적으로는 커피와 차, 베이커리 메뉴를 갖추고 있는 카페이며, 공간 곳곳엔 기존 경찰초소의 구조물이 남겨져 있다. 이 곳은 카페와 책방을 가진 조용한 쉼터이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가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작은 공간이지만 미술 작품이 전시되는 갤러리도 종종 운영되며 2층에서는 소규모 모임의 공간적 기능과 함께 문화 이벤트도 기획되어 있다.

더숲 초소책방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72
운영시간 MON-SUN 8:00-22:00
라스트 오더 21:45
문의 02-735-0206

FINALLY, BURGER'S DYNASTY CAME

이름만으로 설레이는 '정통 버거'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

주문 즉시 조리하는 버거, 감자튀김, 핫도그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지난달 26일 한국에 첫 선을 보인 파이브가이즈. 버거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무료 땅콩을 제공받을 수 있다. 파이브가이즈의 매력이라면, 주문할 때 자신의 취향대로 얼마든지 수백가지 경우의 수로 커스텀메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픈 후 현재까지 수도권은 물론, 경북과 부산,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오픈런이 이어졌으며, 일본에서 온 '열혈 방문자'도 있었다는 후문.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베이컨 치즈 버거이고, 파이브가이즈가 제공하는 15가지 무료 토핑 중 가장 인기를 끈 옵션은 양상추와 그릴드어니언, 마요네즈다. 온라인 예약 대기 앱 '테이블링'으로 현장 예약 방문이 가능하며, 호출 후 30분 내에 입장하면 된다.

파이브가이즈 강남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35 주류성빌딩 1층, 2층
운영시간 MON-SUN 11:00-22:00
Instagram @fiveguys.korea

WELCOME TO ACTIVITY REPUBLIC!

남이섬에서 즐기는 2023년 여름 액티비티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이섬. 소위 '나미나라 공화국'으로 불리우는 이 작은 나라는 늘 즐겁고 유익한 이벤트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수변을 중심으로 남이섬에서 즐기기에 좋은 액티비티는 매년 남이섬을 방문하고 즐기는 이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플라이피쉬, 바이퍼, 바나나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수상레저 프로그램을 비롯해 노젓는 보트와 오리보트, 그리고 남이섬의 경관을 감상하며 쾌속질주할 수 있는 모터보트 체험까지 알차다. 여기에 덧붙여 7~8월 중에는 밤(夜)섬 트레킹, 스토리투어 버스, 아찔한 짚와이어 등 놀거리와 볼거리들을 만끽할 수 있다.

남이섬

위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1
문의 031-580-8114

NATURE SOUND

천혜의 비경을 경험할 수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위치한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총 연장 3.6km, 폭 1.5m로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 협곡과 다채로운 바위로 가득한 순담계곡에서 절벽을 따라, 절벽과 허공사이를 따라 걷는 잔도로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경험하는 길이다. 잔도(棧道)는 중국에서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길을 말한다. 절벽에 구멍을 낸 후, 그 구멍에 받침대를 넣고 받침대 위에 나무판을 놓아 만들었다. 이 길을 만든 설계자와 작업자의 노고 덕분에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부부터 북쪽으로 한탄강을 따라가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수직 절벽의 주상절리가 눈앞에 마주한다. 한탄강 주상절리는 약 54만 년 전부터 12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용암이 굳을 때 발생하는 수축작용으로 틈이 벌어지면서 중심점을 따라 사각 또는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떨어져나가면서 주상절리 절벽이 형성되었다. 문명을 넘어선 자연의 힘 덕분에 수십만 년 전의 이곳을 지금 경험하게 된 셈이다. 감동을 넘어선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짧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주상절리길이 어떨까? 한여름, 무더위에도 오싹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떠나자.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위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74 순담매표소
운영시간 09:00-16:00 (매주 화요일 휴무) / 09:00-15:00 (동절기 11월 15일~3월 15일) *드르니, 순담 매표소 운영시간 동일
입장료 성인 1만원 (철원 상품권 교환 5000원)
문의 순담매표소: 0507-1431-2225
드르니매표소: 0507-1374-9825

Bell'Rock
EXCITING OUTDOOR LIFE

콤팩트한 멀티 버너 '벨락 테이블 버너 & IGT 버너 인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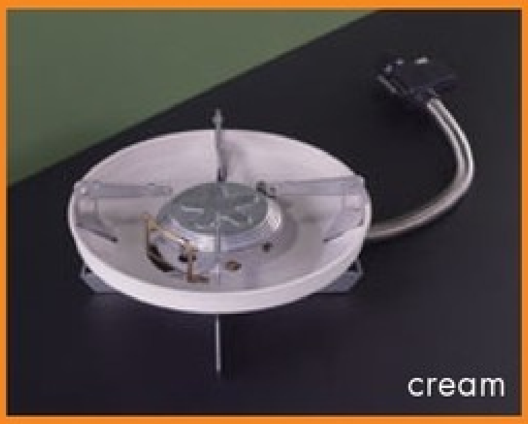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버너

EDITOR KIM HAE GIL **COOPERATION** BELL ROCK

문밖의 아웃도어 활동을 하기에 완벽한 계절이 왔다. 문을 열면 강렬한 햇살과 녹음이 우거진 자연이 우리를 반긴다. 뜨거운 열기도 몸서리 치 차가운 계곡물에 잠깐 몸을 맡기면 이내 사라진다.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언제나 내어주는 자연이 있기에 우리는 늘 그곳을 찾는다. 모처럼 하는 캠핑에 마음이 설렌다. 그중에서도 캠핑의 꽃은 바로 '요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요리를 하기 위한 가장 필수품은 버너다. '요리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버너의 선택도 꽤 중요하다. 어떤 버너를 하느냐에 따라 화력에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고민이 있는 캠퍼라면, 여기를 주목할 것! 캠핑에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거나, 하나의 버너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캠퍼에게 꼭 필요한 '벨락 테이블 버너 & IGT 버너 인서트' 추천한다. 컴팩트한 크기에 화력도 세지만, IGT(IRON GRILL TABLE) 테이블을 사용하는 캠퍼라면 인서트와 함께 더욱 활용하기 좋은 버너다. 캠핑에서 버너 고민은 이제 그만! 올인원 멀티 버너 '벨락 테이블 버너 & IGT 버너 인서트' 하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벨락 테이블 버너'는 스테인리스, 빈티지, 크림 총 세 가지로 소비자의 취향과 개성을 고려했다. 3,000kcal의 화력으로 85mm 크기의 화구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화력이 특징이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패킹 시 편리하다. 일반적인 버너는 이소 가스를 기출 형태, 즉 반듯하게 세워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벨락 테이블 버너는 이소 가스를 뒤집어서 액출 형태로 더 강한 화력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받침대가 접이식으로 확장이 되어 보다 안전하다. 제품 내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아 편안하게 조리할 수 있다. 벨락 IGT 인서트 또한 스노우피크, 베른, 몬테라, 콤마 나인 등 다양한 브랜드의 IGT 테이블에 호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적용된 테이블에만 이소가스 거치가 가능하다) 똑똑한 벨락 테이블 버너 & IGT 버너 인서트로 편리하고 슬기로운 캠핑 생활을 즐겨보자.

벨락 테이블 버너 제품 구성



벨락 테이블 버너 제품 제원

크기 테이블 버너: 200 × 75(H)mm /
IGT 버너 인서트: 355 × 245 × 25(H)mm
무게 테이블 버너: 723g / IGT 버너 인서트: 595g
색상 mirror(미러) / vintage(빈티지) / cream(크림)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사출, 테플론 코팅 등

원산지 대한민국
제조사 테이블 버너: ㈜파커스 인터내셔널
IGT 버너 인서트: ㈜ 벨락
가격 테이블 버너: 10만9000원,
IGT 버너 인서트: 3만6600원

벨락 테이블 버너 제품 사용법

① 이소 가스를 결합한다. ② 결합이 완료되면 가스 조절기를 + 방향으로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돌린다. ③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면 점화장치를 눌러 점화한다.
※ 점화 시에는 꼭 기출 형태(이소 가스가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점화한다.

벨락 IGT 버너 인서트 체결 과정

FUN & FU

디자인과 퍼포먼스까지 갖춘 아이템 모음집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 어떤 아이템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다. 캠핑과 페스티벌, 바캉스 등 신나는 여름을 위해 <고아웃>이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적인 소재,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갖춘 제품을 꼼꼼히 골랐다. 어디에 있던 당신을 'HYPE' 하게 해줄 아이템을 소개한다.

NCTION!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한 기능적인 디자인

FUN & FUNCTION!

여름은 샌들

여름 시즌 가벼운 발걸음을 위한 최신 풋웨어

어느샌가 여름이 코앞에 와있다. 이번 시즌에는 어떤 디자인의 샌들이 출시되었을지 벌써 기대가 된다.
지난 시즌에 이어 스포츠 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와 컬러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주목하자.

EDITOR KIM HAE GIL, **EDIT** AKATOSHI AKUTAGAWA(THUNDERBIRD DESIGN) **PHOTO** HIROYUKI YAMADA **STYLING** TAKAHIRO NAKAJIMA

SNOW PEAK
HITA GETA

클래식한 나막신

아름다운 목조 디자인으로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인 오이타현 산 히타 삼나무를 사용한 나막신. 지난 시즌에는 저온에 구운 소재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히타 삼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솔을 비브람 재질로 변경하여 그립력이 뛰어나다. 모양이 다른 우먼즈 모델을 출시하여, 커플룩으로 신는 것도 추천한다. 각 9460엔

FREEWATERS
THE DILLON 2.0

프리 워터스의 팬이라는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버트 크라이샤와 만든 협업 모델. 스트랩 안쪽에는 그를 모티브로 한 카모 무늬가 그려져 있다. 1만4300엔

TRIOP × EKAL
ZENI SLIPPER

독창적인 트라이앵글 실루엣의 어퍼가 눈길을 끄는 텅 샌들을 에칼 특유의 도회적인 컬러로 제작한 별주 모델. 1만7600엔

OOFOS
OORIGINAL SPORT

리커버리 샌들의 대표적인 브랜드 오포스에서 텅 모델의 시즈널 컬러 모델을 출시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쿠셔닝 기술은 뛰어난 반발력과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감을 경감시켜 준다. 8580엔

THE NORTH FACE
RE-ACTIV FLIP

세미 록커 구조의 바닥으로 액티비티 후에도 아치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안정된 보행을 도와주는 설계로 되어있는 액티브 샌들. 9900엔

RGI FOOTWEAR
NOHY

로프와 벨크로 각 1줄씩만 사용하여 발을 잘 고정하는 모델. 발가락 사이의 습기를 낮추기 위해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부분은 얇게 설계되어 있고, 착용감을 향상하기 위해 엄지발가락 부분이 고정되는 사양의 모델이다. 1만780엔

FREEWATERS
CLOUD 9 ULTRA

독자적인 EVA 폼을 아웃솔에도 사용하여 '최강의 쿠셔닝'을 실현했다. 눈 위를 걷는 것 같은 푹신푹신한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샌들. 컬러는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6930엔

XEROSHOES
AQUA CLOUD

워터 스포츠로 정평이 난 우수한 그립과 풋베드의 베어폼이 힐 부분까지 연장되어 쾌적하다. 이번 시즌에 새로 출시된 선명한 컬러가 눈에 띈다. 8140엔

MONT-BELL
SOCK ON SANDALS

힐이 잘 뜨지 않는 '슬립온 샌들'의 기능성과 양말을 착용한 채로도 신을 수 있는 시즈널 컬러 모델. 이번 시즌에는 여섯 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3850엔

THE NORTH FACE
STRATUM REPENTE II

발의 스트레스가 걱정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쾌적함과 착용감을 향상한 어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1만1000엔

JACK WOLFSKIN
URBAN ENTDECKUNG BELT SANDAL

안정감이 있는 넓은 스트랩과 쿠셔닝이 우수한 EVA솔을 조합하여, 착용감이 우수한 모델,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한 솔이 특징이다. 9130엔

DANNER
MIZUGUMO SLIDE
쿠셔닝과 반발력의 상반된 기능을 완벽하게 조합한 미즈구모 폼을 사용한 리커버리 모델. 이 네이티브 패턴은 이번 시즌 새로운 컬러이다. 5500엔

CONVERSE
ALL STAR PADDEDBELT SANDAL
폼이 들어간 어퍼와 부드러운 쿠셔닝을 갖춘 EVA 풋베드와 솔을 조합했다. 컨버스의 별 모양 스티치가 특징이다. 8800엔

SPINGLE MOVE × LA GOMMA
SPM-1708
코베의 슈즈 브랜드에 개발을 의뢰하여 만든 모델. 부드러운 소가죽 스트랩에 더해, 힐을 잡아주는 신축성 스트랩으로 쾌적한 착용감을 실현했다. 1만6500엔

MERRELL
HUT ULTRA WRAP
뛰어난 쿠셔닝과 착용감을 실현한 서스티너블 미드솔, 플로드 맥스를 넣은 리커버리 샌들. 미국의 발 질환 의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모델이다. 1만2100엔

COLUMBIA
THRIVE REVIVE
발의 부담을 낮춰주는 쿠셔닝과 오랜 착용에도 내구성을 겸비한 소재, 테크라이트 브러쉬를 사용한 리커버리 샌들. 6930엔

BIRKENSTOCK
UJI
기모노의 목깃에서 영감을 받아 벨크로를 넣은 스트랩 모델. 일본의 지명인 '우지'의 이름을 넣었다. 1만9800엔

MFC STORE × HAYN
MS LOGO PAISLEY SLIDE
셀렉트 숍과 하와이의 샌들 브랜드의 첫 협업 모델. MFC의 페이즐리 패턴을 풋베드에 넣었다. 어퍼는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했다. 9900엔

PG
DELTA
펀칭 스웨이드 어퍼의 안쪽과 바깥쪽을 기모노처럼 겹쳐서, 20mm 폭의 테이프로 길이 조절과 고정을 할 수 있는 모델. 아웃솔은 비브람 사의 제품을 넣었다. 1만5400엔

HOKA
ORA RECOVERY SLIDE3
리커버리 샌들의 제3세대 모델. 어퍼에 4개의 구멍을 뚫고 미드솔에 사탕수수 원료 소재를 사용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업그레이드한 모델. 9900엔

ADIDAS ORIGINALS
ADILETTE 22 SLIDES
화성 탐색과 새로운 혹성의 지형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미래지향적인 모델. 사탕수수 원료 소재를 일부 사용하여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다. 7150엔

BAWAKA

KAMBA

RIG × NONNATIVE

KAMBA & BAWAKA

리커버리 샌들과 논네이티브의 주목할 만한 협업 라인

일본의 첫 리커버리 샌들 브랜드와 논네이티브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두 모델 전부 범용성이 높은 다크톤 컬러로, 인솔에는 논네이티브의 로고를 넣었다.

KAMBA: 리그의 인라인 모델 '노헤이'를 베이스로 한 모델 '캄바'. 제품의 부분마다 가죽을 사용하거나, 3중 구조의 솔로 변경하여, 고급스러운 무드를 느낄 수 있다. 각 1만4080엔

BAWAKA: 어퍼를 논네이티브 오리지널로 디자인한 '바와카'. 발등을 감싸는 디자인을 가죽 샌들처럼 고급스러움과, 완성도가 느낄 수 있는 모델이다. 메시 사양으로 한여름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즐길 수 있다. 이 모델 또한 '캄바'와 마찬가지로 삼중 구조의 솔을 사용했다. 각 1만6280엔

CHACO
LOWDOWN LEATHER SLIDE & BODHI

차코의 새로운 샌들

발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쾌적한 디자인을 제안한 브랜드 차코. 왼쪽 2족: 풀 그레인 레더와 피팅 조절이 가능한 웨이빙을 조합한 '로 다운 레더 슬라이드'. 각 1만1550엔
오른쪽 2족: 'Z 샌들'의 DNA를 계승하면서 중량과 높이를 절반 정도 줄여, 미니멀하게 만든 '보디'. 비대칭의 멀티 컬러 디자인이 특징이다. 각 9900엔

SHAKA
COWHAIR COLLECTION

헤어 온 하이드 사양의 새로운 모델

샤카의 각종 인기 모델에 애니멀 패턴을 넣어 카우 헤어로 장식한 컬렉션. 총 3가지 모델에 각각 얼룩말, 표범, 젖소, 낙타 등 네 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왼쪽 : 힐스트랩은 탈부착으로 2WAY 사양으로 신을 수 있는 '스낵 크록 카우 헤어'. 1만5950엔 가운데 : 코 부분을 넓게 설계하여 발가락 사이의 간섭을 줄인 '내픈 비치 카우 헤어'. 1만3200엔
오른쪽 2족 : 어퍼는 벨크로 사양으로 사이즈 조절이 편리한 'X 패커 카우헤어'. 각 1만4300엔

LIZARD

HIKE H20_2, WAY DLIDE, HIKE HARITAGE

이탈리안 스트랩 샌들 브랜드

이탈리아의 아웃도어 샌들 브랜드 '리저드'의 이번 시즌 라인업
왼쪽: 입체 형상 PU 풋베드를 사용했다. 검은 코드를 당기면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고, 워터 액티비티에 최적화한 '하이크 H 20_2'. 1만2980엔 가운데: 일체로 성형한 EVA 폼으로 제작하여, 경량성과 쾌적함이 뛰어난 '웨이 슬라이드'. 1만1000엔 오른쪽: 뛰어난 기능성은 물론이고, 창업 당시의 틸로리안 디자인의 나일론 테이프가 스타일리시한 '하이크 헤리티지'. 1만5950엔

TEVA

TERRA FI 5 UNIVERSAL, HURRICANE XLT 2 AMPSOLE BRITE, OUT FLOW CT

스포츠 샌들의 기준 테바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한 테바
왼쪽: 가장 하이킹에 최적화된 기능과 착용감을 갖춘 '테라 파이 5 유니버설'. 1만5400엔 가운데: 레인보우 플랫폼이 인상적인 젠더리스 모델 '허리케인 XLT 2 앰프솔 브라이트'. 1만4300엔 오른쪽: 미끄럼 방지, 배수성이 우수하고, 하이킹부터 워터 액티비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아웃프로 CT'. 1만6500엔

BIRKENSTOCK
NAPLES

모카신 타입의 어퍼가 인상적인 크록 샌들. EVA 미드솔과 고무형 아웃솔로 착용감이 뛰어나다. 2만4200엔

WHITE MOUNTAINEERING
GURKHA SANDAL

양질의 누벅 레더를 사용한 글루카 샌들. 코르크 풋베드와 EVA 아웃솔을 사용하여 편안한 쿠셔닝과 착용감을 추구했다. 2만4200엔

REPRODUCTION OF FOUND
BRITISH MILITARY SANDAL

2000년대에 걸쳐 영국군에서 사용하던 모델을 발수가공 처리한 이탈리안 스웨이드 레더와 EVA 미드솔 등 현대적인 해석으로 업그레이드한 모델. 3만800엔

PUMA
TONAL SANDAL

트레일 러닝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크록 샌들. 편안한 착용감을 물론이고, 복수의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원톤의 시크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1만3200엔

CAMPER
CAMPER × FISKARS

'캠퍼'와 핀란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스커스'와의 첫 협업 모델로 재활용 네오프렌 소재와 발수 가공한 EVA창을 적용했다. 3만9600엔

ORPHIC
WRP DLT HQ TASSEL

유럽 차의 내장에 사용하는 합성 피혁 '알칸 타라'를 사용하고, 테슬을 넣은 모델. 힐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과 EVA 아웃솔로 착용감이 뛰어나다. 3만3000엔

PARABOOT
ADRIATIC

'퍼시픽'과 동일하게 유려한 원형의 디자인을 차용했다. 인솔의 착화감과 쿠셔닝이 뛰어나고, 쾌적한 보행을 도와준다. 4만4000엔

MALIBU SANDALS
THUNDERBIRD

비건 레더를 핸드메이드로 만든 어퍼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신화에도 등장하는 선더버드를 오마주하여 만들었다. 이번 시즌의 새로운 컬러다. 1만7600엔

CHAMPION
ZONE SLIDE

가볍고 쿠셔닝이 우수한 EVA로 만들고, 아웃솔은 1990년대의 배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인체공학적인 착용감을 실현했다. 4950엔

SUICOKE PURPLE LABEL
SPLIT TOE SANDAL

수이코크와 네펜테스의 공동개발 기획 레이블에서 만든 모델. 수이코크 특유의 착용감과 앞꿈치가 갈라진 디자인은 네오프렌 소재를 절묘하게 사용하였다. 1만9800엔

KEEN × FOXFIRE
NEWPORT RETRO
킨의 시그니처 모델에 폭스 파이어의 '피쉬아이 카모플라주'를 넣어 만든 협업 모델. 1만5400엔

NEW BALANCE
SDL750C2
'990'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디자인을 솔리드 러버의 솔과 완벽한 착용감을 도와주는 스트랩을 더했다. 9900엔

TELIC
ALLROADS-S1
미끄럼 방지 성능이 우수한 아웃솔을 사용하여 비 오는 날이나 가벼운 아웃도어 액티비티에도 착용할 수 있는 스포츠 타입의 리커버리 샌들. 유니섹스 사양이다. 1만2980엔

NIKE SPORTSWEAR
NIKE AIR MAX SOL SANDAL
비지블에어로 친숙한 나이키를 대표하는 모델 '에어맥스'를 메시 어퍼로 시원함과 경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샌들 모델. 9900엔

VANS
HECTOR
EVA 소프트폼의 착용감과 쾌적함이 매력인 스트랩 샌들. 브랜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이드에 배치된 서프 라인이 포인트다. 7150엔

NEW BALANCE
SUA25001
미끄럼을 방지하는 파형 풋베드와 내구성을 높인 솔리드 러버를 갖춘 아웃솔, 신고 벗기가 편리한 힐핸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델. 5830엔

CAMPER
MATCH
셀링 슈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퍼포먼스를 갖춘 스트랩 모델. 차분한 컬러의 멀티 패턴이 특징이다. 1만6500엔

FLOWER MOUNTAIN
PUMAPUNKU
샌들로서는 브랜드의 첫 시도인 레이스업 사양의 모델. FM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과 고기능을 갖추면서 독특한 레이스의 형태가 인상적이다. 1만9800엔

PUMA
TREK
1990년대에 출시한 '트리노믹 러너'를 샌들로 제작했다. 독특한 비주얼이지만 착용감은 뛰어나다. 9790엔

KEEN
DAYTONA II SANDAL
고급 가죽 어퍼에 방수 가공을 하고 전방위 대응형 아웃솔 러그는 레이저 사이핑으로 그립을 강화하는 등 부분마다 업그레이드한 모델. 1만7600엔

HOKA
HOPARA

본격적인 액티비티에도 착용할 수 있는 마운틴 샌들을 일상용으로도 쓸 수 있는 미려한 컬러링을 사용하여 만든 라이프스타일 모델. 1만6500엔

CROCS × SATISFY
SATISFY RUNNING × CLASSIC CLOG

파리의 액티브 웨어 브랜드 '새티스파이'와의 협업 모델. 수납 주머니로도 쓸 수 있는 파우치가 인상적인 모델. 1만4300엔

THE NORTH FACE
STRATUM PIKA

내구발수가공 처리한 메시 어퍼와 물빠짐 구멍이 달린 인솔, 힐을 꺾어 신을 수 있는 2WAY 사양, 비브람 솔 등을 갖춰 물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1만6830엔

PATRICK
TIWI

탈부착이 쉬운 뮬 타입의 모델. 통기성이 뛰어난 메시 어퍼와 쿠셔닝이 우수한 비브람 사의 두꺼운 솔을 넣었다. 블랙 컬러로도 출시한다. 2만6400엔

CONVERSE
ALL STAR COUPE GURKHA-SANDAL OX

드레시한 컵 솔을 사용하는 쿠프 시리즈에 글루카 샌들을 출시한다. 어퍼에 부드럽고 매끄러운 가죽, 안쪽에는 피그스킨을 사용했다. 1만8700엔

SALOMON
TECHAMPHIBAN 5

불쾌한 충격에서 발을 보호하는 보강 토우 캡과 미끄럼 방지 성능이 우수한 아웃솔, 힐을 꺾어서 신을 수 있는 2WAY 사양 등이 뛰어난 모델. 1만2100엔

SHIMANO
EVAIR 마린피싱 슈즈

그립성이 뛰어난 솔과 통기성, 배수성이 우수한 어퍼 등 용도에 맞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 모델은 뉴 컬러인 네오네이비 모델이다. 가격 미정

RIG FOOTWEAR × NARIFURI
MOJA-NF

리커버리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 앞꿈치와 힐, 발등 부분을 보호하고, 야간의 시인성을 위해 반사재를 추가 하는 등, 나리후리의 자전거 사양에 기능을 더한 협업 아이템. 1만8150엔

BONFIRE
CO. WRAP SANDAL

통기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터 샌드위치 메시와 착용감을 높인 메탈 버클, 다양한 지형에 대응하는 트렉 스카우트 솔 등 다양한 기능이 인상적인 모델. 1만1000엔

CONVERSE
MSD CP

'캠핑 서플라이' 컬렉션의 샌들. 여기 소개한 블랙 × 화이트 모델은 컨버스 직영점에서만 출시하는 한정판 컬러 모델이다. 1만2100엔

GOLDENCOAST SLIDE

GOLDENCOAST STRAP SLIDE

GOLDENCOAST CLOG

UGG®

GOLDENCOAST COLLECTION

뛰어난 착용감과 최고의 퀄리티의 어그 샌들

어그 특유의 감싸주는 듯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골덴코스트 컬렉션. 스웨이드의 어퍼와 마이크로 파이버의 속 라이너, 폼의 풋베드 등 최고의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 GOLDENCOAST SLIDE : 슬라이드로 신을 수 있는 힐스트랩이 달린 '골든코스트 크록'. 2만900엔 GOLDENCOAST STRAP SLIDE : 2개의 스트랩으로 피팅 조절을 할 수 있는 '골든코스트 스트랩 슬라이드.' 1만9800엔 GOLDENCOAST CLOG : 시리즈 중, 가장 심플하고 범용성이 높은 '골든코스트 슬라이드'. 1만7600엔

FUN & FUNCTION!

아웃도어에 완벽한 티셔츠 모음집

SUMMER COLOGNE

단 하나로 스타일링을 결정할 수 있는 아이템, 티셔츠

가볍지만,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아이템, 티셔츠. 페스티벌이나 캠핑, 액티비티 등,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이니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고아웃>이 여름철 키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티셔츠를 모았다. 미처 여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눈 여겨보자.

EDITOR KIM HAE GIL **PHOTO** SHOUTA KIKUCHI **STYLING** TOMOYUKI SASAKI **TEXT** SACHIO KANAI

THE NORTH FACE PURPLE LABEL

H/S GRAPHICE TEE

100% 리사이클 소재로 만든 쿨맥스® 에코메이드에 대학교를 연상하게 하는 '컬리지 스타일'의 로고가 인상적이다. 다소 폭이 넓은 드롭 숄더 사양으로 부드럽고 쾌적한 소재를 경험할 수 있다. 1만1000엔

IS-NESS MUSIC
PLAY T-SHIRT
오디오의 재생 버튼을 넣어 브랜드의 컨셉트를 알기 쉽게 표현했다. 안감과 겉감을 뒤집어 놓은 듯한 디자인은 브랜드의 시그니처다. 12인치 레코드 풍의 버킷이 들어있다. 7480엔

MOUNTAIN HARDWEAR
MHW CAMP 4 SS T
속건성과 쾌적성을 위해 폴리에스터와 코튼을 조합했다. 복수의 섬유를 평행으로 짠 원단이 특징이고, 아웃도어와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뒷부분의 프린트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했다. 6600엔

THRASHER
SANSKRIT STYLE TIE DYE S/S T-SHIRTS

100% 면 소재의 비비드 컬러 타이다이 티셔츠. 오리지널리티가 넘치는 산스크리트 폰트로 브랜드 네임을 넣었다. 오리엔탈 무드가 강하지만, 호불호가 없는 실루엣으로 어떤 룩에도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 7150엔

CHUMS
OVERSIZED I'M NOT A PENGUIN T-SHIRT

COTTON USA 인증을 받은 헤비웨이트 코튼을 사용한 모델.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루엣이 잘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브랜드의 아이콘인 부비새의 "전 펭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5280엔

ALK PHENIX
KARU STRETCH T

가볍고 신축성이 뛰어난 나일론 베이스의 발수 소재, 카루 스트레치 투를 사용하여 1장의 원단을 접어서 만들었다. 재봉선이 적어서, 촉감이 좋고, 가벼운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 2만4200엔

DOWN ON THE CORNER
S/S TIE DYE TEE

미국의 장인이 홀치기 염색으로 만든 타이다이 컬러의 모델. 앞부분에는 그레이트풀 데드의 기타리스트, 제리 가르시아의 팬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 뒤에도 CACTUS & ROSE의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7920엔

SABY
TIE DYE T

반응염료를 사용한 다색 타이다이 염색을, 숙련공이 프루츠 오브 더 룸 소재에 넣었다. 염료가 섬유와 화학 결합하고 있어서 잘 열화되지 않고, 발색이 뛰어나다. 같은 패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까지 갖춘 모델이다. 9900엔

BROWN by 2-TACS
BAA POCKET

기능성이 우수한 메리노 울로 만든 티셔츠를 박스 실루엣과 가슴의 포켓으로 스포티함을 줄이고, 일상에서 입기 편안하게 만들었다. 울로 감싼 나일론 섬유를 사용하여, 내구성까지 뛰어나다. 1만6500엔

THE NORTH FACE
S/S MULTI BORDER TEE

천연 소재의 부드러운 오가닉 코튼으로 부드러운 촉감이 매력이다. 가슴의 로고 자수는 보디와 동일한 컬러를 사용하였고, 줄무늬 또한 특징이다. 6600엔

ALDIES
90S BIG T

빈티지 스트리트 아이템 분위기의 패턴을 안료 프린트로 섬유부터 엄선하여 디자인했다. 두꺼운 소매는 착용하면 일반적인 티셔츠보다 조금 긴 편이다. 폭이 넓고 다양하게 조합하여 시원하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8690엔

BATTENWEAR
POCKET RUGBY TEE

내구성과 착용감이 뛰어난 럭비 셔츠 소재를 사용한 모델. 드롭 숄더의 1990년대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만들었다. 보디는 1970년대의 서핑 브랜드의 컬러 블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2만2550엔

COMMON EDUCATION
TIE DIE TEE JUNGLE

이너로서 사용하기 좋은 100% 면 소재의 얇은 보디가 특징이다. 앞부분에 JUNGLE, 뒷부분에는 그래픽과 함께 River Side Walk를 프린트했고, "산에서 길을 헤매면 강을 따라 걸어가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7150엔

AIGLE × POMPIDOU
COLLAB T-SHIRT

퐁피두 센터가 소장된 몬드리안의 작품 "New York City"를 넣은 예술적인 작품. 실루엣은 베이직한 레귤러 핏 사양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1만4300엔

TAPWATER
WIDE BORDER S/S TEE

적당하게 넉넉한 박스 실루엣과 두꺼운 줄무늬가 1970년대 이전의 아웃도어 브랜드의 티셔츠를 연상하게 한다. 소재는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오리지널 소재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1만7600엔

WHITE MOUNTAINEERING
OVERSIZED T-SHIRT WITH SHIRRING

메리노의 일종인 서머 울에 기능 소재인 쿨맥스®를 조합했다. 접촉냉감과 속건성, 탈취성, 신축성 등 여름에 완벽한 아이템이다. 옷단은 태패터 소재의 어저스터가 들어간 부분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2만8600엔

NONNATIVE
DWELLER S/S TEE "EAST" 2

이번 시즌 컬렉션의 테마인 'EAST'와 연관된 그래픽 프린트가 인상적인 모델. 뒷부분의 실루엣이 라운드헴트 사양으로 되어있어서 야외에서 입어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9680엔

REMI RELIEF
SP 가공 니트 레귤러 티셔츠

염료를 천천히 섞어서 절묘하게 가공하여 빈티지 느낌을 연출했다. 다소 넉넉한 실루엣과 프런트의 레트로 아웃도어 그래픽 덕분에, 여유로운 무드를 느낄 수 있다. 9790엔

SOUTH2 WEST8
S/S ROUND POCKET TEE

곡선적인 가슴 포켓과 사슴 해골이 인상적인 포켓 티셔츠에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었다. 보디는 통기 속건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와 코튼의 혼방 소재로 등에 서클 혼 프린트를 넣었다. 1만450엔

L.L.BEAN JAPAN EDITION
MEN'S BEAN'S 1980 CATALOG TEE, SHORT-SLEEVE

일본의 기후와 트렌드에 맞춰 개발한 재팬 에디션 컬렉션. 1980년의 카탈로그의 표지를 프린트했다. 6490엔

BURLAP OUTFITTER
S/S POCKET TEE PRINTED

속건성과 UPF40 UV 차단 기능을 갖춘 서플렉스 나일론에, 오리지널 패턴을 프린트했다. 워터 액티비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좌측 가슴과 좌우의 허리에 포켓이 달려있어서, 수납성도 뛰어나다. 1만4300엔

ADIDAS TERREX × AND WANDER

W AWD TUNIC

일부분에 리사이클 소재를 넣은 플리스 티셔츠. 보온이 필요한 산행에 딱 맞는 아이템이다. 마이크로 파이버의 누락이 적은 '테렉스 플리스'로 오래도록 입을 수 있다. 1만8700엔

GRAMICCI by F/CE.

TECH TEE

흡수 속건성이 높은 기능 소재, 테크파일로 만든 세미 오버 사이즈의 모델. 변형 요크 슬리브가 팔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다양한 액티비티에도 안성맞춤이다. 가슴에 볼륨감 있는 메시 포켓과 파라코드 루프를 달았다. 1만5400엔

FOXFIRE

TC MESH POCKET TEE S/S

폴리에스터 65%, 면 35%의 속건성이 있는 혼방 소재를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만들었다. 물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형 퍼스너 메시 포켓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겨드랑이에 들어간 탈취 테이프가 특징이다. 8250엔

MANASTASH

DISARMED SHORT SLEEVE 23

매 시즌 인기가 높은 롱셀러 티셔츠에 1개의 벨크로식 플랩 포켓을 장착하여 업그레이드했다. 플라스틱 탭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2000년대의 아웃도어 감성을 느낄 수 있다. 7150엔

JACK WOLFSKIN

JP UR ACTIVE AIR T

발수방풍 시스템, 텍사 실드 코어를 사용했다. 땀과 물로 잘 달라붙지 않고, 패치 포켓 덕분에 소품 수납에도 유용하다. 키트 백을 모티브로 한 스터프 색도 포함되어 있다. 1만1000엔

GRIP SWANY

CAMP POCKET TEE 4.0

터프한 헤비웨이트 코튼 티셔츠에 수납을 고려한 나일론 포켓을 달았다. 옷단의 드로 코드를 조절하면 길이와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7150엔

AND WANDER
PERTEX WIND T

20D의 고강력 나일론 섬유를 고밀도로 짜서 만든 퍼텍스 퀀텀 에어로, 우수한 방풍발수성과 내구성을 확보했다. 부속품인 파우치에 수납하면 휴대하기 편하고, 윈드 재킷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만4200엔

PATAGONIA
M'S '73 SKYLINE ORGANIC T-SHIRT

등 부분에 브랜드 초기의 제품 라벨이 모티브인 그래픽을 넣었다. 100% 오가닉 코튼으로 일반적인 코튼 재질과 비교하여 물의 사용량은 84%,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 줄였다. 5940엔

COLEMAN × FREAK'S STORE
별주 MOUNTAIN BACK PRINT T-SHIRTS

아웃도어가 테마인 오리지널 그래픽을 뒷부분에 프린트했고, 와펜 디자인도 인상적이다.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실루엣이다. 5995엔

FRESHSERVICE
TECH WEATHER PULLOVER

천연소재에 못지않은 부드러움을 가진 웨더 크로스를 사용하고, 발수 통기성과 신축성을 확보했다. 볼륨감 있는 오버 실루엣이지만, 옷단의 드로 코드를 조이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바람의 침투를 막아준다. 1만8700엔

DESCENDANT
FDTD SS

양질의 오가닉 코튼을 사용하여, 매우 부드럽고 기분 좋은 촉감의 모델. 좌측 가슴과 등에 배치된 것은 이번 시즌의 메인 그래픽이다. 로고를 넣은 테이프로 보강하여, 목 주변이 잘 늘어나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다. 1만5400엔

CARHARTT WIP
S/S COAST STATE T-SHIRT

오가닉 코튼 보디를 여유로운 핏의 실루엣으로 만들었다. 뒷부분에는 스테이트 플래그 디자인을 넣고, 좌측 가슴에도 같은 디자인을 작은 크기로 넣었다. 9900엔

KAVU
RAINNIER 2 TEE

카부의 본거지 워싱턴을 상징하는, 해발 4392m의 레이니어 산을 그래픽으로 프린트했다.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등산 루트가 클래식한 인상을 주고, 네온 컬러는 계절감을 연출하는 데에 좋다. 4290엔

KARRIMOR
PHOTO S/S T

오가닉 코튼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혼방한 서스티너블한 베이스에, 염화은으로 만든 항균 탈취 가공 폴리진 바이오 스태틱™ 소재를 사용했다. 뒷부분에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있다. 5940엔

ABU GARCIA
HIRANUMA MEMAI GRAPHIC T-SHIRTS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히라누마 히사유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메마이(주: 현기증)'를 로고에 반영하여 만든 스페셜 그래픽이 인상적이다. 가슴에 들어간 작은 레귤러 로고와의 대비가 재미있다. 9240엔

POLER
EUREKA RELAX FIT TEE

포틀랜드에 실재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전화번호를 디자인으로 넣었다. 뒷 부분에는 비비드 컬러로 그려진 아이콘인 사이클롭스를 프린트하여 강렬한 임팩트를 준다. 5720엔

GRAMICCI
OVAL TEE

오가닉 코튼의 특징인 드라이한 감촉과 더불어 빈티지 스타일의 그을린 느낌이 특징이다. 어센틱한 타원형 로고도 레트로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플레인 실루엣이라 이너로 입기 편하다. 6600엔

WILD THINGS
WILD CAT T

오리지널리티 넘치는 뒷부분에 구형 로고에 사용하던 와일드 캣 그래픽을 넣었다. 와일드 캣의 눈 부분과 브랜드 네임 부분만 다른 컬러의 자수를 넣어 포인트를 더했다. 6050엔

F-LAGSTUF-F
PABLO S/S TEE
피그먼트 다이를 한 제품에 화가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래픽을 프린트했다. 좌측 가슴에 위치한 로고가 인상적이다. 8800엔

NEEDLES × NOMA T.D.
S/S MOCK NECK TEE
핸드 드로잉으로 만든 오리지널 텍스타일이 특징으로 니들즈가 별주하여 만든 모크넥 반팔 스웨트. 아이콘인 파피용 자수를 넣었고, 스프레이 페인트가 인상적이다. 3만800엔

FRANKLIN CLIMBING
빈티지 클래식 TEE
올드 클라이머의 오마주로 빈티지의 낡은 느낌을 워시드 가공으로 재현했다. 뒤쪽의 허리 부분에 들어간 로고가 인상적이고, 에이징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다. 6050엔

ELDORESO
THERE IS T-SHIRT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프린트로 1980년대 감성이 넘치는 러닝셔츠. 신축성과 흡수 속건성을 겸비한 퀵 드라이 폴리에스터 소재로 땀이 나도 불편함이 덜하다. 6600엔

SONY SUZUK × NATAL DESIGN
LOVE CAMP DRIVE WIDE TEE
도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소니 스즈키가 청춘 회화를 테마로 그린 작품이 인상적인 모델. 네이탈 디자인의 스탠다드 아이템, 헴프 와이드 티셔츠 가 사용되었다. 1만2100엔

SAVE SHOCK
ANGRY CAT T-SHIRT
일본 운송회사의 로고를 유머러스하게 제작했다. 로고를 변형하여 화난 표정으로 넣은 것이 꽤 유쾌하다. 매우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4950엔

GOHEMP
HALF SLEEVE WIDE FITS TEE

헴프 55%, 오가닉 코튼 45%의 10온스 저지에 프린트한 모델. 절묘한 와이드 실루엣이 특징이다. 두꺼운 원단은 실루엣을 유지해 주고, 보디 라인 또한 잘 틀어지지 않아 입기 편하다. 8580엔

NANGA
ECO HYBRID THE WORLD IS YOUR CANVAS

트렌디한 래글런 슬리브에 자연이 만들어 내는 예술의 에너지를 표현했다. 미들 온스의 보디에는 리사이클 국제 기준인 GRES 인증을 취득한 재생 코튼 소재와 폴리에스터를 혼방하여 터프함과 부드러움이 특징이다. 6600엔

HMKL × NAUGHTBAIT
LURE CHART TEE

루어 브랜드 행클의 걸작을 일러스트로 그려 레이아웃에 넣었다. 스포츠웨어의 명문인 러셀 애슬레틱의 튼튼한 보디가 특징이다. 6600엔

WRAPINKNOT
MERINO WOOL S/S OVERSIZED POCKET TEE

자연스러운 광택이 아름다운 100% 메리노 울 원단으로 만든 오버 사이즈 포켓 티셔츠. 여유로운 분위기를 주는 드롭숄더 사양으로, 한 장만 입을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다. 워셔블 가공처리로 자택에서의 세탁이 가능하다. 1만6500엔

CAL O LINE
SANTA BARBARA PRINT T-SHIRT

1991년에 사회 현상이 되었던 모 사진집을 오마주한 모델. 오리지널과는 다른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문자를 배치하여 유머러스하게 만들었다. 오가닉 면 소재를 재활용하여 만든 질감이 특징이다. 7590엔

LACOSTE × NETFLIX
악어 로고 티셔츠

아이콘의 악어 로고를 넷플릭스의 인기 작품 '기묘한 이야기 미지의 세계'에 등장하는 데모고르곤과 조합하여 만들었다. 오가닉 코튼 소재로 환경까지 생각했다. 1만2100엔

COLUMBIA
COLD BAY DASH™ SHORT SLEEVE TEE

아웃도어 대응 사양의 냉각 기능으로 유명한 옴니프리즈 제로를 데일리 웨어로 변경했다. 1장만 입는 것이 아닌 레이어드로도 입을 수 있는 오버 사이즈 실루엣으로 만들어서 기온이 높아도 드라이하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5940엔

PATAGONIA
M'S GPIW ORGANIC POCKET T-SHIRT

파타고니아의 숍에서 유래한 한정판 컬렉션에서 따온 모델. 소프트한 오가닉 코튼에 PVC와 프탈산에스터를 사용하지 않은 스크린 프린트로 넣은 그래픽이 특징이다. 5940엔

SNOW PEAK
ROPEWORK T-SHIRT

아웃도어에서 꼭 필요한 로프워크의 이름을 프린트했다. 5280엔

MOUNTAIN RESEARCH
KOYA-DORI OYAKO T-SHIRT

캠핑 기어에 특화된 컬렉션인 리틀 서머 캠프의 마스코트인 코야도리를 넣었다. 패밀리룩으로 추천한다. 8800엔

AWESOME CLIMBING EQUIPMENT
"BEYOND BORDERS" TEE

사진가인 시부야 유리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작품을 넣었다. 사진에 나온 것은 국적이 다른 클라이머로, 클라이밍은 국경을 넘는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5830엔

DEDICATED
FLAV T-SHIRT PLASTIC NEW

유명 명화에 등장하는 상어 대신에 대량 플라스틱 쓰레기가 습격해 오는 그래픽으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모델. 터키산 오가닉 코튼을 사용했다. 6600엔

CHARI & CO
SHUT UP PHYSICAL TEE

프린트의 메시지는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닌, 약하고 의지박약인 자신에게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귀여운 폰트를 넣었다. 보디에는 고급스러운 7.7온스 니트 소재를 사용했다. 5940엔

MADDEN
PACK RATS TEAM TEE

메덴 사의 스태프가 만든 소프트볼 팀, 팩 랫의 캐릭터를 프린트했다. 원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제품 생산에 대한 열정과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브랜드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6930엔

FORCE A BETTER®
CORDURA® RELAX WIDE T-SHIRT

터프한 코듀라 나일론과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촉감이 좋은 USA 코튼을 4:6으로 조합했다. 마모와 찢김에 강한 실루엣의 모델이 추가되어, 루즈한 코디와 액션 스포츠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각 4950엔

BONFIRE
MOUNTAIN T-SHIRT

산뜻한 촉감의 코튼 폴리에스터 소재 모델. 그래픽과 메시지가 등에 인상적이고 프런트에는 가슴 포켓 & 로고 패치가 오리지널리티를 더해준다. 5280엔

BAJA STYLE TACOS®
T-SHIRT

마운틴 리서치와 커먼 에듀케이션 등, 브랜드와 협업 하고 있는 나카메구로의 타코스 숍에서 만든 오리지널 티셔츠. 우측 소매에는 메뉴가 들어가 있다. 키즈 사이즈도 준비되어 있다. 4400엔

SHIMANO
ORGANIC COTTON GRAPHIC T-SHIRT

환경 부담을 줄여주는 지구와 인간을 생각하는 재배 방법으로 만든 오가닉 코튼 재질의 모델. 소프트하지만 잘 늘어나지 않고, 가혹한 환경에서도 오래 애용할 수 있다. 컬러별로 각각 다른 그래픽이 있어 취향에 맞는 모델을 찾기 쉽다. 4950엔

BRAND PICK UP

GOYEMON

<고아웃>이 일본의 전통과 최신 기술로 탄생한 셋타에 스니커즈를 접목한 브랜드, ‘고에몬’ 본사를 방문했다. 대표작인 unda와 신제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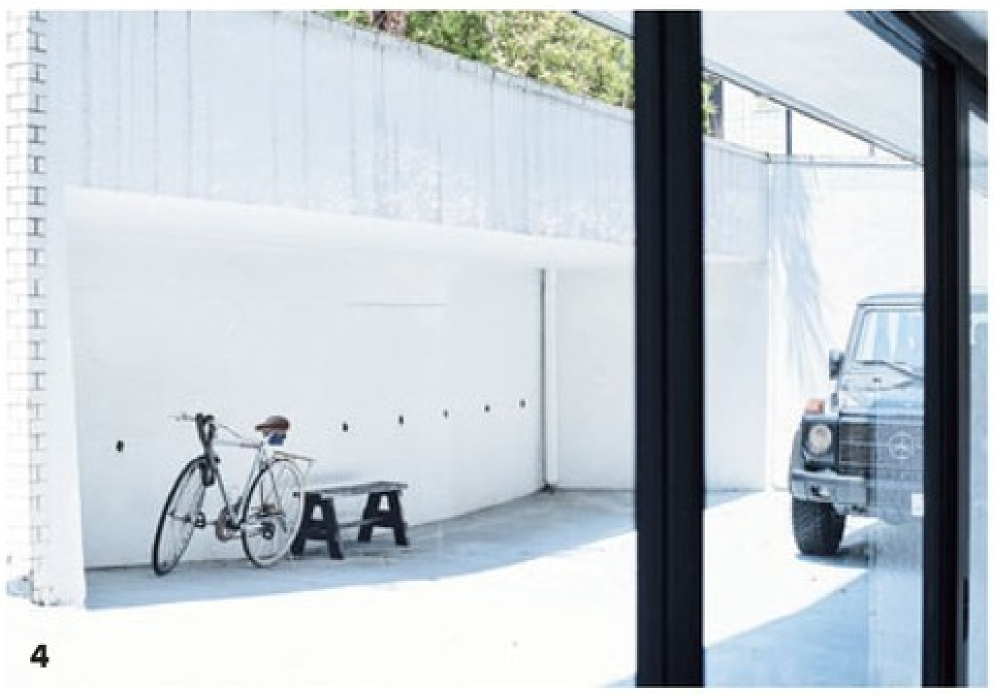
EDITOR KIM HAE GIL **PHOTO** SHOUTA KIKUCHI **REPORT & TEXT** NAOTO MATSUMURA

1

최신기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와 아이템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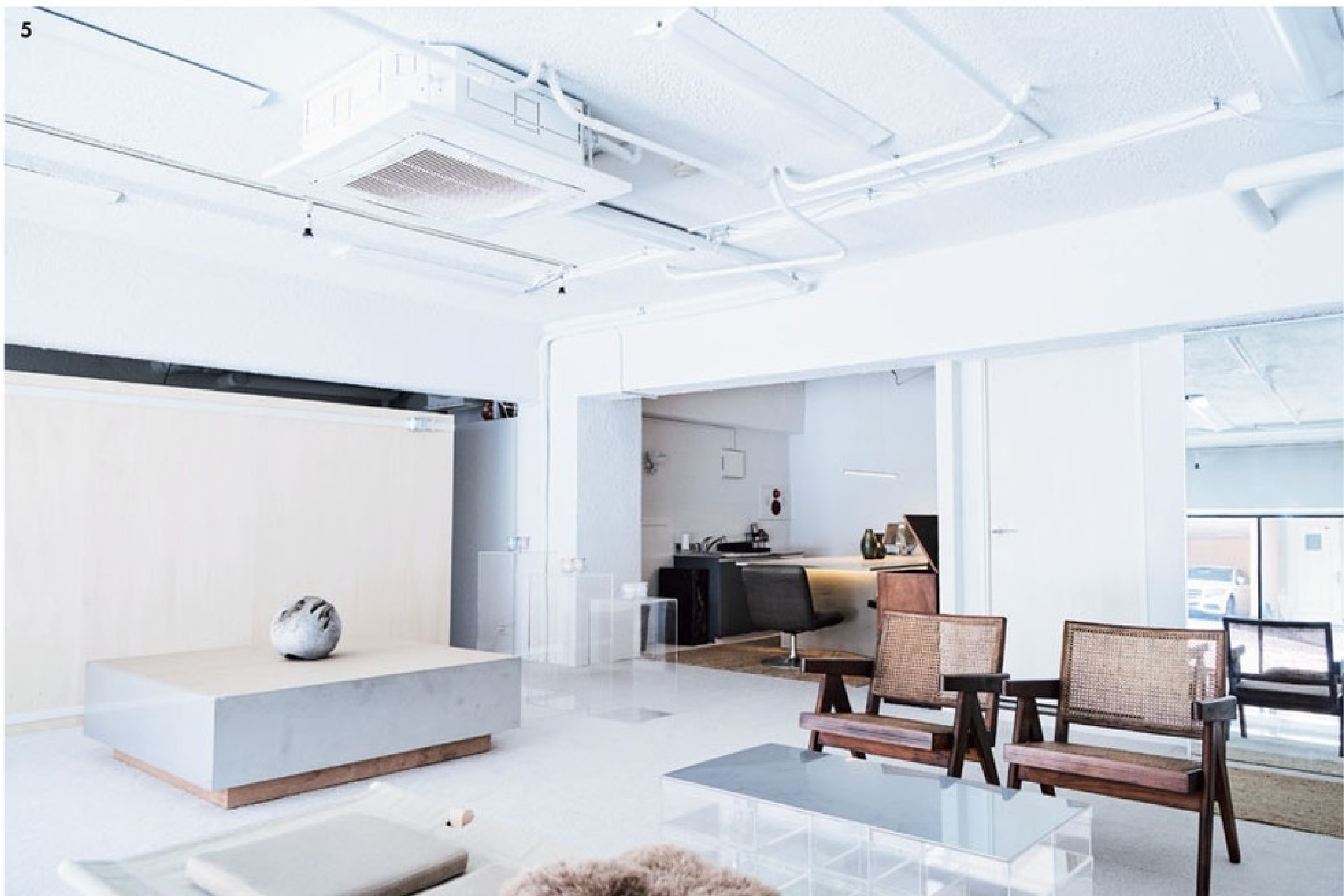
셋타에 스니커즈를 접목한 고에몬의 신발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본적이 있을 것이다.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벌써 신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호 <고아웃>에 소개한 적도 있다.

고에몬은 '일본의 전통과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2018년에 설립하였다. 첫 제품으로 출시한 셋타와 스니커즈를 접목한 'unda'는 국내 최대급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Makuake에 소개됐다. 1주 만에 2000만엔을 넘는 지원을 모았고, Makuake Award 2019에서는 금상을 수상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에어 솔의 착용감과 좌우가 없는 형태로 신발을 바꿔가며 신을 수 있어 아웃솔의 수명이 길어지는 등 화제를 모았다. 7월에는 'unda'의 내수 타입인 EVA(이브이에이)가 출시되어, 더욱 주목을 모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에몬은 샌들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디자인 회사다. 고에몬이 만들고 있는 두 번째 모델은 키리코와 더블 월의 글라스 'Fuwan'을 발표하였고, 앞으로는 식칼이나 초롱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도립공예 고등학교의 동급생이었던 두 사람의 젊은 재능, 오오니시 칸과 타케우치 켄타가 만든 제품 디자인 유닛이기도 하다. 사무실도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과 시공을 마쳤다고 하니 철학 또한 명확한 것이 틀림없다. (내부 가구까지) "뭐든지 처음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과 영화, 홈페이지의 작성 등도 직접 하고 있다. 지금은 팀이 5명으로 늘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가전제품도 만들어보고 싶다." 최근에는 이시가키섬이나 아이치에 리트리트 시설을 만들고 있고, 특이한 소재로 식칼을 제작하고 있다. 그들의 바람은 결코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닌 듯하다.

차와 자전거, 볼펜, 카메라까지 디자인한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도 개성이 있듯이,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의 전통과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고에몬의 시도에서 디자이너의 자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물건, 공간, WEB 제작까지, 문화를 중요시하며 장르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재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의 나이 20대, 지금부터 그들의 앞날을 응원해보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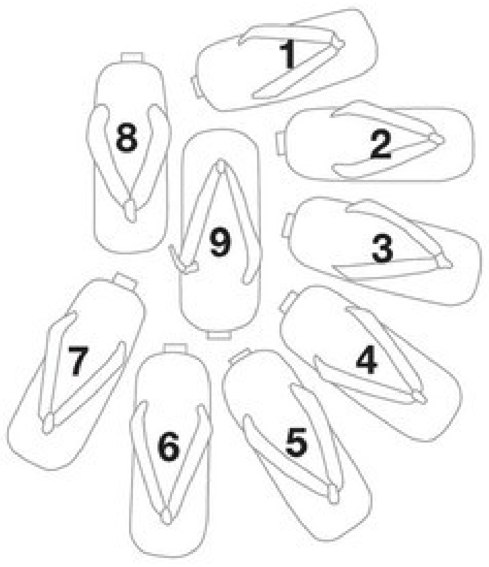
1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오오니시 칸(왼쪽)과, 컨셉터인 타케우치 켄타. (오른쪽 안쪽) 최근에 같은 공예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로운 멤버가 합류했다. (우측 앞쪽), 각각 공통점이 있는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이 흥미롭다.
2 'unda'는 'Makuake Of The Year'와 'JIDA Museum Selection' 등을 수상했다.
3 1980년대의 카세트 콤보를 Bluetooth 스피커로 사용한다. 이러한 독특한 관점에서 고에몬 특유의 감성이 느껴진다.
4 사무실에는 게렌데바겐과 크로몰리 프레임 자전거 등, 전통적인 디자인의 제품이 많다.
5 자신들이 시공과 디자인까지 직접 설계한 사무실은 명작 의자의 리프로덕트 제품과 밴 무프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BRAND PICK UP | **GOYEMON**

브랜드를 알리게 된 과거의 협업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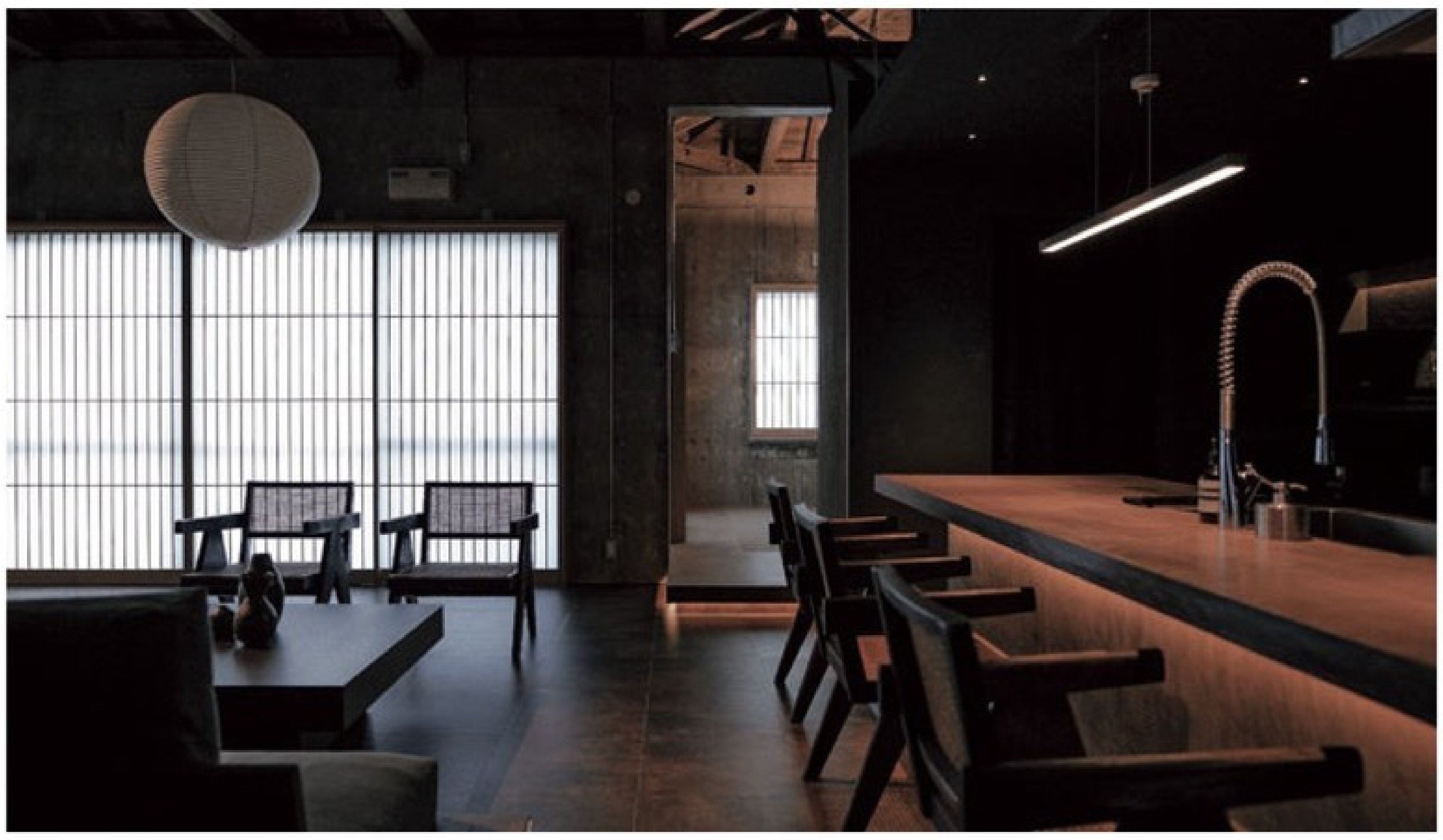
지금까지 출시한 수많은 협업 제품을 소개한다. 끈과 풋베드가 아무리 달라져도, 셋타와 스니커즈가 크로스오버된 디자인은 한눈에 고에몬의 'unda'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B'2nd와의 공동 작품. 끈을 가죽으로 제작했다. **2** 마나스타시와의 공동 작품, 헴프 × 오가닉 코튼을 풋베드에 사용했다. **3** 스노우 피크와의 공동 작품, 끈은 웨어에도 사용되는 오가닉 코튼 원단으로 되어있다. **4** 숏과의 공동 작품, 진짜 뱀가죽으로 되어있다. **5** 에디피스와의 공동 작품, 얼핏 보면 심플하지만, 미드솔이 올 클리어 사양으로 되어있다. **6** 저널 스탠더드 릴룸과의 공동 작품, 카키색 파나마 메시 상판을 사용했다. **7** 퍼스트 핸드와의 공동 작품, 밝은 색감이 특징이다. **8** 유니클로 아사쿠사의 오픈 기념 전시용으로 만든 비매품. **9** 덴햄과의 공동작품에서는 데님을 사용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키리코

'Unda' 다음으로 출시할 'Fuwan'은 키리코에 더블 월을 조합하여, 키리코 잔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그대로 살린 모델이다. 이 역시 Makuake에 출시하여 주목을 모았다.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맨손으로 잡아도 뜨겁지 않다. 결로가 잘 생기지 않고, 보온성과 보랭력이 장기간 유지된다. 180mL, 내열 온도 차 120°C 컬러도 다양하게 출시할 예정이다. 1만3200엔



류큐 구조의 단층집을 개조한 임대 건물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에 2022년에 오픈한 임대 건물도 고에몬이 프로듀싱했다. 숙소에 담긴 문화를 즐기기 위해 류큐 구조의 단층집의 지붕과 벽 등, 오래된 부분을 그대로 남기고, 오키나와의 전통문화 '도로소메'를 테마로 리모델링했다. 고에몬 다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온천 여관을 업그레이드한 리트리트 시설

류큐의 임대 건물에 이어, 지금은 아이치현 우라 군에 있는 여관의 욕실 부분을 개조하여 카페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공간의 특징은 시야 가득 펼쳐지는 태평양의 절경을 보며 욕탕에 몸을 담그듯이 족욕을 하며 카페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숙박도 가능하고, 올가을에 오픈 할 예정이다.

고에몬의 사무실 겸 아틀리에

이 공간은 전부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쇼룸인 우측 공간은 디자인이 좋은 가구와 집기가 있고, 팝업 스페이스와 스튜디오 임대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을 중시한 색다른 식칼도 출시 예정

이 모델은 아직 정보 미공개 상태인데, 끈질긴 취재 요청으로 게재를 허락받은 식칼이다. 의외의 소재로 되어있어서, 깜짝 놀랄만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Makuake에서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BRAND PICK UP | **GOYEMON**

고에몬의 사무실 겸 아틀리에

이 공간은 전부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쇼룸인 우측 공간은 디자인이 좋은 가구와 집기가 있고, 팝업 스페이스와 스튜디오 임대로 활용하고 있다.

고에몬의 협업 제품 컬렉션 UNDA의 시그니처 및 협업 모델

앞으로도 재미있는 아이템이 기대되는 브랜드 고에몬. 하지만 역시 'Unda'가 제일 기대되는 건 사실이다. 내구성이 향상된 TOUGH, 7월에는 EVA도 출시 예정이니, 새로운 모델도 주목하길.

UNDA

브랜드의 대표작인 셋타 × 스니커즈. 저반발 쿠션으로 PU와 에어솔의 미드솔로 착용감이 뛰어나다. 발가락에 파고드는 부분이 없고, 통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쾌적하다. 1만9250엔

UNDA TOUGH

Unda를 아웃도어에서도 신을 수 있게 100% 나일론 섬유로 독자 개발한 원단을 사용했다. 내구성은 물론이고, 적당한 쿠션으로 착용감이 뛰어나다. 2만2000엔

UNDA EVA

시리즈 처음으로, 뛰어난 내수성을 갖춘 모델. Unda 원단의 쿠션과 좌우 대칭 등의 시그니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 50%의 경량화를 마친 모델이다. 뛰어난 착용감 덕분에 기분까지 좋아진다. 7월 출시 예정. 1만1550엔

PEACE AND AFTER
UNDA

스트리트 컬처를 축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와 문화를 융합하는 패션 브랜드, '피스 앤드 애프터'와의 두 번째 협업. 패턴이 들어간 끈이 신선한 느낌을 준다. 출시 미정. 2만3100엔

FIRSTHAND
UNDA

서스티너블을 테마로 하는 컨셉 스토어, 퍼스트 핸드의 별주 모델. 풋베드는 나일론 원단이라 마찰에 강하다. 7월 중순 출시 예정. 2만3100엔

WHITE MOUNTAINEERING
UNDA

화이트 마운티니어링 오리지널의 전통적인 목조 패턴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자가드 원단을 사용했다. 또 다른 '일본'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다. 착용감은 역시 뛰어나다. 3만5200엔

JOURNAL STANDARD RELUME
UNDA KONJOU

'UNDA'의 모양은 그대로 살리고, 풋베드와 끈의 컬러를 네이비로 통일한 릴룸 특유의 클래식함이 특징이다. 시크하지만 "눈 위를 걷는 듯한 푹신푹신함"은 그대로 살렸다. 2만2000엔

JOURNAL STANDARD RELUME
UNDA KURO

인라인보다 더욱 깊은 블랙 솔, 끈을 베이스로 하여 블랙 컬러로 통일했다. 전체적으로 올 블랙 컬러로 변경한 사양으로 한층 더 깊이가 있다. 2만2000엔

JOURNAL STANDARD RELUME
UNDA HEICHA

매회 인기였던 릴룸의 별주 모델. 인라인의 블랙 솔과 끈을 베이스로 하여, 브라운 컬러의 파나마 메시 상판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휴양지에서 신으면 더욱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것이다. 2만2000엔

GOYEMON
UNDA SUMI

SUMI의 이름대로 '숯'을 연상하는 블랙 컬러가 특징인 인라인 모델 'UNDA'. 모던한 디자인과, 새끼발가락과 뒤꿈치가 나오는 전통적인 착용법이 특징이다. 2만350엔

EDIFICE
UNDA TSUKI 2.0 TOUGH BLACK

에디피스 별주로 제작한 TSUKI 2.0 TOUGH BLACK 에디피스 별주로 제작한 TUSKI 시리즈의 이번 시즌 모델. 나일론 100%로 만든 내구성이 우수한 풋베드를 사용했다. 2만3100엔

EDIFICE
UNDA TSUKI 2.0 TOUGH SUMI

SUMI라 불리는 인라인의 블랙 컬러에 에디피스의 별주 올 클리어 솔이 만나 신선한 느낌을 준다. 2만3100엔

YouTube를 체크!

GO OUT FISHING에서 연재하는 영상은 YouTube를 확인해 주세요. 낚시부원들의 리얼한 고군분투를 볼 수 있습니다.

GO OUT FISHING

모든 장비를 빌려 플라이 피싱에 도전하기!

수많은 유료 낚시터가 있는 토치기, 후쿠시마 지역. 그곳에 국내 최대급의 유료 낚시터에 새로운 숍이 오픈했다. 이 숍은 반려견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및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GO OUT FISHING> 크루가 실제 이곳을 방문한 후 생생한 체험기를 소개한다.

EDITOR KIM HAE GIL **PHOTOGRAPHER** TAKUMA UTOO **REPORT & TEXT** TOSHIAKI ENDO(EDITR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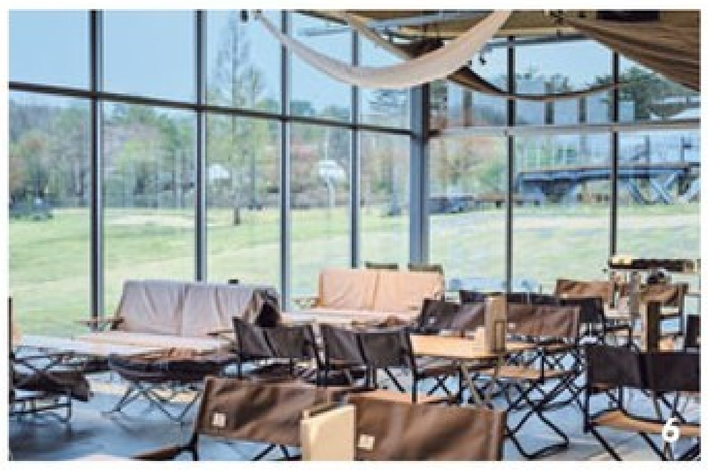
국내 최대급 크기의 낚시터가 있는 곳으로 출발!

후쿠시마현에 있는 '엔젤 포레스트 시라카와 코겐'은 전국의 애견가에게 인기 스폿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개와 함께 숙박이 가능한 코티지를 비롯하여, 자연 그대로의 넓은 부지 내에 애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최대급 크기의 플라이 피싱을 즐길 수 있는 낚시터로 동북 지역의 첫 스노우 피크 직영점이 오픈했고, 낚시 도구 브랜드인 팀코와 협업한 숍 '스노우 피크 시라카와 코겐'이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플라이 피싱용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팀코가 취급하는 낚싯대, 릴, 낚싯줄 세트를 1650엔부터 렌탈할 수 있고, 렌탈로는 10만엔을 넘는 고급 낚싯대까지 빌릴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숍이라고 한다. 스틸헤드, 무지개송어, 곤들매기, 민물송어, 산천어 등 다양한 송어류를 상대로, 한 번쯤 시도해 보고 싶은 낚싯대와 릴, 낚싯줄을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낚시 도구에도 푹 빠져있는 <GO OUT FISHING CLUB>. 그런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해 듣고 낚시터를 찾았다. 류야와 GOTOH, 미야기현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피싱 팀, 샤크헌터의 켄이 함께했고, 팀코의 호리이가 안내를 맡았다.

렌탈 서비스 경험하기

1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렌탈 코너로 서둘러 가는 팀원들. 바로 낚싯대를 손에 들고, 써보고 싶은 낚싯대를 고른다. 정가 2만엔의 베이직 모델부터 정가 18만엔의 스페셜 모델까지 약 20가지 종류 중에서 고를 수 있다.
2 낚싯대 다음은 릴과 낚싯줄. "플라이 라인의 정가는 1~2만엔으로 비싸기 때문에, 써볼 수 있어서 좋다." (류야)
3 초심자용 세트에는 완성품 플라이가 달려있다. 따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
4 "가장 비싼 낚싯대와 릴, 낚싯줄을 조합하니 엄청난 가격이 되었다.(웃음)" (GOTOH)
5 6 세련된 공간 속에, 스노우 피크의 의류, 아웃도어 용품부터, 팀코에서 취급하는 낚시용품이 늘어서 있다. 또한 숍 안에는 "SNOW PEAK CAFE' SHIRAKAWA KOGEN"도 설치되어 있다. 직접 만든 아웃도어 카레라이스가 맛있다!



눈앞의 호수로 출발!

7 호수가 커다랗고 자유롭게 펼쳐져 있어서, 입질이 좋은 개체가 많다. **8 9** 가장 먼저 물고기를 잡은 사람은 GOTOH다. 예쁜 무지개송어를 낚았다.
10 각각 조과를 잡는 와중에, 켄의 낚싯대가 갑자기 크게 휘었다. 샤크헌터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60센티의 민물송어를 잡았다. **11** 혼자서 벼랑에 있던 류야에게도 대형 무지개송어의 입질이 왔다.
12 안내를 해준 호리이도 계속해서 캐스팅을 이어 나갔다.

7월 중순에는 캠핑 필드도 오픈 예정

'스노우 피크 시라카와 코겐'에는 플라이 피싱용 태클 렌탈 이외에도, 스태프의 서비스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7월 중순에는 '스노우 피크 시라카와 코겐 캠핑 필드'도 오픈 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에는 'CAMP FISHING'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왼쪽부터) **류야(타마호 피싱 에리어 디렉터)** 파카, 컷앤소, 팬츠, 슈즈, 캡 모두 네이탈 디자인, 이너 파카 예티나 × 야마나미 상점, **GOTOH(네이탈 디자인 디렉터)** 마운틴 재킷, 다운 재킷, 셔츠, 티셔츠, 팬츠 모두 네이탈 디자인, 슈즈 뉴발란스, **켄(샤크헌터 디렉터)** 마운틴 재킷, 티셔츠, 캡 모두 샤크헌터, 팬츠 더 코로나 유틸리티, 슈즈 호카, 선글라스 스미스, 백 야마다 팩스, **Sunshine 호리이(팀코 영업)** 스웨트 샤크헌터, 셔츠, 팬츠, 파우치 전부 폭스파이어, 티셔츠 샤크헌터 × 폭스파이어, 슈즈 킨 × 폭스파이어, 캐프 서비스, 선글라스 사이트 마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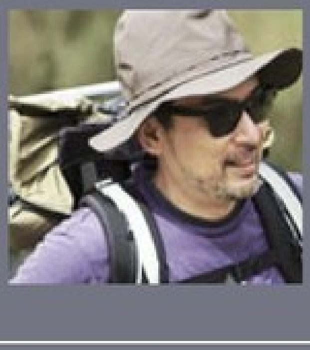
Lookin' Back On Trail *146
LUXURY LITE
UltraLite Cot

요트의 소재를 사용한 초경량 코트

EDITOR KIM HAE GIL **PHOTO & WRITER** TAKATOSHI AKUTAGAWA

옛날부터 바닥생활에 익숙한 동양인에 비해 서양인은 침대생활에 익숙한 생활문화를 가졌다. 서양인 중 바닥생활을 하는 것은 노예계급이나 하층민이 생활하는 양식이었다. 이러한 생활문화 때문에, 캠핑을 갈 때도 역시 침대는 필수였다. 그래서 서양의 캠핑 기어 시장은 캠핑베드와 코트의 인기가 높았고, 또한 다양한 타입을 출시하고 있었다.
캠핑용 코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귀족이나 상류층이 사파리에 갈 때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한, 이른바 하이 코트 타입으로 병원의 베드로 사용된 것이 유래되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간용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들것이라고 불리는 로우 코트 타입으로, 군용 코트의 생산으로 성공을 거둔 미국 메인주의 바이어 사가 1930년대에 출시한 '컴포트 코트'가 그 시초다. 들것처럼 원단의 양쪽에 프레임을 넣어, 그것을 지지하는 다리 부분의 원단에 텐션을 거는 심플한 구조로 구성 파츠가 적기 때문에 경량화하기 쉬웠고, 잘 부서지지 않으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 높이는 포기해야 했지만, 야외에서 취침을 위한 간이 침대로는 아주 쾌적했기 때문에, 이 타입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만들며, 캠핑 기어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하지만 긴 거리를 걷는 백패커나 숲을 걷는 사냥꾼들에게 있어서 코트는 부피와 무게 때문에 사용하기 까다로운 존재였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코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웃도어를 취미로 하며, 오랜 시간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쌓아온 텍사스의 브루스 워렌도 그 중 하나였다.
1946년에 태어난 브루스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1964년에 미주리 대학 이공학부에 입학한다. 코프 프로그램(기업에서 배우는 인턴십 비슷한 것)으로, 항공기 제조 브랜드인 맥도널 더글러스 사에 근무한 그는 전투기의 제조 광경을 눈으로 보며, 전쟁의 카운터 컬처이기도 한 히피 운동과 백패커 붐을 온몸으로 느끼며 청춘 시절을 보냈다. 약 5년간 일한 맥도널 더글라스를 퇴직하고, 친구와 요트 등의 보트를 판매하는 숍을 운영했다. 그리고 이 공학적 지식과 요트에 관한 지식이 약 30년 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
1990년대에 시작된 울트라 라이트(UL) 하이킹의 붐은 도구를 더욱 경량화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원단에도 주목하게 했다. 그중 하나가, 세일 클로스라고 불리는 요트의 범천에 사용되는 소재이다. 현재 DCF라고 불리는 다이니마 섬유를 라미네이트한 필름 원단도, 원래는 요트용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 엑스팩이라고 불리는 보강이 들어간 필름 원단도 이와 같다. 그는 카본과 케블라로 보강된 매우 튼튼한 세일클로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에어크래프트 알루미넘(이른바 듀랄루민) 재질의 이스턴 폴을 조합하면 초경량 코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출시한 이른바 '울트라 라이트 코트'는 2004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극한까지 장비중량을 낮추려고 하는 UL기준에서 2파운드(약 910그램)도 되지 않는 코트는 정말 순식간의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백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게인 이 초경량 코트는 아웃도어 마니아에겐 사막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이 제품에 깊은 관심을 보인 회사는 슬리핑 매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서머레스트였다. 서머레스트는 이 경량 코트를 자사의 라인업에 조합하길 원했다. 결국 2012년에 이 권리를 브루스에게 양도받아 서머레스트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발명가라 칭하는 브루스는 지금도 신제품 발명에 여념이 없지만, 이 코트를 뛰어넘는 걸작은 아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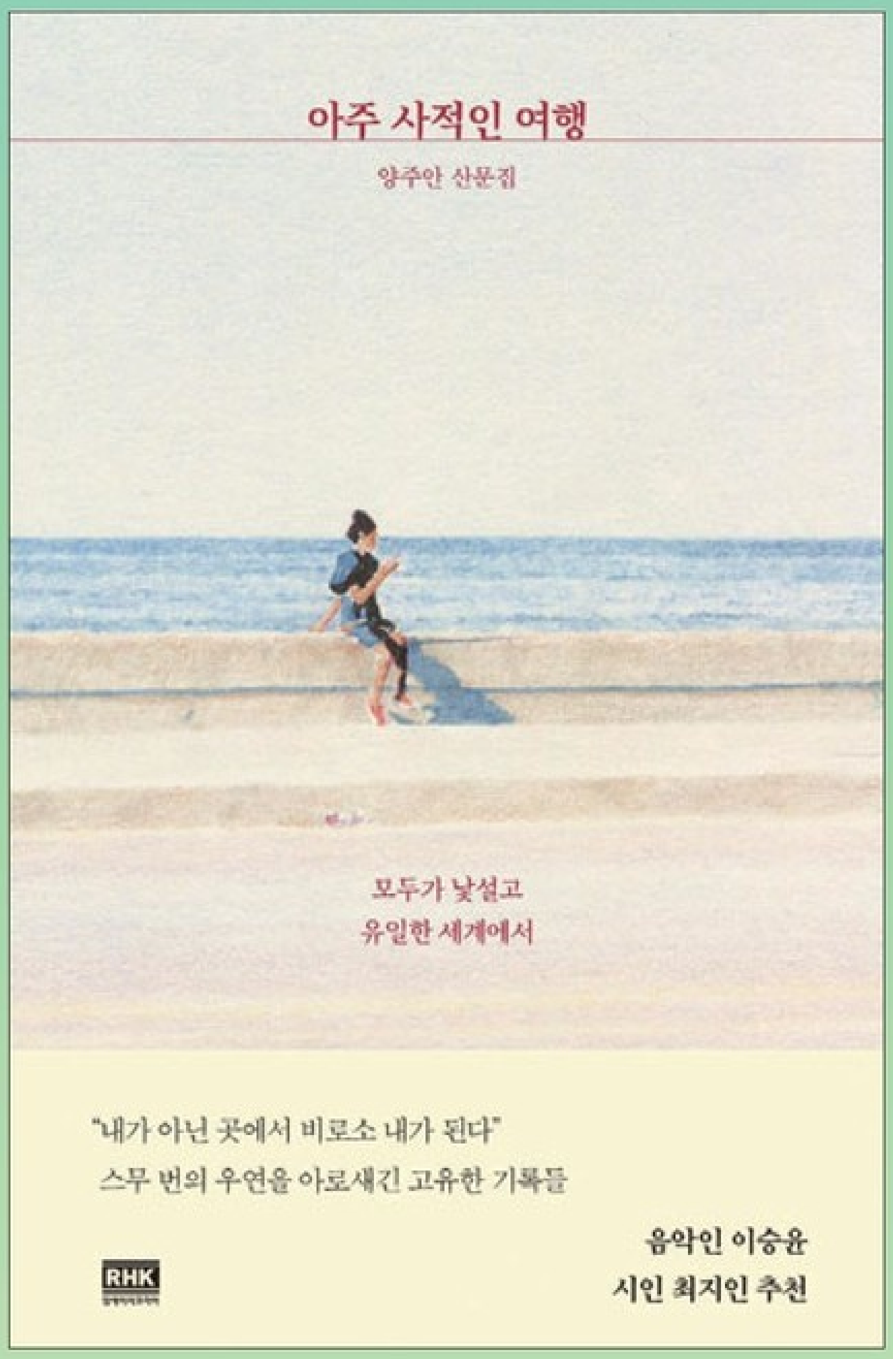
PHOTO & WRITTEN BY
아쿠타가와 다카토시
Instagram @takatoshi_akutagawa



JOURNEY PHILOSOPHY

본격적으로 여행을 만끽할 시기다. 때로 저자들은 철학적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짚어 보기도 한다.

EDITOR KIM YOUNG HA



아주 사적인 여행

양주안 | 알에이치코리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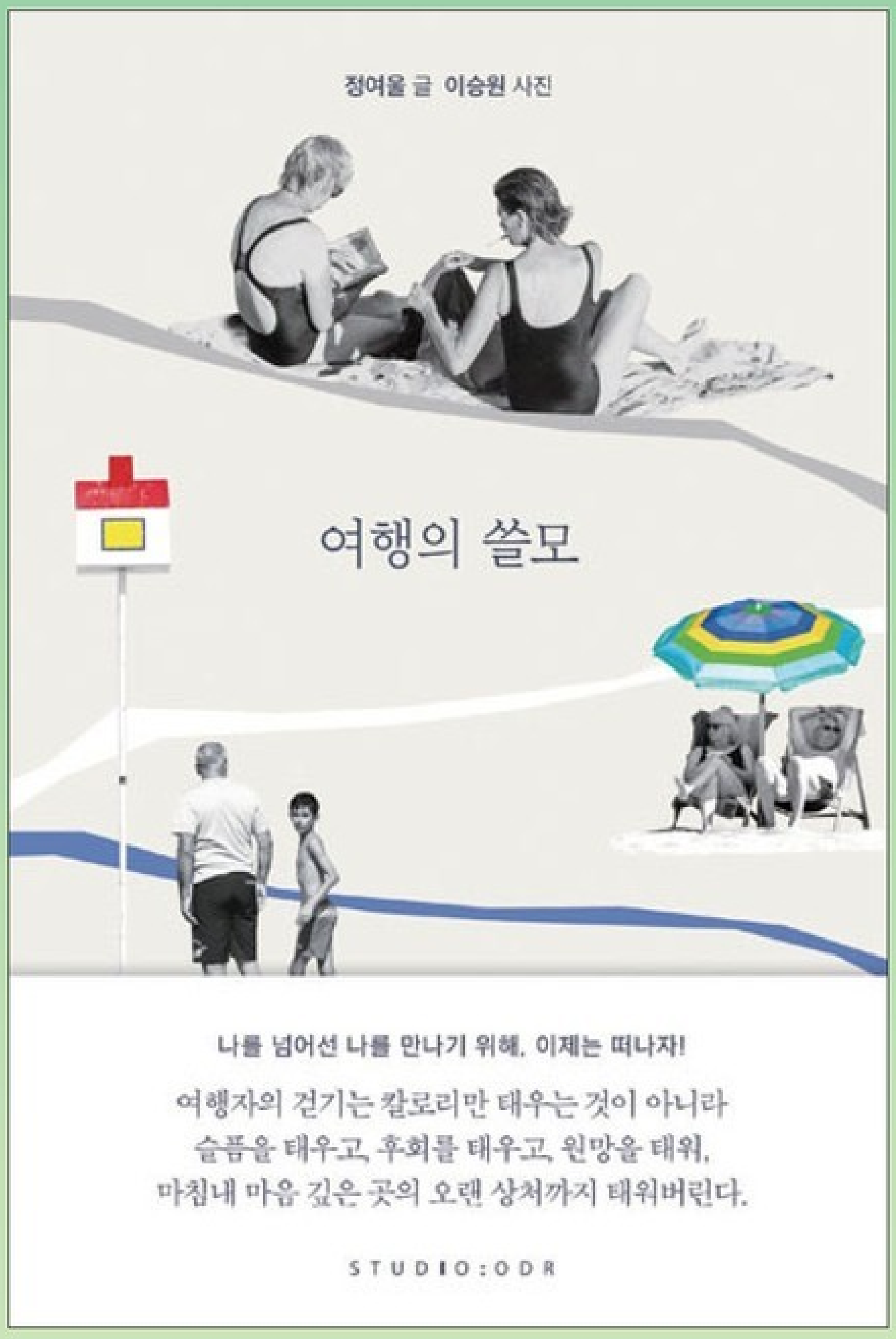
'진정한 여행'이란 무엇일까. 모두가 여행에 있어 각자의 정답을 갖고 있겠지만 공통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풍경'일 것이다. 한때는 로망 가득한 마음으로, 또 한때는 직업으로 여행한 양주안 작가는 낯선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자신과 대화를 나눈 기억을 풀어놓는다. 큰 관광지보다 작은 삶을 궁금해하며 내적 세계를 넓혀가는 저자의 이야기는 마치 성장담 같기도 하다. 여행자란 낯선 감각을 얻고 계속 발걸음을 옮겨 또 다른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일 것이다. 저자는 유럽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삶에서 변한 건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도시, 그다음 도시로 떠나며 세계 곳곳의 고유하고 작은 풍경과 사람에 스며든다.

여행의 시간

김진애 | 창비

—

도시건축가로서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정치활동에 매진해온 김진애가 인생의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여행의 비법을 책으로 담았다. 도시건축가라는 직업 탓에 세계 곳곳을 찾아가 일하며 여행해온 저자는 일생 동안 터득한 여행의 비법을 공유하며 우리 각자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끈다. 커플 여행, 가족 여행, 반려동물과의 여행, 그룹 여행, 출장 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여행에 통달한 저자가 농밀한 체험으로 가득했던 여행의 시간들을 하나씩 펼쳐놓는다. 저자 특유의 시원시원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문체 속에 여성 리더로서의 배포와 기개가 느껴지는 한편으로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삶에 대한 사려 깊은 통찰이 짙은 여운을 남긴다.



여행의 쓸모

정여울 | 스튜디오오드리

—

베스트셀러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의 정여울 작가가 새로운 여행 에세이를 출간했다. 여행이 삶의 일부였던 작가에게 떠나지 못하는 시간은 유독 길고 답답했다. 그러나 어느 시간도 의미 없게 흘러가진 않는 법. 그 시간 동안 작가는 다시 떠날 때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주어진 장소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며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지 곱씹어보았다. 그렇게 여행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보내고 나서 다시 떠날 수 있게 되자 작가는 서둘러 타국으로 향하는 티켓을 끊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은 비록 과거에 비해 준비할 게 많아 번거롭긴 했지만,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눈부시게 빛났고 더욱 황홀했다. 다시 떠나게 된 순간의 감동과 감격을 고스란히 담아낸 <여행의 쓸모>는 힘들었던 팬데믹 시기를 통과한 후 마침내 여행의 자유 앞에 선 독자들을 향한 정여울 작가의 조심스러운 부추김이자 따뜻한 동행의 손길이다.

덥습니다.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도시의 열기를 잠시 식히지만, 이내 곧 뜨거워집니다. 이럴 때는 계곡이 최고입니다. 발만 담가도 온몸이 쭈뼛주뼛 서는 듯한 차가운 계곡물은 이내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더위가 없었다면 이곳이 생각나지 않았겠죠? 계곡의 자갈과 돌 위를 걷거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힘이 꽤 들고 발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적이 닿지 않은 곳이기에 깨끗하고 맑은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걷다가 그늘이 보이면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내리쬐는 해를 길잡이 삼아 걸었던 그 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이날 제 귀를 간지럽히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합니다.

EDITOR
KIM HAE GIL

Walk Radio

WALK. 35
부연동 계곡

안녕하세요. <고아웃> 코리아 매거진 에디터 김해길입니다. 이 칼럼은 평소 제가 걸으면서 자주 듣는 곡을 소개하고, 마음속에 저장해놓은 기억 그리고 삶의 흔적을 음악과 함께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모쪼록 제가 추천하는 음악과 함께 소중한 '걷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lRide
HYBS

—

날씨가 좋은 날은 왠지 집에만 있기엔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날은 약속이 없는 날이 많더군요. 애꿎은 휴대전화 번호 목록을 뒤져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인스타그램을 염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날씨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햇살이 내리쬐면 내리쬐는 대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헛헛함이 늘 자리 잡고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어릴 적 책에서 배웠던 철학가의 말이 자연스럽게 세뇌가 된 것일까요. 힘차게 구르는 페달 질에 잡다한 생각과 번뇌도 모두 힘차게 날려 버립니다. 생각이 많아질 땐 몸을 써보세요.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될 거예요.

Crazy
HOPE TALA

—

타인의 시선에서 어떤 일에 골몰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던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고 싶은 일은 줄고, 해야만 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 같아 때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아주 이상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세상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을 뛰어넘은 책임감, 성실함 뭐 그런 것일까요? 다른 의미에서 "미쳤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무와 냉철함, 삶의 단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Do Your Thing, Babe!
MICHAEL MEDRANO

—

"나 때는 말이야" 요즘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제 마음속의 금기어 1순위가 되어 버렸죠. 시대는 변했고, 삶의 기준과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어른 세대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듯, 지금의 우리 역시, 미래의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과는 다르죠.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 대신 "너희 때"를 이야기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만, 그저 그 노력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청춘은 늘 어떤 대상을 찾고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지금 하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청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Toroka
CHRISTIAN KURIA

—

일상은 변함없이 무료하고 반복됩니다. 그 안에서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는 과정이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산 우리에게 휴가라는 달콤한 휴식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니 주변에서도 부지런히 휴가 계획을 짜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일분일초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의지가 얼굴에 확연히 드러나더군요. 일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달라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휴가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행복할지 겪어보지 못해 확신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뭐든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쪽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일상을 탈출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네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마음껏 비우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After The Sun
RINI

—

새해가 밝으면 마음속에 간절함을 담아 해를 보고 소원을 빕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를 바다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에 보냅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짐 여전히 잘 지키고 계시는가요? 2023년도 1/2이 지났으니, 이제부터라도 '해돋이'의 시간보다 '해넘이'의 시간을 살뜰히 챙겨야겠습니다. 피곤을 달고 사는 현대인은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는 일보다 밤으로 바뀌는 해넘이를 보는 일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넘이 시간을 꼼꼼히 챙기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뜻밖의 시간 차가 그 감동을 더 해줍니다. 오늘부터 해넘이의 시간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가끔이라도 낭만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MOVIE RECOMMENDS FOR LONG SUMMER

이 여름이 기대될 다채로운 장르의 영화 3편. 더 많은 영화를 소개하지 못해 아쉬울 뿐.

EDITOR YOO SUNG **COURTESY OF** NETFLIX

왬! (WHAM!)

2023 | 넷플릭스 제공

—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성공했던 그룹 '왬!'의 일대기를 생생하게 녹여낸 다큐멘터리 영화. 전설적인 보컬로도 잘 알려진 조지 마이클이 1982년, 불과 10대의 나이에 앤드루 리즐리를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이들에게는 화려한 미래가 예견돼있었다. 짧고도 굵은 4여년의 활동 기간을 한 편의 영화로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단 4년만에 시대를 초월하는 최고의 팝송 명곡들로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꿈의 무대라고 여기는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마지막으로 혜성처럼 사라져버린 왬!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가 연출을 맡았고 사이먼 핼펀이 프로듀서로 참여하였다.

쿼터백 (QUARTERBACK)

2023 | 넷플릭스 제공

—

미 프로 풋볼 리그인 NFL과 넷플릭스가 첫 번째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시리즈물 '쿼터백'. 이 새로운 필름은 사상 최초로 마이크를 몸에 부착하고 시즌 전 게임에 출전한 쿼터백들을 추적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쿼터백 선수들의 필드 라이프는 물론 가족과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까지 경기장 안팎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리그 우승과 슈퍼볼 MVP상 수상에 더해 '토탈 오펜스' 부문에서 NFL 기록을 경신한 마홈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이끌어 NFL 역사상 최대 점수 차 역전승을 주도하고 있는 NFC 북부 디비전 우승을 만들어낸 커즌스, 애틀랜타 팰컨스의 선발 쿼터백 자리를 넘겨받은 마리오타 등 2022년 시즌을 장식한 주요 이슈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빼곡히 담았다.

하트 오브 스톤 (HEART OF STONE)

2023 | 넷플릭스 제공

—

베일에 싸인 글로벌 평화유지 조직이 보유한 가장 가치있고 위험한 무기를 훔치려는 해커를 막기 위해 이 곳에 속한 첩보원 레이첼 스토은 고군분투한다. 톰 하퍼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갤 가돗이 주연인 레이첼 스톤 역을 맡았다. 사전에 공개되었던 티저를 보면 장엄한 액션 블록버스터 보다는 진중하고 밀도있는 스파이 스릴러 물로 보여진다. 기존 '007시리즈'로 대변되는 첩보 영화 장르에 흥미를 느낀 사람이라면, 이 영화 역시 충분히 매력을 느낄 법. 오는 8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JULY & AUGUST

<고아웃>이 엄선한 7, 8월의 이벤트 & 전시 소식

EDITOR KIM HAE GIL

2022.07.28~ 2023.08.06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대한민국 최초 계곡 축제 개최를 기념하고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보자는 취지로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디지털 세대에겐 호기심을 자극하여, 신구세대가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자는 목적을 두고 추억과 트랜드를 접목한 시원한 여름 축제이다.

문의 jangsu.go.kr/

2023.03.25~ 2023.11.04

김천나이트투어 '직지골야행'

김천의 관광지 방문 및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야간관광프로그램이다. 계절별 수확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지역 농산물 수확체험을 시작으로 괘방령 장원급제길 소원빌기, 직지사 아래 직지상가 맛고을에서 김천지역의 음식을 맛본다. 밤이 되면 직지문화공원 야경 아래 김천의 특산물로 만든 간식거리를 맛보며 다양한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nighttour.or.kr/

2023.07.29~ 2023.08.06

봉화은어축제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은어! 은어와 사람,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생태축제! 청정 봉화의 맑고 깨끗한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은빛 은어의 향연!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 재미와 건강, 휴식이 있는 오감만족 축제이다.

문의 bonghwafestival.or.kr/

2022.07.21~ 2023.08.06

보령머드축제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체험! 국적이나 인종,언어,연령 등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여름축제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머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일반존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패밀리존으로 구성되어 있다.낮에는 머드를 흠뻑 적시며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밤에는 다양한 공연,불꽃쇼 등으로 낭만의 여름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의 mudfestival.or.kr/

2023.08.08~ 2023.08.11

섬의 날

국민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성장 동력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제정된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다.

문의 2023island.co.kr/

2023.08.26~ 2023.10.22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1883 꺼지지 않는 개항의 밤 이야기! 2023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인천개항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 야간 개방과 아름다운 빛의 거리 등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과 함께 잊지 못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낭만 가득한 가을밤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문의 culturenight.co.kr/

*본 행사는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UT OF OUTDOOR

아웃도어 안팎을 넘나드는 브랜드의 최신 소식

EDITOR KIM YOUNG HA

TURBAT

우크라이나 Gorgany사의 자체 브랜드로 2014년 설립된 투르밧은 편안하고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 및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를 제공하는 선두 브랜드다. 현재 투르밧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에 진출했다. 투르밧은 트레킹과 여행은 물론 도시와 일상의 경계에 적합한 아웃도어 캐주얼의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다. 생산에 대한 자신감, 창의적 엔지니어링을 통해 유니크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르밧은 자유롭고 진실되며 행복해지기 위한 여행가에 의한 디자인을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전개할 것이다. **문의** annapurna.co.kr

BANG & OLUFSEN

뱅앤올룹슨이 베오사운드 A9 새로운 세대를 공개했다. 뱅앤올룹슨의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베오사운드 A9은 새로운 블랙 앤트러사이트, 골드 톤, 그리고 내추럴 컬러로 만날 수 있으며 뱅앤올룹슨의 모차르트(Mozart)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장착으로 세대를 넘나드는 홈 오디오 셋업이 가능해 미래를 보장하는 뱅앤올룹슨 제품군에 새롭게 합류한다. 5세대 베오사운드 A9에 적용된 모차르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싱 능력과 메모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기능과 용량, 연결 기능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교체 가능한 모듈이 핵심이다. 모듈을 최신 버전으로 교체해 현재의 홈 오디오 세팅과 앞으로 선보일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탁월한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베오사운드 A9 5세대의 가격은 469만9000원부터 시작하며 컬러별로 가격은 상이하다.

문의 bang-olufsen.com

JBL

JBL이 'TOUR 시리즈'의 신제품 노이즈 캔슬링 무선 오버이어 헤드폰 JBL TOUR ONE M2를 선보였다. 최상의 프리미엄 사운드와 높은 편의성을 갖춘 제품군인 TOUR 시리즈의 신제품 노이즈 캔슬링 무선 오버이어 헤드폰 JBL TOUR ONE M2 는 출시 전부터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JBL TOUR ONE M2는 True Adaptive Noise Cancelling과 Hi-Res 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JBL Pro 사운드가 결합해 최상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무선 오버이어 헤드폰이다. 40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풍부하고 강렬한 저음과 섬세하고 짜릿한 고음 사운드를 넘나들며 고해상도의 사운드 품질을 제공한다. JBL TOUR ONE M2에는 하이브리드 마이크와 초당 최대 5만 회 가량의 사운드 자동 보정 기술로 주변 환경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는 트루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어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제공하며 최적의 오디오 경험을 선사한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갖춘 JBL TOUR ONE M2의 출고가는 39만9000원이며 삼성닷컴과 주요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harman.com

RANGE ROVER

레인지로버가 스포츠 럭셔리와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결합한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는 역대 최고의 강력함과 다이내믹함을 갖춘 모델로, 레인지로버의 고유 성능 및 정교함과 눈길을 사로잡는 심플한 디자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모던 럭셔리 퍼포먼스 SUV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최상위 라인업에 자리하며 스포티한 자세, 다이내믹한 성능, 당당한 존재감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의 뛰어난 성능을 뒷받침하는 독보적인 공기역학 디자인은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며, 기능성 경량 소재와 최첨단 기술 소재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한층 향상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문의 jaguarlandrover.com

BYREDO

바이레도(BYREDO)가 '로즈 오브 노 맨즈 랜드' 컬렉션 제품을 출시했다. 파피루스와 앰버 베이스에 매혹적인 터키 장미 앱솔루트가 중심인 따스하고 풍부한 장미향이 특징이다. 오드퍼퓸 이외에도 바디 워시, 바디 로션, 바디 크림과 같은 바디 케어 제품부터 헤어 퍼퓸, 핸드 크림, 롤온 오일 등 휴대가 용이한 제품들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바디 크림은 200ml 용량에 11만5000원이며, 바디 워시는 225ml 용량에 7만6000원이다. 로즈 오브 노 맨즈 랜드의 전체 컬렉션은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와 전국 바이레도 백화점 매장 그리고 SI빌리지(sivillage.com)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byredo.com

CARL HANSEN & SON

칼한센앤선이 빌헬름 라우리첸(VILHELM LAURITZEN) 건축과 함께 VLA61 모나크 체어(VLA61 MONARCH CHAIR)를 론칭했다. 1944년 당시 10피스만 생산된 빌헬름 라우리첸의 의자를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빌헬름 라우리첸은 평생 나비를 연구했던 유명한 나비 애호가로 모나크 체어도 제왕 나비(Monarch butterfly)에서 따온 이름을 붙였다. 풍성한 패브릭, 곡선형 팔걸이, 눈물방울 형태를 한 유기적인 바의 곡선이 특징이며, 가볍고 동시에 호화로운 예술적 표현을 보여준다. 작은 황동으로 마감된 의자의 발과 수작업으로 폴리싱한 관절 부분에서 라우리첸의 일관된 디자인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문의 carlhansen.com/en

VESPA

베스파(Vespa)가 완전히 새로워진 ALL NEW GTS를 공개했다. 새로운 GTS 제품군은 클래식하고 우아한 GTS 클래식(Classic), 스포티한 GTS 슈퍼 스포츠(SuperSport)와 최첨단 GTS 슈퍼 테크(SuperTech)의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ALL NEW GTS는 베스파 고유의 클래식함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한 최첨단 엔진과 베스파 최초의 스마트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MIA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더욱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스마트한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한 앞 서스펜션 구조와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선해 주행 안전성과 제동 성능을 향상시켜 디자인, 기능, 성능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제품이다. 베스파의 GTS 슈퍼 스포츠의 경우 125cc로 출시돼 다양한 컬러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베스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vespa.com/kr_KO

CENTRUM

센트룸이 '프로바이오 3종' 신제품을 한국에서 최초로 출시하였다. 이번 신제품 3종은 프로바이오 슬림 케어, 프로바이오 면역 케어, 그리고 프로바이오 나이트 케어로 현대인들의 건강 니즈를 반영해 제시하는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프로바이오 슬림 케어는 장 건강도 챙기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BNR17 유산균을 사용하고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롬을 배합했다. 프로바이오 면역 케어는 4중 기능성 포뮬러로 장 건강에 이어 면역 증진,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항산화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프로바이오 나이트 케어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수면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3종 모두 하루에 1캡슐 섭취로 간편하며, R&D를 통해 안정성을 높여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문의** gskshop.co.kr

EIDER

아이더가 푹신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아이카롱 폼을 적용한 저탄성 리커버리 여름 슬리퍼 '오브제 시리즈'를 출시했다. 오브제 시리즈에 적용된 아이카롱 폼은 아이더가 전략적으로 개발한 탄성 배율이 적용되어 반발력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충격 흡수를 극대화시켜 오래 신을수록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작가의 재해석을 통해 작품으로 확장된 매개체를 뜻하는 프랑스어 'objet'에서 영감을 얻어 감각적인 디자인도 반영했다. 오브제 시리즈는 클로그와 슬라이드, 조리 총 3가지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대표 제품인 클로그는 착용 시 실루엣이 슬림해 보이도록 스퀘어 디자인을 적용했다. 컬러는 바이올렛, 카멜, 블랙, 베이지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물에 젖지 않는 소재로 인해 여름철 야외활동 시 활용하기 좋다. 이외에도 층간 소음 방지용으로 실내에서 착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의** k-village.co.kr/eider

OAKLEY

오클리가 브랜드 시그니처를 강조한 썸머 아이웨어 4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오클리의 스테디셀러를 리디자인해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들로, 초창기 베스트셀러의 시그니처 디자인과 자체 개발한 첨단 기술을 적용해 아이덴티티를 부각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들은 오클리 특유의 스포티함이 돋보이는 렌즈와 프레임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뉴트로 등 MZ의 트렌디한 감성을 더해 색다른 매력의 실루엣을 완성했다. 그 중 '인코더 스트라이크'와 '케이토 화이트 골드'는 디자인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오클리의 정체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자체 개발한 피지오모픽 지오메트리(PhysioMorphic Geometry) 기술은 렌즈의 곡률을 높여 일체형과 전면 무테 등 디자인적 한계를 확장했고, 케이토와 인코더, 서브제로 등 꾸준하게 적용되며 오클리의 기술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인코더 스트라이크는 다목적 스포츠 아이웨어로 큰 주목을 받은 '인코더'의 후속 제품이다. 케이토 화이트 골드는 24K 렌즈로 더욱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며, 렌즈 최상단 부분의 강직도가 높아 공기 저항 및 충격에 강하다. 두 제품 모두 일체형 렌즈가 눈과 그 주변부를 넓게 보호해 안전한 활동을 돕는다. **문의** instagram.com/o.akley_hanam

ARC

러닝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는 ARC가 러너를 위해 새로운 제품을 발매했다. 강한 고정력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RUN CREW SOCKS는 심리스 쿠션이 탑재된 양말로 발가락 부분의 솔기가 느껴지지 않도록 직조하였으며, 장시간의 로드 러닝과 트레일 러닝을 포함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시 오래 착용하더라도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뛰어난 경량감을 자랑하는 DISTANCE TRAIL RUNNING CAP은 장거리를 달리는 러너를 위해 탄생한 모자로 휴대하기 좋도록 패커블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문의 arunningclub.com

TURKISH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튀르키예 문화관광부가 자전거 라이딩으로 즐기는 튀르키예의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지중해부터 에게해에 이르는 코스는 아름다운 자연과 고대 문명의 흔적을 따라 자전거로 여행이 가능하며, 특히 '자전거 친화적 숙박시설'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 주차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비와 청소 및 수리 공간 등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는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튀르키예는 17개의 장거리 자전거 루트인 유로벨로(EuroVelo)에 포함된 국가다.

문의 goturkiye.com

LEICA

라이카(Leica)가 Q시리즈의 신제품 Leica Q3를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라이카 Q3는 최고의 사진 및 영상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뛰어난 연결과 호환성을 갖춘 프리미엄 콤팩트 카메라이다. 사용 편의성 및 뛰어난 내구성과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고품질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콤팩트한 사이즈의 Q3는 휴대하기 쉬워 자연스럽고 스타일리시한 데일리 카메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라이카 Q3 카메라에는 내구성이 뛰어난 고해상의 3인치 틸팅 디스플레이가 갖춰져 다양한 각도에서 창의적인 촬영이 가능하며 576만 화소의 전자식 OLED 뷰파인더가 탑재되어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피사체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라이카 Q3는 전 세계 라이카 스토어, 라이카 온라인 스토어 및 공식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leica-store.co.kr

MOET & CHANDON

모엣 & 샹동이 '그랑 빈티지 2015'와 '그랑 빈티지 로제 2015'를 공개했다. 모엣 & 샹동의 그랑 빈티지 샴페인은 해당 연도의 뛰어난 포도로 만들어지며, 최소 6년의 셀러 숙성 기간과 셀러 마스터가 빈티지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해 출시한다. 그랑 빈티지 2015와 그랑 빈티지 로제 2015 푸드 페어링의 시작은 와인의 농익은 매력에 맞는 질감과 육즙 가득한 풍미의 토대로서 적절한 조리가 필요한 주재료(육류, 생선, 채소)의 선택이다. 이와 더불어 샴페인의 부드러운 풍미와 어울리는 보조 재료들과의 조화로움이다. 모엣 & 샹동 그랑 빈티지 2015와 그랑 빈티지 로제 2015 두 제품은 백화점 및 와인 샵, 호텔 & 레스토랑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moet.com/kr-kr

PATAGO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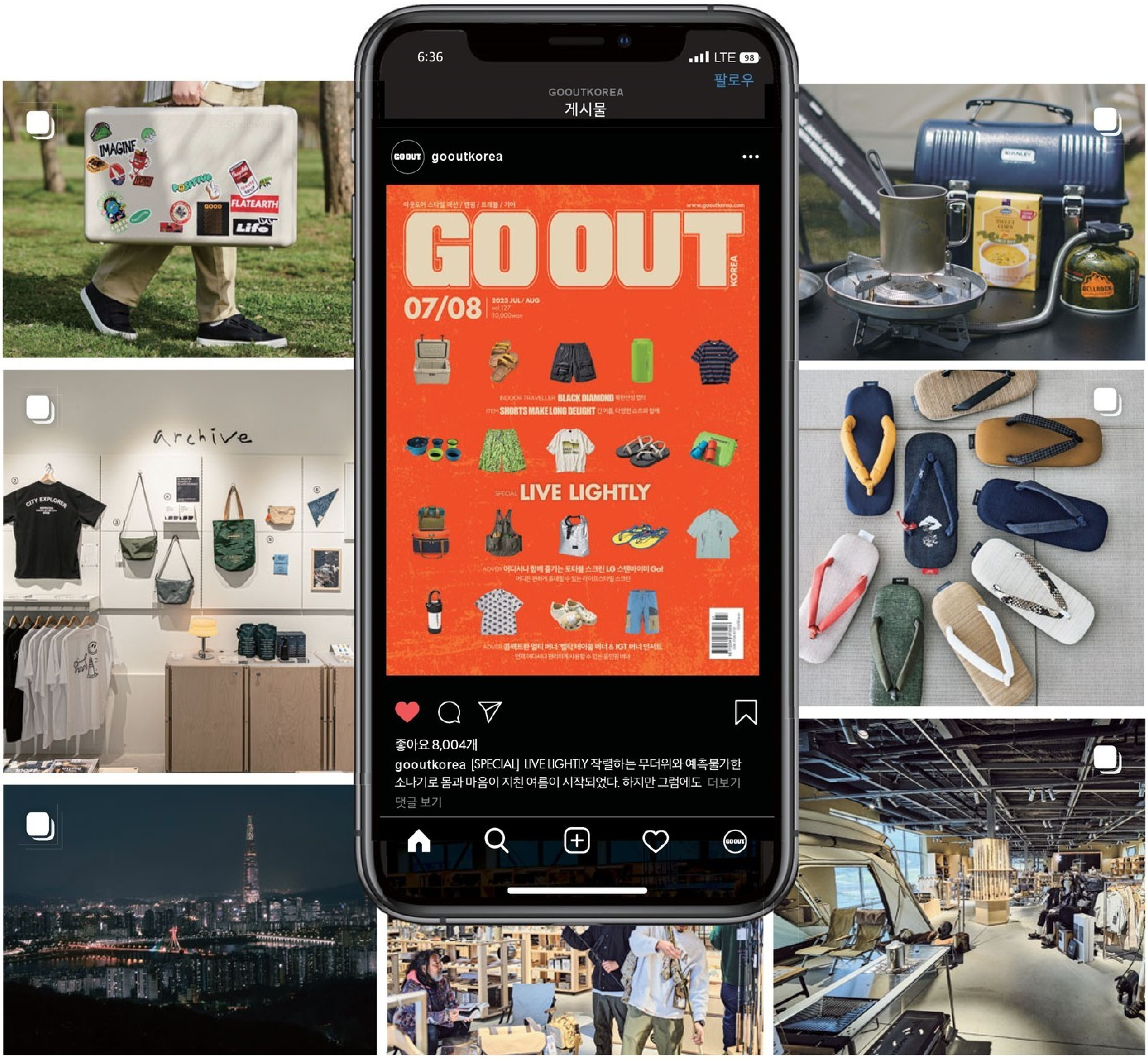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지난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해양지역 보호를 위한 글로벌 환경 캠페인 'MPA(Marine Protected Area)'를 전개하고 있다. MPA는 파타고니아의 미국 본사를 비롯해 북미와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세계 모든 지사가 뜻을 모아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의 지정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파타고니아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전 세계 각지의 해양 문제 실태와 환경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환경단체와 지역민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이번 캠페인 론칭을 기점으로 3개월 동안 통영과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해양보호 활동 현장에 참여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캠페인 필름 상영회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타고니아 코리아 MPA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patagonia.co.kr

아웃도어 스타일 패션 / 아이템 / 트래블 / 기어

GO OUT KOREA

<고아웃> 코리아는 매거진 이외에도 WEB & SNS 채널로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합니다.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제작되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최신 이슈와 콘텐츠를 꾸준히 소개합니다.
지면에 구현하기 힘든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등으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www.gooutkorea.com
www.facebook.com/gooutkorea
@gooutkorea
'고아웃매거진' 또는 '고아웃코리아' 검색

₩120,000

<고아웃> 코리아 1년(12권) 정기 구독

아웃도어 스타일, 아이템, 기어 등 <고아웃> 코리아 매거진이 전하는
최신 아웃도어 소식을 만나보세요.

온라인 구매 또는 서점 방문의 불편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고아웃> 코리아 매거진을 받아보세요!

우리은행 1005-001-290615
예금주 ㈜미디어 블링

GO OUT KOREA
정기 구독 안내

❶ '고아웃 스토어'에 접속 www.gooutkorea.com
❷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GO OUT MAGAZINE' 클릭
❸ 상품(정기 구독) 선택 후 안내에 따라 결제

정기 구독 문의 메일
nurino8@mediabling.co.kr

BRAND INFO

ㄱ

가민 02-2141-5855
강정이 넘치는 집 0507-1417-0447
고미태 010-4876-8432
고요웨어 010-9206-1305
공릉동 닭한마리 02-972-7459
그라미치 1600-8143
그립스와니코리아 02-514-6685
글로썸 1668-1353
까웨 1644-6862

ㄴ

남이섬 031-580-8114
네이더스 02-745-7401
네스트스토어 02-790-5192
네파 1666-2096
노다 1877-4191
노르디스크 02-780-6821
노스페이스 1661-3512
노티카 02-324-8849
뉴발란스 아웃도어 080-999-0456
능라도 마포점 02-717-0304
니모 02-389-7141

ㄷ

단톤 1544-3568
데우스 02-541-0854
데카트론 1800-2025
도메틱 044-866-1567
디스트릭트 비전 1877-4191

ㄹ

라이카 1661-0405
랭글러 02-338-3316
레드렌서 02-558-1818
레이드백기어 010-9966-9954
레인지로버 080-898-9900
르크루제 070-4432-4133
리 02-338-3316

ㅁ

마나스타시 02-337-3907
마크곤잘레스 1588-2906
막불감동 0507-1305-2110
메인터넌스 070-8064-8283
모던하우스 1899-0811
모엣샹동 02-2188-5100
몽벨 031-714-7027
밀레 02-1644-7710

ㅂ

바이레도 02-3479-1688
반스 1522-1882
밤켈 1670-3237
뱅앤올룹슨코리아 02-518-1380
베스파 02-6671-1946
베이거하드웨어 02-738-6428
벨락 031-996-1330
부기우기 010-2396-3050
브루먼 070-7576-0573
블랙다이아몬드 1644-4807
블랙야크 1800-6166

ㅅ

살로몬 1833-4203
삿포로 더 퍼스트 바 02-518-0981
새티스파이 러닝 1877-4191
소복국수 02-722-7771
소비코 02-2106-2875
스노우피크 02-6203-1252
시에라디자인 070-4103-2222
심야의 숲 010-4903-0724
씨투써밋 02-6953-7012

ㅇ

아디다스 1588-8241
아미와인스튜디오 서울 0507-1422-9030
아비브 070-4131-5906
아이더 1533-1631
아웃스탠딩 070-4048-7735
아웃오브올 1877-4191
아포테케 프라그런스 070-4179-8512
안나푸르나 070-8859-2516
어바웃블랭크인 02-499-0902
어반디타입 070-8690-8027
에스피오나지 02-544-1793
에이카 02-517-1467
오라이트 070-7893-5251
오르트립 02-6953-7012
오베이 02-541-0854
오스윈 010-6511-1059
오스트리야 070-4117-2222
오지엔 070-8095-2128
오픈먼데이 070-4210-2988
옥루몽 0507-1483-0047
올리브영 1522-0882
원조할아버지 순두부 02-447-6540
웰터익스페리먼트 070-8690-8027
유니폼브릿지 02-792-2593
이벳필드 02-338-3316

ㅈ

장꼬방 02-597-5511
제로그램 1644-7805
진옥화할매 원조닭한마리 02-2275-9666

ㅊ

창동 원조삼계탕 02-903-5347
챔피온 02-6204-1111
철원군청 한탄강관광부서 033-450-5532
초소책방 02-735-0206

ㅋ

카르도 070-4155-9774
카부 070-4944-6816
칼렉 070-4047-5883
칼하트WIP 02-541-0854
칼한센앤선 02-545-3934
케이투 1533-1631
케일 070-4187-0446
코오롱스포츠 1588-7667
콜 02-3474-0855
클라터뮤젠 02-351-3445
클린켄틴 02-558-1818

ㅌ

테 070-5100-1711
테렉스 1588-8241
토속촌삼계탕 02-737-7444
토포디자인 070-4351-3135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070-4323-2560
팀버랜드 1522-4010

ㅍ

파타고니아코리아 1544-1876
팔렛 02-338-3316
퍼킹어썸 서울 0507-1410-1349
펀샵 1544-6205
페치 02-322-7273
펠리칸 02-6092-4700
평가옥 역삼점 02-556-1577
폴러스터프 코리아 070-7090-4375
프리즘웍스 070-4063-4692
피엘라벤 1566-8911

ㅎ

하이드아웃 1588-7667
헨리코튼 1588-7667
호밀밭 02-392-5345
홀라인 02-337-3907
희녹 070-4184-1005

A

AHC 080-332-0855
ARC 070-8800-5678

E

ENTRY55 0507-1392-0285
EXPED 02-780-6821

J

JBL 02-3488-9802

L

LG전자 02-3777-1114

N

NTCA 010-2909-9368

T

TRVR 02-6927-7727

Y

YMC 1544-3568

Uniform Bridge
Casual And Vintage

Hi:Hæk
www.cityhands.com